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1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7월 19일)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8월 21일 사퇴 기자회견 직후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설정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산중으로 돌아갔다.
사진= 박재완 기자

불신임 멍에 안고 설정 스님 '산중으로'

총무원장 사퇴한 설정 스님, 원로회의는 불신임 인준

8월 21일 총무원청사 떠나며
원장직 내려놓은 설정 스님
명확한 '사퇴 언급' 없어 혼란

원로회의 '법적다툼 예방' 목적
불신임 결의안 만장일치 인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취임 후 10개월 만에 소임을 내려놓고 떠났다. 스님은 8월 21일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산중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며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 인준'이라는 최악의 불명예를 피하려 했으나, 다음날 원로회의는 '법적 다툼 예방'을 목적으로 불신임을 인준했다. 이로써 설정 스님은 자진사퇴를 통해 해임은 면했지만 최종적으로 불신임이 인준된 첫 총무원장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원로회의 전날 긴급 기자회견

설정 스님은 원로회의 소집을 하루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스님은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 마련된 단상 앞에 굳은 표정으로 섰다. 지난해 10월 총무원장 당선 후 올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체 화합을 이루겠다"고 밝힌 그 자리다. 기자회견장 양 옆은 총무원 부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스님들과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 등 덕숭총림 스님들이 가득 메웠다.

설정 스님은 사퇴의사를 표명하기 전 현재 한국불교가 처한 위기상황을 진단한 뒤 앞으로 후학들이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불교개혁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신이 여론의 뭇매로 인해 물러나지만 종단이 변해야 한다는 의지는 강하게 드러냈다.

설정 스님은 "오늘날 종단은 국가체제를 모방한 선거제도로 인해 위계질서와 장로정신이 무너지고 화합이 깨졌다. 삼보정재가 탕진되는 악순환이 종단을 철저하게 붕괴시키고 있다"고 현재 조계종의 위기상황을 진단했다.

설정 스님은 "서울시내 밤거리를 밝힌 십자가들을 보면서 우리 종단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생각해봤다. 그래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사부대중이 한국불교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의견을 종합해 들으려 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면서 언론을 통해 자기 식구 헐뜯기에 전념했다. 여론몰이를 당할 때 염려해준 사람이 많았지만,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당사자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융살림'의 가치를 중심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 현 종단 상황을 진단하고 방향을 제언한 설정 스님은 자신이 총무원장직을 내려놓고 수덕사로 돌아간다는 뜻을 밝혔다.

설정 스님은 "94년 개혁회의 법제위원장으로서, 종법을 만든 장본인으로서 종단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왔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산중으로 되돌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특권층을 위한 종단이 아니라 온 종도가 부처님 품안에서 자유롭게 정진하고 봉사하는 종단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약 20분간 법문에 가까운 기자회견을 마친 설정 스님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집행부 스님들과 조계사 대웅전으로 향했다. 설정 스님은 대웅전과 극락전에서 부처님전에 3배의 예를 올렸으며, 총무원청사 앞으로 이동해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종무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몇몇 종무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며, 설정 스님은 악수를 마친 뒤 자신의 차에 올라타 덕숭총림 대중과 함께 수덕사로 돌아갔다.

"사직은 인정, 불신임 불가피"

설정 스님이 자진사퇴하면서 다음날 소집된 원로회의서는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원로회의는 이를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재적의원 23명 중 19명이 참석했다.

회의 직후 원로회의 사무처장 남전 스님은 브리핑을 통해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사직은 인정되나 사직에 대한 법적 다툼을 종식시키고,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총무원장 불신임 인준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무처의 이 같은 발표는 설정 스님이 기자회견에서 '사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원로회의의 명확한 법적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설정 스님 사퇴가 확정되면서 조계종은 총무원장 권한대행체제에 돌입,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접어들었다.

〈관련기사 A2면〉

선종 불교성지 진전사 둘레길 조성

양양군 탐방길 조성 착수… 양분된 사역 연결

선종불교의 성지인 진전사지에 새롭게 둘레길이 조성된다.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한국 선종불교의 성지로 알려진 진전사 탐방길 조성공사를 추진한다"고 8월 22일 밝혔다.

양양군은 전통사찰 진전사 인근에 위치한 도의선사탑에서 국보 제122호 삼층석탑이 있는 진전사지(陳田寺地) 구간 친환경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산지사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8월 중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탐방로가 조성되면 현재 사찰이 위치해있는 도의선사탑 부지와 진전사지삼층석탑 주변 사역으로 양분된 진전사 일원이 하나로 연결된다.

또한 양양군은 탐방로 조성에 있어 과도한 절토 등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선계획을 수립했으며, 상단부에 위치한 도의선사탑에서 삼층석탑으로 내려가면서 주변 산지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탐방로는 길이 531m, 폭 1~1.5m 내외의 오솔길로 일부는 야자매트를 깔고, 지형에 따라 급경사 지역은 목재계단과 안전난간을 설치할 예정이다. 소규모 계곡구간에는 징검다리 형식의 돌다리를 설치한다.

진전사는 한국에 선종을 들여온 도의선사가 창건했으며,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 스님이 출가한 사찰로 알려져 있다.

진전사가 언제 없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진전(陳田)'이란 글씨가 새겨진 기와조각과 연꽃무늬 수막새기와, 당초무늬 암막새기와, 물고기무늬 기와 조각들



강원 양양 진전사지 전경.

이 차례로 출토되면서 이 일대가 진전사 절터였음이 확인되었다.

현재는 국보 제122호인 삼층석탑과 보물 제439호 도의선사탑이 남아 있으며, 지난해에는 진전사 사역 확인을 위한 발굴 및 시굴조사에서 국보급 가치가 있는 금동보살삼존불입상이 출토되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받았다.

이성섭 양양군 문화관광과장은 "통일신사시대에 창건돼 스님들의 수행처로 명성이 높았던 선림원지와 함께 진전사지는 우리나라 선불교의 상징적인 유적"이라며 "유서 깊은 불교문화유산을 소중히 보존하고,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자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진전사에서 출발해 설악저수지를 끼고 시원한 계곡 물줄기(둔정계곡)를 따라 설악산의 수려한 숲길을 감상할 수 있는 4km 구간 순환 트레킹 코스를 별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으로 둔전계곡 탐방로 조성이 마무리되면 진전사 둘레길과 연계한 산책코스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성민 기자

'폭염 끝' 안거 해제, 만행 나선 운수납자

조계종 97개 선원서 2000여 수좌들 용맹정진

불기2562년(2018년) 무술년 하안거가 이례적인 폭염을 이겨내고 해제했다. 8월 25일 안거 해제를 맞아 전국서 3개월간 용맹정진한 운수납자들은 만행을 떠났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 정진 대중현황을 정리한 〈무술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이번 안거에는 전국 97개 선원(총림8 · 비구선원56 · 비구니선원33곳)서 총 2,000명(총림280 · 비구1069 · 비구니651)의 대중이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하안거 해제를 맞아 "금년의 무더위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진일여 하여야만, 본인의 살림살이가 드러나고 공부의 진취가 나타난다"면서 "분발심을 갖고 정진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법어를 내렸다.

진제 스님은 이어 "해제일 되었다고 화두를 내팽개치고 정신없이 돌아다녀서는 아니 되며, 산천에 마음을 빼앗겨 화두를 결망에 넣어두고 유랑을 다녀서도 아니 된다"면서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정 및 총림 방장 법어 A5면〉

윤호섭 기자

37년 전통의 전국 최초 · 최고의 명품교육 실현
부산불교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하반기 6개월 과정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982년 개교이래 37년동안
1만5천여명의 졸업생과 1,200여명의 포교사 및 100여명의 승려를
배출한 명실공히 국내 최초, 최고의 불교대학으로 승가 및
유명대학의 저명한 법사님을 초빙하여 명품교육을 실현하며
정법구현과 불법홍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여래정사 주지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합동입학식 : 9월 6일(목) 오후 7시

기초교리학과 — 기초 핵심교리 중심으로 알기쉽고 체계적인 강의
야간반 : 매주 월요일 오후7시~9시
주간반 : 매주 토요일 오후2시~4시

불교문화포교사자격증 — 민간자격 등록 제 2018-000374 호
사찰문화재 중심으로 현장답사 및 시청각 강의
매주 화요일 오후7시~9시

유식론 — 전 동국대 이 만 교수
매주 화요일 오후7시~9시

풍류대금반 — 김동수 / 문체부장관상 수상
맑고 깊은 소리를 통한 마음 치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판소리반 — 임인환 / KBS, MBC 출연
전통소리의 향기를 찾는 여행
매주 금요일 오후7시~9시

힐링연극반 — 임인환 / KBS, MBC 출연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여행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빌딩 5층(서면 롯데백화점 건너편) Tel. 051-711-0700

제36대 총무원장 선거 9월 28일 확정

조계종 중앙선관위 결정… 입후보 등록 9월 4~6일

선거 당선 즉시 임기 시작
선거운동은 자격심사 이후
인신공격·금품제공 금지

총무원 권한대행 체제 돌입
"불교공동체 정신 회복 도모"
중앙종회도 9월 6일 소집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사퇴에 따라 60일 내 차기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조계종이 9월 28일 선거를 실시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342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제36대 총무원장선거 일정을 이 같이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무원장선거일은 9월 28일, 입후보 등록기간은 9월 4~6일이다. 총무원장선거 출마 자격은 승랍 30년·연령 50세·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서 중앙종회의장·호계원장·교육원장·포교원장을 역임하거나 △교구본사주지 4년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한 자,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을 역임한 자여야 한다.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종회는 9월 13~17일 본사별로 개최해야 한다.

후보자 자격심사는 9월 12일 진행되며, 자격심사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는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행위 △법에서 정한 토론회 외 집회 개최 △선거인의 식사 및 숙박 알선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행위 △종단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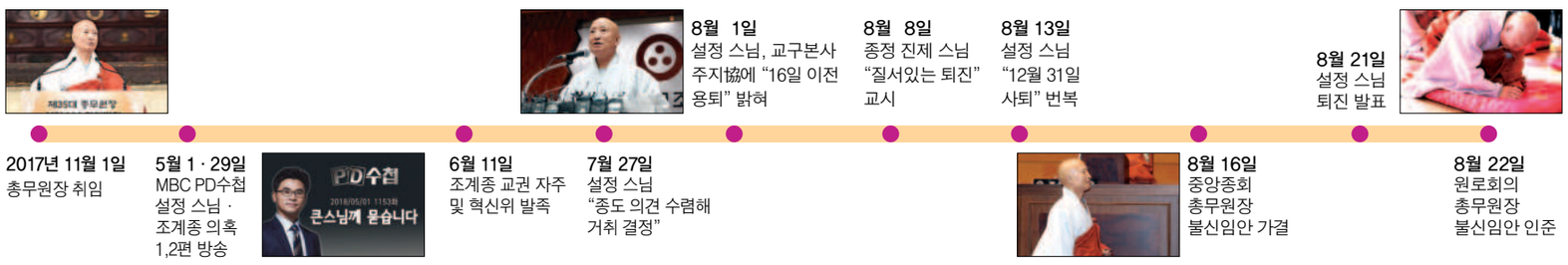
선거 당일에는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선거인단 240명 등 최대 321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장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이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이후 제36대 총무원장이 확정되고, 중앙선관위가 당선증을 교부하는 그 즉시 임기가 시작된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총무부장 진우 스님이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조계종은 8월 21일 설정 스님 사퇴 기자회견이 끝난 뒤 진우 스님 명의로 특별담화문을 내고 "종단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종헌종법에 입각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계종은 종정 진제 스님이 "율장 정신을 받들어 종헌을 준수하고 종헌종법 질서 속에서 사부대중과 국민 여망에 부응해 여법하게 선거법에 의해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8월 8일 발표한 교시를 봉대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관련, 중앙종회는 26일 개최되는 전국승려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해종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전망이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은 8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의장실서 제17차 연석회의를 열고, 해종특위 구성 등을 다룰 제211회 임시회를 소집키로 했다. 의사일정은 9월 6일부터 10일까지다.



종단 개혁 꿈꿨지만, 범계 의혹 '걸림돌'

설정 스님, 총무원장 당선부터 사퇴까지

역대 최고 득표로 당선
선거 과정 범계 의혹들
명확한 해명없이 결백만

종단 내외 비판 이어져
대응 나섰지만 한계 봉착
불신임 가결 초유 사태도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사퇴했다. 총무원장 취임일인 지난해 11월 1일 이후 294일만이다.

시작은 화려했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으로 불교계 안팎에서 많은 존경을 받던 설정 스님은 지난해 10월 12일 열린 총무원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

11월 1일 조계사에 열린 설정 스님의 취임법회에는 정재계 인사와 불자 등 약 1만 명이 운집했다. 당시 설정 스님은 신심과 원력, 공심으로 한국불교를 발전시킬 것을 대중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범계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는 설정 스님의 10여 개월의 임기 내내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히, 올해 부처님오신날 전후한 5월 1일과 29일 방영된 MBC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에서 제기된 설정 스님의 범계 의혹은 설상가상으로 다가왔다. 당시 조계종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MBC가 조계종과 관련한 의혹 수준의 문제제기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영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해명을 약속했지만, 종단 안팎의 여론은 급격히 차가워졌다.

잇단 악재에 6월 11일 조계종은 원로, 본사주지, 중앙종회, 율사 등이 참여하는 종령기구인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회는 '종단 자주권 수호위원회'와 '의혹 규명 및 해소위원회', '혁신위원회'로 나눠 활동했다. 특히 의혹 규명 및 해소위원회는 설정 스님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해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회가 발족했지만, 불교계시민사회단체와 승가단체, 일반 사회단체 등의 설정 스님을 향한 비판은 전방위로 이뤄졌다. 이들은 조계사 앞에서 매주 목요일 촛불법회를 개최하며 설정 스님을 압박했다. 종단 원로인 설조 스님의 단식은 더욱 불을 당겼다. 설조 스님은 41일 간 총무원 청사 앞 우정총국에서 단식을 이어가며 설정 스님의 퇴진과 종단 개혁을 주장했다.

7월 27일 결국 설정 스님은 기자회견을 열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사퇴 의사가 담기진 않았지만, 용퇴 분위기에 무게가 실렸다. 설정 스님은 8월 1일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등을 통해 8월 16일 소집되는 중앙종회 임시회 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종정 진제 스님도 8월 8일 내린 교시에서 사퇴 의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정 스님은 8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개혁 초석 마련 후 12월 31일 사퇴하겠다"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자 불교광장 측 중앙종회 의원과 교구본사주협의회 등은 즉각적 반발하고 스님의 용퇴를 촉구했다.

결국, 8월 16일 열린 중앙종회 제211회 임시회서 찬성 56표로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통과되기에 이른다. 조계종 역사상 첫 총무원장 불신임 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불신임안 가결은 설정 스님이 종단 내부 지지를 받지 못해 이뤄진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명확한 해명 없이 오로지 결백만을 주장한 부분도 종도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불신임안 인준을 위한 조계종 원로회의를 하루 앞둔 8월 21일 설정 스님은 총무원장 직을 내려놨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탐진치 삼독 행복 방해하는 근본 번뇌

우리 중생은 번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교의 8만 4천 법문은 코끼리가 함정에서 빠져 나오듯 번뇌의 지옥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는 이고득락의 가르침입니다.

마음가짐 중에서 가장 나쁜 3가지 번뇌를 '독이 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근본적인 번뇌로서 탐욕(貪慾)과 진에(瞋恚성냄)와 우치(愚癡 어리석음)를 말합니다. 줄여서 탐진치인데 중생을 해롭게 하는 것이 마치 독약같아서 삼독(三毒)이라고 합니다.



선정-물아일체 그림·조향숙

'탐욕 성냄 어리석음' 삼독
'아상과 집착'에서 비롯
삼법인과 계정혜로 제거
"자아 죽어야 무아 된다"

탐진치는 악의 근원으로 업의 덩어리이며 파괴적인 마음가짐으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합니다.

일체의 번뇌를 압축한 삼독은 '나'에서 나옵니다. 자아에 대한 아상과 집착에서 생성되는 고통의 원인입니다.

*탐욕은 자기가 욕망하는 것에 욕심을 내어 집착하는 것입니다. 탐애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대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

'99개를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 100개를 채운다'는 속담처럼 우리 중생은 욕망의 대상을 갖고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계속됩니다.

탐의 반대는 계(계율)입니다. 계정혜 삼학의 계학(戒學)에 속하는 8정도의 정어, 정업, 정명과 6바라밀의 지계와 보시 수행으로 탐욕을 다스려 무탐으로 갑니다.

*성냄·분노(진에)는 탐욕의 이면입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집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진에의 반대는 선정(禪定)입니다. 정학(定學)에 해당하는 8정도의 정정진, 정념, 정정삼매와 육바라밀의 인욕과 정진, 선정으로 분노를 극복합니다.

*어리석음(우치)은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볼 수 없는 어두운 마음입니다. 모든 번뇌의 근원으로 탐심과 진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치의 반대는 혜(지혜)입니다. 혜학(慧學)에 해당하는 8정도의 정견과 정사유, 지혜바라밀로 치심을 다스립니다.

*탐진치를 제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을 없애 지혜로워 지는 것입니다. 무상과 무아에 대한 통찰과 계정혜 삼학은 탐진치 삼독을 여의고 열반에 이르는 수행의 근본입니다.

나라고 하는 아집 즉 자아(自我)가 죽어야 무아(無我)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 방하착(放下着)합시다. 내려놓고 비우면 걸릴 탐진치가 없습니다. 비움으로 되었을 때 사물의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통찰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세상의 행복이 있습니다.

탐진치의 불꽃이 꺼진 열반의 자리입니다.

〈삼천사 회주·동국대 석좌교수〉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 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9월 1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

“체험 없는 이론 그만”… 도심속 참선지도

(사)참선지도자협회, 9월부터 ‘참선 아카데미 대강좌’

일반인 · 직장인 강의 나눠
팔정도 체험 이끄는 수행
한국불교 대표 선승 총출동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마음챙김 · 심리치료 · 내면성찰 등 종교색을 배제한 명상법이 개발되고 유사수행까지 횡행하는 요즘, 깨달음을 찾아 정진하는 선승들이 산문 밖으로 나와 도심서 진정한 수행의 요체를 전한다.

(사)한국참선지도자협회(협회장 각산)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일반인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제1기 참선아카데미 대강좌’를 서울 강남 참불선원에서 개강한다. 일반인 대상 첫 강의는 9월 14일, 직장인 대상은 15일 각각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실참 중심의 수행지도

강좌는 총 13회 26강으로 진행되며 △참선명상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안반선(호흡명상) △선(禪)과 융합한 심리치료 △선문화 불교전법 △젊은 세대와 공감하는 불교수행 등 새로운 명상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참선명상을 콘텐츠로 충주 석종사 · 인제 백담사 · 양평 상원사 · 해남 미황사 · 강화도 연등국제선원 등에서 ‘참선 템플스테이’를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참선아카데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간 산문을 떠나지 않고 깨달음을 향해 수행정진에 매진해온 선승들이 대거 참선지도에 나선다는 점이다.

우선 산사순례와 특별법문에는 봉암사 조실 적명 스님과 해인사 희랑대 조실 보광 스님이 참여하며, 석종사 참선템플스테이서는 혜국 스님이 수행지도를 맡는다. 아울러 강의는 내소사 선덕 일오 스님, 대흥사 유나 정찬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의정 스님,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 해인사 선원장 효담 스님, 前봉암사 한주 정과 스님, 참선지도자협회장 각산 스님, 한산사 용성선원장 선법 스님,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부의장 원근 스님, 선학사 자애선원장 대위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 등이 참선의 이론과 실참을 지도한다.

참선지도자협회장 각산 스님은 “체험 없는 이론은 번쇄철학이다. 많은 명상법들이 각광받다가 대중에게서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미진한 체험 때문”이라며 “간화선을 포함한 참선은 사성제와 팔정도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대중이 치유 목적으로 명상을 찾지만 참선은 치유를 넘어 ‘완전한 내려놓음’으로 인도하므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참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선지도사’ 양성 계획

한편 참선지도자협회는 참선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참선지도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협회 측은 “현대인의 정신적 불안과 결핍을 치유하고, 향후 도래할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롭고 수준 높은 참선지도사를 양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참선아카데미는 참선지도사 자격증 인증 과정으로 인정된다.

협회는 또한 △국제명상포럼 · 참선심포지움 · 세계명상 힐링캠프 운영 등 명상 마이스(MICE) 진흥 △세계적 명상센터와의 네트워크 확대 및 국제연합체 결성 △참선지도자 발굴 · 육성 △참선수행 심리테라피 및 힐링콘텐츠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협회장 각산 스님은 “실참 경력이 풍부한 선마스터들의 참선교육을 통해 참선지도사를 배출, 참선과 명상의 대중화는 물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서 “참선이 불교 수행법이라는 제한된 역할에서 벗어나 보편적 생활지침으로 자리 잡고, 한국의 정신문화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참선아카데미 대강좌는 일반인반(매주 금)과 직장인반(매주 토)으로 나눠 운영되며, 정원은 각 150명 선착순 마감이다. 수강료는 28만원. 1577-3696

“‘낙태’ 말고 ‘임신중단’ 표현을”

화쟁위 등, 8월 22일 낙태 관련 2차 집담회 개최

변신원 “현실 반영한 다초점 정책 필요”
이미령 “인간 믿고 낙태 허용 지켜봐야”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입장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종교적 입장을 모색하는 집담회가 열렸다.〈사진〉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 미래세대위원회(위원장 심산)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함께 8월 22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서 ‘낙태죄, 화쟁의 눈으로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2차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현행법의 한계를 분석한 뒤 낙태를 포함한 사회적 이슈에 불교가 관여하는 방식을 정리하는 시도가 이뤄졌다.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임신중단’ 용어 사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 교수는 “‘낙태’에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부정적인 행위란 뜻이 내포돼 있다”며 “편견적 태도를 포함한 낙태대신 중립적인 용어인 ‘임신중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교수는 낙태죄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모자보건법 14조’가 사문화된 규정이라 지적했다. 변 교수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14조는 기혼여성에 한해 배우자 동의를 얻으면 낙태를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변 교수는 “비명시적이며 악용 소지가 있는 모자보건법 세부조항은 현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퇴행 수준에 머물러있음을 보여준다”며 “태아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이란 이분법적 가치론을 넘어 성 평등, 국가의 양육책임까지 고려한 ‘다초점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미령 불교칼럼니스트는 ‘세간의 중생을 따라주는 것이 보살의 의무’라는 보현행원품의 수순중생(隨順衆生)을 상기해야한다고 짚었다. 이 씨는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혼란과 방임의 모습이 번지더라도 결국 인간은 반성하는 존재로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불교는 낙태를 죄로 규정하지 말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고 문제에 대해 모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군승파송 50년, 역대 교구장 공적 기린다

군종교구, 8월 18일 호국연무사에 자광 스님 공덕비 건립

125억원 대작 불사 성료 공로로
1대 원광사, 3대 JSA 건립 예정



호국연무사에서 신축불사에 크게 기여한 제2대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의 공덕비.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선묵 혜자)가 군승파송 50주년을 맞아 역대 군종교구장의 공덕을 기리는 사업을 진행한다.

첫 사업으로 8월 18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신축불사에 크게 기여한 제2대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의 공덕비를 제막했다.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대작불사는 125억원의 불사금이 소요돼 대지 48,800여㎡에 건면적 5,280㎡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총 3500여 명을 동시에 수용가능한 대형 법당 불사로 2년에 걸쳐 이뤄졌다.

이날 공덕비 봉안식에는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을 비롯해 육해공군 군승법사, 국군불교총신도회와 예비역불자회, 동국대학교 관계자와 불교어머니회 회원, 반야선원 신도 등 3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스님의 공덕비 제막을 축하했다.

이 불사 동안 자광 스님은 교구장으로서 전국을 다니며 불사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은 “불교미래를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회향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스님께서 얼마나 큰 원력으로 불사를 진행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고 평가했다.

전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죽을 힘을 다했다. 이 건물 짓고 죽어도 원이 없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완성을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날 호국연무사 신도들도 대거 참여해 장병들뿐만 아니라 신도들에게도 보람이 된다고 말했다.

이정훈 호국연무사 금강회장은 “15,000여 명의 귀한 동참으로 이루어진 불사인연으로 신행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전법포교와 국군장병 무운장구를 위해 보다 널리 회향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종교구는 역대 군종교구장 선양사업 일환으로 군종교구로서 기틀을 다진 초대 교구장 일면 스님은 교구본사 원광사 내, JSA무량수전 불사를 일군 3대 교구장 정우 스님은 JSA법당 경내에 공적비를 봉안할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4년간 달려온 여러분 응원합니다”

동국대, 가을 학위수여식…학 · 석 · 박사 1687명 배출



동국대(총장 보광)는 8월 23일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2018년 가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060명, 석사 535명, 박사 92명 등 총 1,687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지난 4년 간 성실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해 서로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자”며 “우리 동국인들이 그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길 바란다.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모교에 요청하기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누더기 스님’으로 잘 알려진 영일암 주지 현응 스님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가 수여됐다. 스님은 30년 된 승복을 아직도 기워 입으며 동국대에 장학기금을 꾸준히 전달해 왔다.

또한, 동국대는 모교 발전에 헌신해 온 김진문 신성약품(주) 회장에게는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신성민 기자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향기(법정스님의 좋은 글)
부처님과의 소통(사찰의 옛 다리)
동승의 행복
지혜동자
연꽃향기
동승이야기
민족의 산하
법승이 깃든 산사
위 카렌다 외에도 총16종의 카렌다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

6절 (305 × 306)	정가 1,800원	1,4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6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 2,000부 주문시 1,300원
12절 (255 × 260)	정가 1,600원	1,1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3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 2,000부 주문시 1,000원
미니스프링 (90 × 98)	정가 800원	할인가 600원
미니 수첩 (90 × 130)	정가 1,000원	할인가 700원
비닐캡 (90 × 160)	정가 800원	할인가 400원
탁상카렌다 (260 × 190)	정가 2,500원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

"재가 신행 지침, 한국불교 생존전략"

한국불교학회, 16일 재가불자 신행지침 토론회

법이 오래 머무는 길, '계율'
공통 재가 신행지침, 결속력
가정 불단 운동 일어나야 해
정기 포럼 및 종단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 반드시 필요해

경주=하성미 기자

재가불자를 위한 공통 신행지침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불교 지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재가 신행지침은 불교 수행의 일상화를 이끌어내며 결집력을 강화해 미래 한국 불교의 존폐를 가름한다"고 주장했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8월 16일~17일 동국대 경주 캠퍼스 금당생활관 법당에서 2018년 하계워크숍을 개최하고 '재가불자의 신행지침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김성철 회장(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교수)은 토론회를 열며 재가자의 신행지침은 미래 불교 존재 가능성을 내다보는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김 교수는 "〈사문율〉에서 계율 제정의 10가지 의의 가운데 불법(佛法)이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함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불교 이외 다른 종교의 활동만 봐도 간단한 신행 지침을 지키는 활동이 결집력을 모은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한국불교학회는 불교국가인 미얀마와 티베트에서 수행 포교하는 활동가의 발표를 통해 재가 수행 지침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10년 동안 미얀마에서 수행을 이어 온 현암 스님은 "미얀마는 삼귀의와 오계를 기본적으로 지키며 불단이 각 가정마다 있어 예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불교의 생활화를 이뤘다"며 "아울러 한 달에 4번 정기적으로 포살을 지키고 8계를 수지하는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양승규 티베트대장경역경원 연구원과 박은정 나란다불교학술원 원장은 티베트 불교의 가정 불단 활용에 주목했다.

양승규 원구원은 "하루 시작을 부처님께 청수와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 연다"며 일상생활 가운데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가정 불단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8월 16일부터 1박 2일 간 2018 하계워크숍을 열고 '재가불자 신행지침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박은정 원장은 "한국불교는 참선 수행을 중시해 스님들에게 체계적인 가르침을 듣거나 지속적인 지도를 만나기가 어렵다"면서 "티베트 불교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지역에 있는 사원에서 스승을 만나고 수행 지침을 받는다. 티베트 불교의 스승들은 계학을 강조하며 재가자와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대중들도 재가불자를 위한 신행 지침 마련에 적극 동의했다.

이평래 대행선연구원장은 자신이 실천하는 관혼상제를 예를 들며 "집에서 제사를 육법공양으로 지낸다. 지금이라도 관혼상제를 불교식으로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교의례의 생활화를 강조했다.

또 다른 재가자는 "재가자들도 식사 시에 게송을 외우고 평소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돕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행 지침 마련을 위해 경전 공부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토론에 참여한 해피 스님은 "한국불교는 다양성을 수용하고 통불교라 부르고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공통된 신행 지침이 없어 결집력을 갖지 못하는 건 안타깝다"며 "경전 공부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된 공통 신행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호 국회 출입기자 포럼 회장도 "신행지침 토론을 지속적으로 열어 지침을 구성 제안하고 종단에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김성철 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불교권의 재가불자들은 자신의 집에 불단을 모시고 있고 부처님을 모신 불단을 마련해야 그 후 비로소 지계의 다짐, 기도, 참회 등등 재가불자들이 신행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앞으로 포럼과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좋은 신행지침을 끌어내고 종단에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학회 하계워크숍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신진학자들이 연구한 우리시대의 불교학'을 주제로 논문발표회가 열렸으며, 8월 17일에는 황룡사지, 감은사지 등 불교유적 답사가 진행됐다.

빠리사학교 개척법사 · 강사 수료

붓다스터디 빠리사학교는 8월 24일 제1기 개척법사 과정 및 제2기 개척강사 수료식을 개최했다. 1기 개척법사로는 신기윤 조화제 진철희 조명숙 민병직 씨가 수료했으며 2기 개척강사로는 변혁주, 이기석 씨가 수료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교리모델에 조화제 법사(서울대불교동문회 회장), 수행모델 신기윤 법사(전 행정차치부 불자회 회장), 전법모델 진철희 법사(경기불교문화원 원장), 봉사모델 조명숙 법사(불광법회 봉사 리더), 사회적 역할모델 민병직 법사(용인삼가초등학교 교장) 등이 발표했으며 종합토론에서 김재영 지도법사의 진행 하에 토론이 이뤄졌다.

빠리사학교 측은 "불교계가 크게 혁신의 과제를 끌어안고 부심하는 마당에, 재가자의 적극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교학과 신행모델도 쇄신해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척법사과정 수료자들은 '우리 불교의 실천적 혁신모델'을 주제로 5개 분야별 모델을 정리해 발표했다.

한편, 붓다스터디 빠리사학교는 9월 14일부터 제3기 빠리사학교 개척법사 과정을 개강한다.

노덕현 기자

포교사단, 제16차 8재계 수계법회 봉행

강홍원 前 포교사단장, 총무원장상 수상

9월 8~9일 김제 금산사서



전국 포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계와 함께 전법의 의지를 다시 다지는 결집대회가 열린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윤기중)은 9월 8일부터 9일까지 김제 금산사에서 제16차 8재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8재계 수계법회는 △생명을 죽이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음행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술 마시지 말 것 △몸을 치장하거나 가무를 즐기지 말 것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 것 △때가 아니면 먹지 말 것 등 8가지 계율 실천을 다짐하며 포교사로서 지계정신과 신행을 점검하는 법회다.

특히 수계법회는 9월 8일 오후 7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제12기 전문포교사 및 제23기 일반포교사 품수식, 8재계 수계식, 철야정진과 5㎞걷기명상, 새벽예불, 회향식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무박 2일의 출가경험으로 포교사 원력을 다시 다지는 자리가 마련되며 또 5km 숲길을 걷는 걷기명상도 진행돼 눈길을 끈다.

포교사단 관계자는 "방등계단이 있는 금산사는 지계실천 대회의 의미가 잘 연결된다. 8재계를 통해 전북지역의 낙후된 불교 활성화를 도모하고, 포교사 발전을 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포교사단 8재계수계법회에서 진행되는 포교사 표창에는 대상인 총무원장상으로 자현 강홍원 포교사〈사진〉가 선정됐다.

강홍원 포교사는 제5대 포교사단장을 역임했다. 강 포교사는 죽전 서봉사, 과천 통혜사 등 지역 사찰과 용인지역팀 등을 조직화하고 불교의식 소양교육 등을 통해 인천경기지역 포교사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노덕현 기자

국제선센터 · 진관사, '유니크 베뉴' 선정

도심 위치 · 수행공간 · 숙박
문화체험 · 현대적 시설 등 호평

회의 · 포상관광 · 컨벤션 · 이벤트와 전시 사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서울 마이스 얼라이언스(Seoul MICE Alliance)'의 '유니크 베뉴(Unique Vanue)' 부문에 국제선센터와 진관사가 선정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최근 서울지역 외국인 템플스테이 전문사찰을 '유니크 베뉴' 회원사로 신청하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심사를 거쳐 8월 14일 최종 국제선센터와 진관사가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유니크 베뉴'는 마이스 행사를 개최할 때 회의 전문시설(컨벤션센터, 호텔 등)이 아닌 마이스 개최지의 독특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국제선센터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 전통수행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을 위한 '다르마 토크'는 명상 집중 템플스테이로 인기가 높으며, 기업 및 단체연수 등 템플스테이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니크 베뉴 부문에 선정된 국제선센터는 외국인 대상 명상 집중 템플스테이로 인기가 높다.

진관사는 사찰음식 명장 2호인 계호스님이 주지로 있어 사찰음식 체험이 가능하며, 단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한 맞춤형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두 사찰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나가는 수행공간이면서 서울 도심에 위치해 외국인이 참여 가능한 문화체험 · 숙박 · 회의공간 등의 시설을 갖춘 곳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크 베뉴' 회원사는 마이스 산업에 소개되는 다국어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공동으로 포함되며, 회원사 대상 교육 및 비즈니스 기회 제공, 서울 유니크 베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및 기업회의에 외국인 참가자당 1만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문화사업단은 앞으로 국제선센터, 진관사와 함께 마이스 산업을 통해 한국을 찾는 인센티브 단체 및 국제회의 등을 적극 유치해 템플스테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국제선센터와 진관사의 유니크 베뉴 선정을 축하하며, 문화사업단은 마이스 산업에 한국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를 국내외에 소개해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해남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밴드 나온다

해남 지역 장애인 밴드가 출범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대흥사 산하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보련)은 8월 22일 복지관 강당서 예술단 '고구마(GGM)'의 보컬 모집 오디션을 개최했다. 이날 총 9명의 참가자가 오디션에 도전해 각양각색의 기량을 뽐냈다. 행사는 시각장애인 가수 장지웅 씨의 공연을 시작으로 보컬 오디션, 스티커 투표 순으로 진행됐다. 관장 보련 스님은 "해남 최초로 결성 중에 있는 장애인 밴드 고구마(GGM)'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기획해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남 특산물서 이름을 딴 '고구마(GGM)'는 멤버 전원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밴드이다. 복지관 기관발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1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현재 복지관은 밴드 사업의 일환으로 악기 기부 및 후원자를 모집 중이다. (061)536-6311

김지원 수습기자



안거기간 반추해 자신의 정진 돌아보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當機一句千古輝(당기일구천고휘)요 臨機不變是丈夫(임기불변시장부)로다

기틀을 당한 일구는 천년토록 빛남이요 위태로움에 다다라 변치 않아야 장부로다.

금일은 삼복폭염(三伏暴炎)의 하안거(夏安居) 결제를 마치는 해제일((解制)日)이라. 구순(九旬)의 날들을 유례(類例)없는 무더위 속에서 화두와 씨름하고 더위와 싸우면서 안거를 마치게 되었다.

추운겨울이 되어야 상록수(常綠樹)의 진가(眞價)를 알 수 있듯이, 금년의 무더위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진일여(精進一如) 하여야만, 본인의 살림살이가 드러나고 공부의 진취(進就)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추위와 더위, 주림과 포만, 풍족과 궁핍 등 환경과 무관하게 정진에만 몰두하여야 할 것이다.

금년의 안거기간을 반추(反芻)하여 이번 무더위에 과연 자신의 정진(精進)은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

이 더위에 화두가 순일하지 않았다면 죽음의 고통에 이르러서는 어찌 할 것인가! 혹서(酷暑)의 무더위동안 '이 더위가 지나면 가을에는 열심히 정진하리라' 는 생각으로, 미루고 게으른 마음을 가졌다면 그 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다.

미루고 미루어서 오늘에 이르렀음에 다시 다음으로 미룬다면 어느 생에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고 심인법(心印法)을 만나서 대오견성(大悟見性)할 것인가. 내일도 기약하기 어려운 것이 인생(人生)이고 자연의 이치(理致)이다.

그러니 해제일 되었다고 화두를 내팽개치고 정신없이 돌아다녀서는 아니 되며, 산천에 마음을 빼앗겨 화두를 걸망에 넣어두고 유랑(流浪)을 다녀서도 아니 될 것이라. 가일층(加一層) 분발심을 가지고 정진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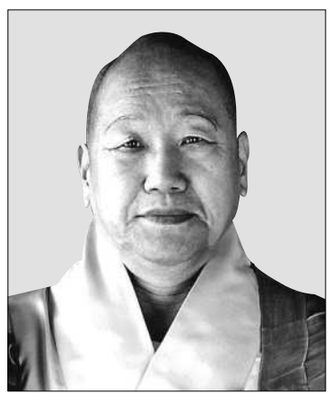
부처님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허상(虛相)과 모든 유형지물(有形之物)을 타파해야만 진리의 참모습이 현전(現前)되는 법이다. 모든 번뇌가 다하고 참모습이 드러난 거기에는 상대(相對)가 다 끊어지고 없다. 거기는 영겁(永劫)토록 나고 죽고 변하는 법이 없다.

이 우주는 이렇게 있다가도 여러 억만 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없어진다. 그리하여 거기에서 다시 이루어졌다가 또 없어지고 하는데, 우주가 이러한 성주괴공(成住壞空)을 낙동강의 모래알 숫자만큼이나 무수히 반복한다 해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 이 진리의 살림살이이다.

그러니 이러한 진리의 살림살이를 수용하여 생사안두(生死岸頭)에서 자유인이 되고, 살활종탈(殺活縱奪), 여탈자재(與奪自在)의 수완을 갖춘 대자재인(大自在人)이 되어야 비로소 대장부할 일을 다 해 마친 사람이라 하리라.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寤寐不忘)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야 함이로다.

화두를 챙기고 의심을 쭈욱 밀어주기를 하루에도 천 번 만 번 반복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화두의심한 생각이 끊어짐이 없도록 혼신을 다해 참구해야 함이로다.



그렇게 혼신의 정력을 쏟아 무한히 노력하다 보면 문득 참의심이 발동하여 화두의심 한 생각만이 또렷이 드러나게 된다.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밥을 지으나 청소를 하나, 일을 하나 잠을 자나, 일체처일체시(一切處一切時)에 화두 한 생각만 흐르는 냇물처럼 끊어짐 없이 흘러가게 된다.

이때에는 사물을 봐도 본 줄을 모르고 소리를 들어도 들은 줄을 모르게 되어 다겁다생(多劫多生)에 지어온 모든 습기(習氣)가 다 녹아 없어져 버리게 됨이로다.

이러한 상태로 몇 달이고 일 년이고,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남과 동시에 자기의 참모습이 환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로다.

〈중략〉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에 대구 동화사(桐華寺)에서 설석우(薛石友) 선사의 추모재일(追慕齋日)에 , 효봉(曉峰) 선사께서 상당(上堂)하시어 대중에게 물음을 던지셨다.

"옛날 보화(普化)는 전신(全身)을 관속에다 벗어 버리고 허공중에 요령소리만 남기고 가셨거니와, 이제 보화(普化)는 어떻게 가셨느냐?"

이에 당시 동화사 금당(金堂)선원 입승(立繩)을 보던 명허(明虛) 스님이 일어나서 벽력같은 '할(喝)' 을 했다.

"억!"

그러자 효봉 선사께서, "그런 쓸데없는 '할' 함부로 하지 마라!" 하고 호통을 치시니, 명허 스님은 "제가 '할' 한 뜻도 모르시면서 어찌 부인하십니까?" 하였다.

이에 효봉 선사께서, "옛날 중국에 흥화 존장선사 회상에서 대중들이 동당(東堂)에서도 '할' 을 하고 서당(西堂)에서도 '할' 을 해대니, 흥화 선사께서 상당하시어 '만약 대중이 할을 해서 노승(老僧)을 삼십삼천(三十三天)까지 오르게 하여, 노승이 거기에서 땅에 떨어져 기식(氣息)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난다 해도, 그 할을 옳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고인(古人)의 말씀을 들면서 '할' 을 그만하라 하시고 대중에게 다시 물으셨다.

"다시 이를 자 없느냐?"

그래서 산승(山僧)이 일어나 답하기를, "옛날 보화도 이렇게 가셨고, 이제 보화도 이렇게 가셨습니다" 하니, 효봉 선사께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모름지기 답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필경(畢竟)일구(一句)는 어떠한가?

萬古徽然何處覓(만고휘연하처멱)
月落三更穿市過(월락삼경천시과)

만고에 아름다운 것을 어디에서 찾을꼬 삼경에 달이 지니 저자를 뚫고 지나감이로다.

해제 대신 참회정진으로 보답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석가세존께서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법문 불립문자 교외별전(正法眼藏 涅槃妙心 實相無相 微妙法門 不立文字 敎外別傳)을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마하가섭 존자에게 부촉(付囑)하신 것은 우리 불교의 금강보검(金剛寶劍)의 진면목을 시현(示顯)하신 것은 더없는 본분사(本分事)입니다. 서건사칠 동토이삼(西乾四七 東土二三)의 천축(天竺) 이십팔대와 동방(東邦) 육대(六代)에 이르러 황면노사(黃面老師)의 금구성언(金口聖言)과 육조돈법(六祖頓法)은 해동(海東)의 태고(太古)에 미쳐 잠시도 멈춘 바 없이 계계승승(繼繼承承)하여 태고종문(太古宗門)의 제일의 종승(宗乘)으로 현금(現今)에 미치고 있습니다. 세세생생(世世生生) 변함없이 전승되어 종문적자(宗門嫡子)들의 정통법맥(正統法脈)은 조계산(曹溪山) 선불장(選佛場)에서 꽃을 피우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무술년 하안거 해제일(解制日)입니다. 순간순간이 무금(無今)이요 찰나찰나가 영원이지만, 어리석은 범부중생(凡夫重生)은 삼세(三世)를 분간하고 동서남북을 구분 짓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붙은 존재는 시(時)와 공(空)을 떠나서 존립하기가 어려운 것이 실상세계(實相世界)의 철리(哲理)요 이법(理法)입니다.

산문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에 마음이 맑아지고 해가 서산마루에 걸리면 새들도 잠을 자려고 소리를 멈춥니다. 우리 불교는 본래 이런 도리를 중생들에게 알려주고 안심입명처(安心立命處)의 깊은 밀지(密旨)를 전해주려는 것이 전부인데, 도성(都城)에서 사자후(獅子吼) 대신 괴성으로 민심을 어지럽게 하고 사회를 시끄럽게 한다면 본분납자(本分衲子)들의 정도(正道)가 아니라고 봅니다.

1만 태고종도는 4천 사암에서 해제 대신 참회정진(懺悔精進)으로 시은에 보답하는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정근으로 불국정토 구현을 위하여 염불소리 그치지 않기를 바라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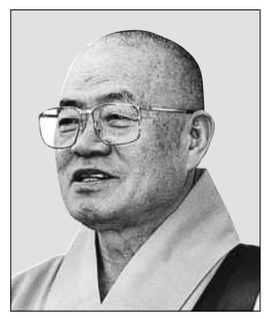
오늘 무술년 해제법어는 태고보우 원증국사의 시(詩) 한수로서 마치고자 합니다.

산 위엔 뜬 구름이 어이 그리 희고 흰가. 산 속엔 맑은 샘이 흐르고 또 흐르네. 흰 구름의 저 형용을 뉘라서 봐서 알까. 개었다 비가 왔다 번개 치듯 잘 변하고, 흐르는 샘물소리 뉘라서 들어 알리. 천 구비 만 구비 쉬지 않고 흐르누나.

희(噫)라!

용맹 더해 활구를 참상하라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木人歌曲石女舞(목인가곡석여무)요
火中生蓮太平歌(화중생련태평가)로다

雲散淸空明月照(운산청공명월조)요
千年古木生花發(천년고목생화발)이로다

나무사람 노래하니 돌여인이 춤을 추고 불꽃 가운데 연꽃이 피니 태평의 노래로다.

구름이 흩어진 맑은 하늘에 밝은 달이 비치고 천년 묵은 고목나무에 꽃이 피도다.

擧柱杖子(거주장자) 云(운) 敢問大衆(감문대중)하노니 若是柱杖子(약시주장자)인댄 卽隨有(즉수유)요
不是柱杖子(부시주장자)인댄 卽隨無(즉수무)니 如何卽是(여하즉시)오.
良久(양구)에 一喝(일갈) 云(운) 若道不得(약도부득)인댄 云何解制(운하해제)리오. 卽非他事(즉비타사)라.
分明自己事(분명자기사)어늘 何敢放逸(하감방일)하야 各分東西(각분동서)하며 之南之北麼(지남지북마)아?
更加勇猛(갱가용맹)하야 叅詳活句(참상활구)하야 直了大事(직료대사)어다.

주장자를 들고 이르시되 감히 대중에게 묻노니 만약 이것이 주장자라 할진댄 곧 유에 떨어질 것이요, 이 주장자가 아니라 할진댄 곧 무에 떨어짐이니 어떻게 해야 곧 옳은고?

잠깐 있다가 "할"을 한번 하고 이르시되 만약 이르지 못할진댄 이를 어떻게 해제라 하리요.

곧 다른 이의 일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의 일이거늘 어찌 감히 방일해서 각각이 동서로 흩어지며 남으로 가고 북으로 가겠는가?

다시 용맹을 더해서 활구를 참상해서 바로 일대사를 요달할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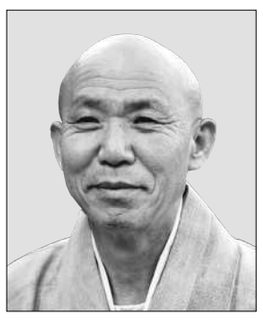
頌曰(송왈)
堂修禪加勇猛心(당수선가용맹심)하야 時時反照不休息(시시반조부휴식)이로다
一念觀照成三昧(일념관조성삼매)하고 頓亡自我證菩提(돈망자아증보제)로다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함에 용맹심을 더해서 때때로 반조하여 쉬지 말지니라.

한 생각 관조하여 삼매를 이루고 몰록 자아를 잊고 보리를 증득할지어다.

食輪과 法輪, 둘이 아니다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율장인 마하승기율에 "유이종륜(有二種輪)에 법륜식륜(法輪食輪)이요 득식륜이(得食輪已)에 내전법륜(乃轉法輪)이로다. 두 가지 수레바퀴가 있으니 법륜과 식륜이요, 식륜을 얻고나서야 제대로 법륜을 굴리는구나"라는 게송이 있습니다. 식륜이란 일상사 그리고 일용의 생활규칙 등을 수레바퀴에 비유한 말입니다. 총림의 대중들은 하루 세 번 공양하고 하루 세 번 예불합니다. 하안거 결제와 해제, 동안거 결제와 해제라는 수레바퀴 속에서 일상사를 굴리며 살아갑니다. 식륜 속에서 법륜을 굴릴 수 있고 법륜 속에서 또 식륜을 굴리는 것이 법륜상전(法輪常轉) 입니다.

임제문하 7세법손인 대우수지(大愚守芝)선사는 식륜(食輪)을 통해 법륜(法輪)을 밝힌 선지식입니다. 머물고 있는 대우산의 선방은 낡을 대로 낡았고 머무는 대중은 몇 명 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운봉문열(雲峰文悅)이 찾아옵니다.

"무엇 때문에 왔는가?"

"심법(心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나는 법륜(法輪) 법의 바퀴는 굴리지 못하고 식륜(食輪) 밥의 바퀴를 먼저 굴리고 있다. 후학들이 색력(色力) 즉 물질적인 힘만 좇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대중을 위해서 밥을 얻어오지 않을 수 있겠느냐? 굶주림을 참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어느 겨를에 너를 위해 설법해 주겠느냐?"

이것이 그 유명한 '법륜미전(法輪未轉) 식륜선전(食輪先轉)' 법문의 전말입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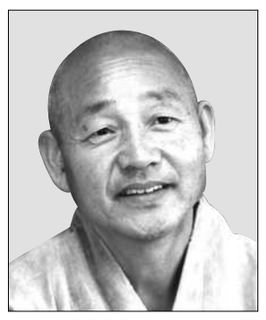
남송시대 임제종 양기파 무준사범(無準師範)선사는 "선인들은 법륜미전(法輪未轉)하고 식륜선전(食輪先轉)이라 했지만 나는 두 바퀴를 모두 굴린다"고 했습니다. 결제 때는 총림대중이 구순(九旬)동안 함께 모여 화합하며 식륜과 법륜을 굴렸고 해제 때는 흩어져 석달 동안 각자 자리에서 식륜과 법륜을 굴려야 합니다. 대중이 함께 법륜과 식륜을 굴리기는 쉬운 일이지만 혼자서 법륜과 식륜을 굴리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결제 때 공부한 힘으로 해제 때 어느 곳에 있더라도 법륜 굴리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식륜을 통해서 법륜이 더 단단해지고 법륜을 통해서 식륜이 더욱 순일해질 때 비로소 식륜과 법륜이 둘이 아닌 경지를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식륜기전(食輪旣轉)하고 법륜역전(法輪亦轉)하니 문미문법(聞未聞法)이요 득미증식(得未曾食)이라

밥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렸고 법의 수레바퀴를 또한 굴리니 이전에 듣지 못한 법을 들었고 일찍이 없던 음식을 얻었구나.

반야행자여! 회향의 길을 떠나자!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火不能燒(화부능소)요 水不能溺(수부능약)이며 風不能飄(풍부능표)요 刀不能劈(도부능벽)이라

軟似兜羅(연사두라)하고 硬如鐵壁(경여철벽)하니 天上人間(천상인간)이 古今不識(고금부식)이로다.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빠트리지 못하며 바람이 날리지 못하고 칼도 자르지 못하네.

부드럽기는 도라솜 같고 단단하기는 철벽과 같으니 천상, 인간이 예나 지금이나 알지 못하네.

영축산중에서 하안거를 성만한 수행납자들은 우리 모두에게 본래 구족한 한 물건을 찾게 되었습니다. 폭염보다 더 치열한 구도심으로 정진했기에 나의 보물로 이 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늘 변하지 않고 신령스럽게 빛나는 한 물건은 중생이 오면 중생에 응하고, 중생에 응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묘용이 자재합니다.

이 한 물건의 묘용을 분명하게 본 사람은 한 방울의 물로도 바닷물이 짠 것을 알고, 아침저녁이면 부는 시원한 바람결에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압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내고 산만한 사람은 차분하게 만들어 주며, 집착이 많은 사람은 걸림 없는 삶을 살게 하고 원력이 없는 사람은 장대한 원력을 세우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빠트리지 못하는 한 물건을 분명히 알고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털끝만큼이라도 본래 갖춘 능력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화탕지옥의 고통에 자재하지 못하고 도산지옥의 과보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행히 영축산중에서 정진한 수행납자들은 부처님의 가피와 신심 있는 불자님의 후원 덕분에 한 물건을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원만하게 구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과 안목은 중생의 행복을 위해 회향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걸망 속에 반야과(般若果)를 가득 담아서 일체중생이 반야지를 체득할 수 있도록 길을 떠나야 합니다. 수행납자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시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청류교의 맑은 물로 중생의 열뇌를 식혀주고 무풍한송로의 시원하고 향긋한 바람으로 무명업장을 날려 주어야 합니다.

竹密不妨流水過(죽밀부방유수과)요
山高豈礙白雲飛(산고기애백운비)리오

대나무 빽빽해도 물 흐르는 일 방해하지 못하고 산 높아도 흰 구름 흘러감을 어찌 막으리.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4·3 사건 70주년 제주불교 흔적 바로 세우기

〈3〉 남원읍 남원리 선광사

기와법당 허물어 학교 부재로 강제 사용



50평 규모의 기와법당이 4.3당시 토벌대에 의해 강제로 헐리는 아픔을 겪은 남원 선광사. 그 당시 유일하게 보존되어 오늘에 이른 목불에 대해 수열 스님이 설명하고 있다.



선광사 창건 당시부터 있던 후박나무. 제주 4 · 3사건의 아픔을 그대로 확인했을 것이다.

이병철 제주불교 기자

4 · 3 당시 토벌대 '목재가 좋다' 는 이유로 법당 해체
강선일 보살 시주로 제작된 목불 피신해 화를 면해
창건주 법인 스님, 지역서 '관음보살 화신' 평가받아

1970년 말에서 1980년대 초 만하더라도 도내 사찰은 기와를 얹은 전통양식보다 슬레이트 지붕이 많았다. 그만큼 제주 지역 사찰 환경이 열악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지만 한국불교 태고종 제주 남원읍 선광사(주지 수열)는 이야기가 다르다. 1984년 당시만 하더라도 장엄한 대작불사를 이룩하게 된다. 대웅전과 사천왕문, 범종루, 전통한옥 양식인 요사와 정재소가 함께 신축되고 도내 사찰 최초로 사천왕상과 2.5m 크기의 동으로 조성된 석가모니불을 새롭게 봉안하는 등 제주지역에서 보기 드물 정도의 사찰 면모를 갖추면서 그 위상을 높여나간다.

1972년 27세에 선광사 3대 주지로 취임한 수열 스님은 자신에게 닥친 현실 앞에 주저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힘을 가졌다. 이 같은 힘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가장 큰 유산 같았다.

남원 선광사는 지난 1942년 수열 스님의 부친이신 보화당(普化當) 법인(法印) 스님이 현 위치에 50평 규모의 기와법당을 건축하면서 불법을 펴기 시작한다. 수열 스님의 집안은 남원읍에서도 재력을 가진 유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친은 당시 일본에 유학을 다녀올 정도로 엘리트였다. 그곳에서 인연 있는 스님을 만나, 불교에 귀의하며 출가한다. 일본에서 귀국할 당시에도 신도들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집안 환경과 불연들이 만나, 당시 대부분 사찰이 초가법당인 것에 비해 기와법당이라는 대작불사를 이뤄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하지만 장엄한 법당은 1948년 4 · 3이 발발하면서 표적이 된다. 토벌대는 목재가 좋은 것이라는 이유로 불 지르지 않고 해체한다. 그리고 객실은 방화에 의해 모두 불타버렸다. 법당 목재는 후일 남원중학교 교사건축 자재로 쓰였다.

"당시는 면장이나 이장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라. 부친께서도 마음으로만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시 법당에 흙으로 조성된 부처님은 이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1942년 강선일 보살의 시주로 제작되어 선광사에 봉안된 79cm 높이의 목불은 선광사 인근에 목재로 비가림을 해 놓았다. 4 · 3이 안정되고 다시금 불사를 일으키며 그 목불을 봉안하게 된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으로 기억돼요. 4 · 3이 평정된 후 법인 스님께서는 함석으로 된 10여 평 규모의 법당과 객실 등을 지으면서 다시 불법 홍포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1954년에 이승만의 담화에서 비롯된 종단의 분규인 불교정화운동은 불교의 위상만 떨어뜨렸을 뿐 그 어떤 명분도 없었다. 결국 분규에 염증을 느낀 원인상 스님을 비롯해 보화당 법인 스님의 은사인 방동화 스님 등이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법화종 창종에 불을 지피고자 노력했지만 보화당 법인 스님은 1960년대 초 지병으로 아미타부처님의 품안에 안기게 된다.

스님은 "제가 14살 무렵이었어요. 1960년대 초 부친께서 그 당시는 '윗병' 이라 말했는데 지금의 '위암' 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연스럽게 선친이 일찍 입적하시면서 동진출가를 하게 됩니다. 16살에 현 정방사에서 행자생활을 하게 되면서 태고종과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선광사가 법화종단에 소속 된 사찰이 될 뻔 했지요."

보화당 법인 스님은 4 · 3으로 사찰이 강제로 헐리는 아픔을 겪었지만 지역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듬는 동체대비(同體大悲) 마음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했다.

법인 스님은 4 · 3과 한국전쟁이 평정될 무렵, 남원 이장을 맡는다. 그 당시 피난 온 수많은 이주민들이 제주로 몰려들었다. 스님은 이들을 사가에서 보살피고, 미국 구호물자가 오면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등 남원지역 사람들에게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다.

이병철 제주불교 기자

한금순 박사가 바라본 제주4 · 3

선광사

토벌대·무장대에 피해입은 마을 사찰 역시 강제 철거되는 피해

선광사는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한국불교 태고종 사찰이다. 보화당(普化當) 법인(法印) 스님(속명 현재봉)은 1941년 방동화 스님을 스승으로 출가하고, 1942년 선광사를 창건하였다.

초가 3간에 법당과 객실을 건립하고 불상을 조성하였다. 1945년에는 50평 규모의 목조 기와지붕의 법당을 신축하였다. 1948년 11월 제주 4 · 3사건에서 남원리 피해 기간 중 선광사도 토벌대에 의해 법당이 완전히 해체되어 파옥되었다. 목재가 좋은 것이라는 이유로 불 지르지 않고 해체하였다고 하며 객실은 토벌대가 방화하여 모두 불타버렸다. 법당 목재는 후일 남원중학교 교사건축 자재로 쓰였다.

흙으로 조성하였던 불상이 이때 파손되었고 선광사는 주민들과 함께 남원 1리로 소개되어 사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소개하면서 사찰 앞밭에 모셔두었던 작은 목조 불상이 지금은 선광사에 모셔져 있다. 1955년 석조 함석지붕의 15평 법당과 초가 요사 두 채를 재건해낸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은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토벌대는 초토화작전으로 제주도민을 무차별 살해하고 있었다. 무장대는 1948년 11월 28일 남원지서와 남원리를 습격하였다. 남원지서에는 육지부에서 파견되어 온 응원경찰 20여 명을 포함한 30여 명의 경찰이 주둔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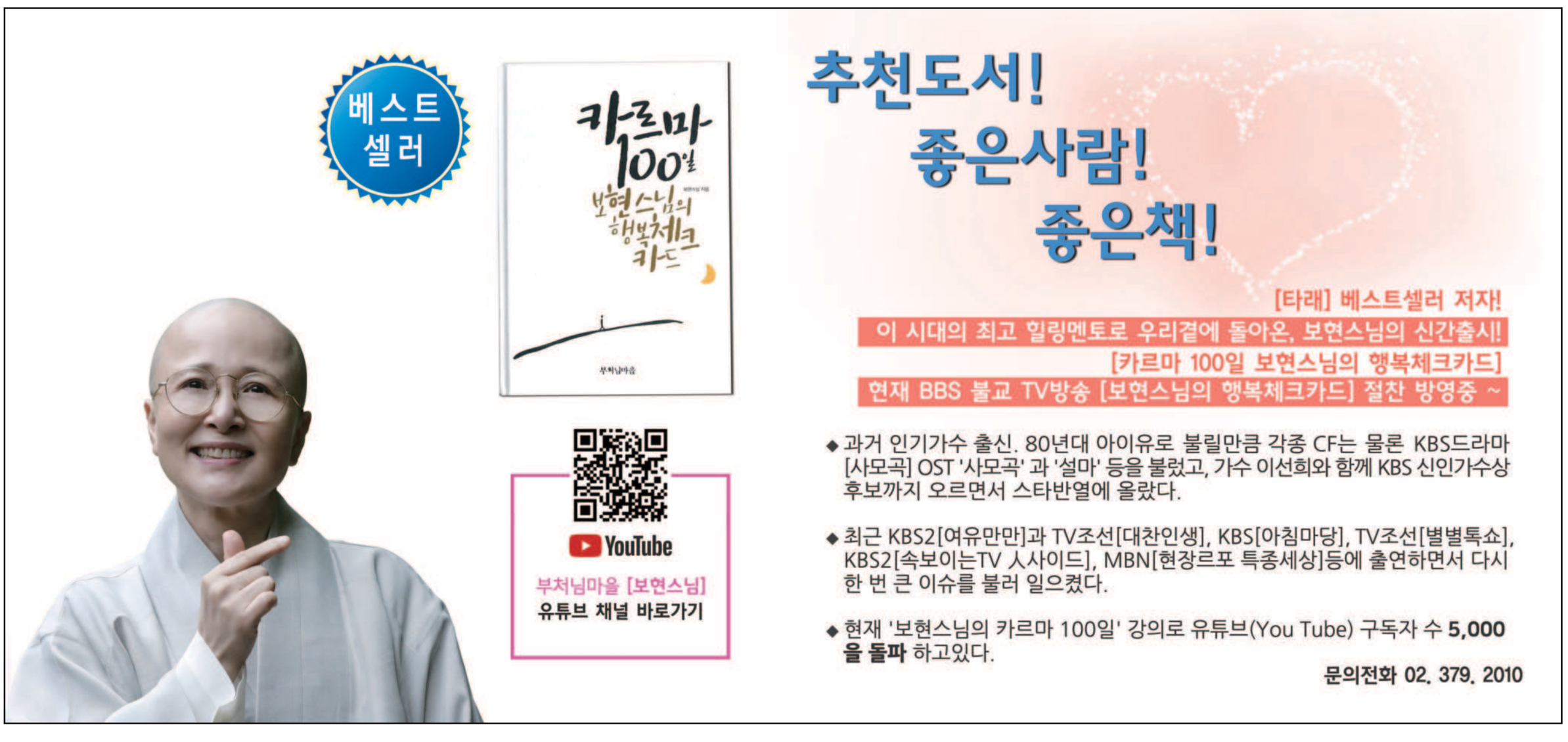
서북청년단 출신의 남원지서 주임 김승추를 중심으로 경찰은 마을 사람들을 도피자가족으로 지목하거나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만나기만 해도 무차별로 때리거나 총살하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또한 다수의 군경이 주둔하며 군경을 도와주는 마을 사람들이 많다는 판단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었다.

무장대는 이러한 상황 등에 대해 군경과 군경을 돕는 남원리 주민 등에 대한 보복으로 남원지서와 남원리를 습격하였다. 무장대의 습격으로 주민 30여 명이 사망하였고, 무장대는 집을 불태우고 식량을 약탈하였다.

토벌대는 소개령과 계엄령 이후의 강경진압 작전 중인 시기인데도 경찰지서가 습격당한 것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바로 보복 학살을 시작하였다. 소개되어 내려온 주민들은 입산자라는 이유로 처형하였고, 무장대가 습격하였을 때 피해를 보지 않은 주민들도 또한 가려내어 총살하였다. 남원리는 토벌대와 무장대 양쪽으로부터의 많은 인명의 사상과 가옥의 방화 등의 큰 피해를 입은 마을이다.



한금순(제주대 외래교수)



조선 유생들 '초의차' 감복해 서간 보내다



박동춘의
초의스님 前上書

⑯ 유산 정학연과 조카 정대무

초의에게 유산 정학연(1783~1859)과 추사 김정희(1786~1856)는 그의 행로에 중요한 의미를 던진 인물들이다. 무엇보다 유산은 다산의 장남으로 초의와는 다산이 다산초당에서 강학하던 시절에 인연을 맺었고, 초의가 추사를 만난 것은 유산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초의의 막후 후원 세력이라는 점이며 이들이 차와 사를 통해 오랫동안 교유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뿐 아니라 초의는 이들의 자제들과도 막역한 교유를 이어갔는데, 그 매개물이 차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 초의는 자신이 만든 차를 통해 선비들의 차에 대한 관심과 애호를 끌어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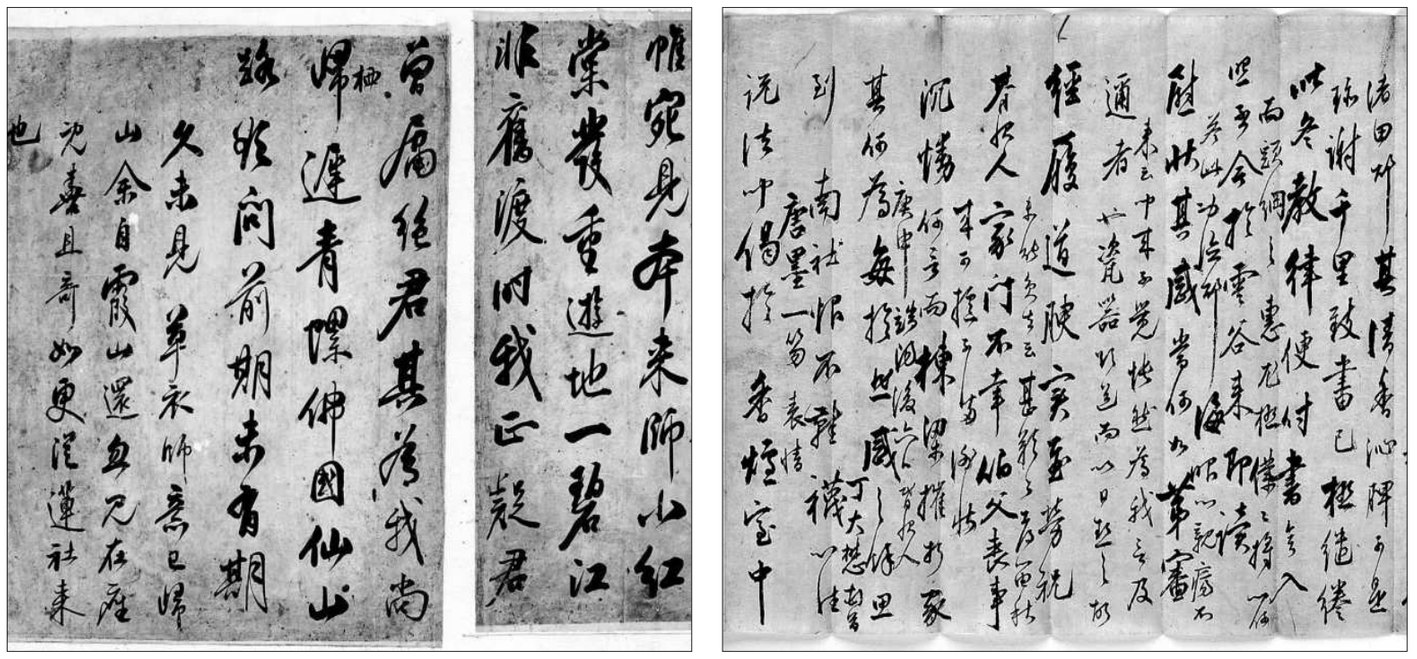
이러한 사실은 유산이 초의에게 보낸 시에서도 확인되며 유산의 동생인 정학유의 아들 정대무(1824~?)의 편지에서도 드러난다.

먼저 유산 정학연의 시를 살펴보자. 그 크기는 31.6×24.4cm이다. 묵서 지본으로 유산이 자신이 지은 시를 적어 초의에게 보낸 듯 한데 이 시가 언제 지어진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의가 마현을 찾았던 1830년경에 지은 것이라 여겨진다. 그가 차를 즐기며 초의를 생각한 정황은 다음과 같다.

차 향기 구불구불, 가는 귀밑머리 터럭처럼 피어나고(篆午茶煙兩鬢絲)
휘장을 걷으면 아련히 본래 스님을 보는 듯한데(披帷宛見本來師)
홍상을 입고, 거듭 유지遊地를 떠나겠구려.(小紅裳發重遊地)
한결같은 푸른 강은 옛날 건널 때가 아니리니(一碧江非舊渡時)
나는 정말로 그대가 절교하는가 생각했다네.(我正疑君曾屬絶)
그대는 나를 위해 오히려 천천히 가는데(君其爲我尙栖遲)
푸른 산, 불국은 신선이 사는 곳이라(靑螺佛國仙山路)
전에 기약했던 것 묻고 싶지만 기약할 수가 없구려.(欲問前期未有期)

윗글은 아마 초의가 두 번째 상경했다가 대흥사로 돌아간 후의 정황을 그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가 "차 향기 구불구불, 가는 귀밑머리 터럭처럼 피어나고/휘장을 걷으면 아련히 본래 스님을 보는 듯한데/홍상을 입고, 거듭 유지(遊地)를 떠나겠구려"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별의 아쉬움을 그린 것이다. 유산은 차를 끓이는 상황에서도 초의를 그리워했고 당시 승려들의 법복이 홍가사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초의가 수행하는 곳, 대흥사는 바로 불국토이며 초의처럼 신선이 사는 것이란다.



(사진 왼쪽부터) 다산 정약용의 장남 유산 정학연이 보낸 편지와 차남 정학유의 아들 정대무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초의차를 매개로 다산과 그의 아들, 손자는 대를 이어 초의 선사와 교류했다.

언제 다시 만날까 기약한들 다시 만나기 어려운 정황을 "전에 기약했던 것 묻고 싶지만 기약할 수가 없구려"라고 했다. 시는 말의 묘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으니 시인을 사백(詞伯)이라 칭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튼 이 시 하단의 협서에는 당시 유산의 심정을 잘 그려낸 듯한데, 그 내용은 이렇다.

오랫동안 초의선사를 뵙지 못했는데 이미 산으로 돌아갔으리라 생각한다. 내가 하산(霞山)에서 돌아오니 갑자기 자리에 계신 듯하여 더욱 기쁘고 또 기이하였다. 마치 다시 연사(蓮社)로 돌아온 것 같았다.(久未見草衣師 意已歸山 余自霞山還 忽見在座 況喜且奇 如更從蓮社來也)

아마 1830년경 상경했던 초의는 애초 계획대로 금강산을 유람하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대흥사로 돌아간다. 당시 유산은 초의를 한동안 보지 못했던 듯하다. 그가 하산으로 돌아와 보니 마치 초의 스님이 계시는 듯 했으며 연사, 즉 절에 돌아와 있는 듯 하다는 것이니 이들의 우정은 이처럼 끈끈했고 신의가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한편 유산의 조카 정대무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자. 이는 초의와 다산가가 대를 이어 교유를 나눴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정대무는 정학유의 아들로 다산의 손자이다. 그가 조부 다산이 저술한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와 1903년 장지연(張志淵)이 증보한 〈대한강역고(韓疆域考)〉에 발문을 쓰기도 하였다. 1860년 5월에 보낸 이 편지는 그 크기는 41.6×29.4cm이다. 초의선사 탑하(榻下)라고 시작하는 편지 내용은 이렇다.

정약용 자제들도 초의와 교류
정학연, 정대무 서간서 나타나
차 내리며 초의 그리워한 정학연
정대무 매년 초의차 받고 감동해
수행자로서 초의를 스승으로 모셔

작년 겨울,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살펴보셨는지요. 지금 운곡雲谷이 와서 위로하시는(스님의 편지를) 읽으니 그 감동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다만 근자에 경서를 공부하며 도의 경지가 풍족하시다니 실로 위로되고 축원합니다. 저의(拜服人:상중에 있는 사람) 가문은 불행히도 백부의 상을 당해 심통한 마음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집의 대들보가 부러졌으니 집안을 어찌해야 합니까. 매번 비통에 젖어 있는 동안에도 마음은 남쪽 대둔사에 있는데 갈 수가 없으니 향로실에서 법을 말하는 스님의 게를 들을 수 없음이 한스럽습니다. 보내주신 차는 매년 세금처럼 보내주시니 저는 고저산에 차밭을 둔 것일까요. 그 맑은 향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이런 진귀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천리에서 편지가 이르니 이미 너무도 마음속에 굳게 맺혀 잊어지지 않는데 두강처럼 좋은 차를 보내신 은혜는 더욱 더 머리를 굽혀 감사드리게 합니다. 장차 이 공덕을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해안(海眼)은 아버지의 병환으로 오지 못한다고 하며 들어도 슬픔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하니 나를 위해 말한 것입니다. 도자기 그릇을 보내려고 했지만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다고 하니 무척 아쉽습니다. 모두 미루고 가을에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1860년 5월 11일 (단오가 지난 지 6일 후에) 기복인(기복 상중에 있는 사람) 정대무 돈수 정으로, 중국 먹(墨)을 보냅니다.

昨冬敎律便 付書矣 入照否 今於雲谷來 卽讀慰狀 其感當何如 第審邇者 經履道腴 實慰勞祝 拜服人 家門不幸 伯父喪事 沈慟何言 而棟梁摧折 家其何爲 每於悲感之餘 思到南社 恨不鞋襪 以往說法聞偈 於香爐室中也 惠茶 歲輸其稅 我置顧渚田耶 其淸香沁脾 可是珍謝 千里致書 已極繾綣而頭綱之惠 尤極僕僕 將以何答此功德耶 海眼以親癆不來云 聞來不覺悵然 爲我言及也 瓷器欲送而以日熱之故 未能負去云 甚歎甚歎 都留 秋來可攄 不備謝狀 庚申 端陽後六日 期服人 丁大懋 頓首 唐墨一笏表情

이 편지에는 "보내주신 차는 매년 세금처럼 보내주시니 저는 고저산에 차밭을 둔 것일까요. 그 맑은 향이 마음에 스며듭니다"라고 하였다. 바로 고저산은 당대부터 공차(貢茶, 황제에게 올리는 차)를 생산하던 곳으로, 호주(湖州) 장성현(長城縣)에 있다. 육우(733~ 804)도 호주의 고저산에서 나는 차를 으뜸으로 쳤다. 따라서 정대무는 초의가 보내주는 차를 고저산 차처럼 명차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매년 세금처럼 차를 보냈다고 하니 초의의 성의는 이처럼 변함이 없는 마음이었다.

무엇보다 초의차에 대한 유생들의 평가는 정대무뿐만이 아니었다. 초의와 교유했던 경향의 선비들의 한결같은 평가였다. 더구나 1860년대 초의차는 완성도가 가장 무르익을 무렵이므로 이런 격찬은 당연하다 여겨진다. 아무튼 초의는 다산가의 후손들과 차로 맺어진 아름다운 교유를 이어갔다. 어느 시대나 차는 아름다운 이들의 교유를 풍요롭게 하는 매개물이었던 셈이다.

정대무는 자신을 기복인(期服人)이라 표현하였다. 이는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그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문은 불행히도 백부(伯父)의 상을 당해 심통한 마음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집의 대들보가 부러졌으니 집안을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정대무의 백부(伯父), 즉 큰아버지는 바로 정학연을 말하는데, 정학연이 돌아간 해가 1859년이다. 백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슬픔은 마치 집안의 대들보가 무너지는 듯 하다고 한 그의 비통함은 당시 집안의 슬픔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이런 집안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위로를 받았던 것은 초의의 법문이었다.

이는 그가 "매번 비통에 젖어 있는 동안에도 마음은 남쪽 대둔사에 있는데 갈 수가 없으니 향로실에서 법을 말하는 스님의 게를 들을 수 없음이 한스럽습니다"라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향로실은 초의가 거처한 곳의 당호(堂號)로, 추사가 제주 유배 시절 일로향실(一爐香室)이란 당호를 써준 바가 있으니 아마 일로향실을 향로실(香爐室)이라 불렀을 것이다.

이런 추사의 호의는 초의가 보낸 차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론 이들의 우의(友誼)를 일필휘지(一筆揮之)로 드러낸 것이니 격의 없는 인간의 우정이란 이런 것이리라.

정대무의 편지에는 초의에게 도자기를 보내려고 했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바로 "도자기 그릇을 보내려고 했지만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다고 하니 무척 아쉽습니다. 모두 미루고 가을에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라고 한 것이다.

그가 편지를 보낸 시점이 음력 5월 단오 무렵이니 막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때이다. 대략 마현에서 해남까지는 20여 일이나 걸리는 먼 거리였으니 가을로 미룬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산가와 도자기와의 관련은 한 때 정학연은 왕실 도자기를 생산했던 광주 관요를 관리하던 하급 관리로 재직한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광주 관요의 관리는 정학연이 돌아간 이후에도 그의 후손들이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기에 도자기를 초의에게 보낸다고 한 것이리라.

초의는 다산, 정학연, 정학유의 후원을 잊지 않고 그들의 후손들과도 대를 이어 교유하는 아름다운 신의를 보였던 인물이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초의의 수행자다운 품행이 드러난 셈이다. 인천(人天)의 스승이었던 초의선사라. 그와 교유했던 유생들은 초의차를 통해 위안과 여유를 느꼈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54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8년 9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8년 8월 1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상단불공의식
◇원서교부 : 2018년 8월 1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8년 9월 4일 화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시코쿠 순례길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④ 시코쿠 사찰 연기설화

1,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길, 시코쿠의 길 곳곳 순례의 흔적이 남아있다. 길가의 작은 돌부처에도 코보 대사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덕분에 88개소를 순례하면서 듣는 연기설화와 전설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 이러한 전설을 모르면 알 수 없는 순례의 풍습이나 전통도 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이 전설들을 몇 개 살펴볼까한다.

보통 88개소의 이름은 그 사찰의 연기 설화나 본존불과 관련되어 붙어졌다. 예를 들어 1번 사찰 료젠지(靈山寺)는 코보 대사가 영산회상의 모습을 친견한 장소에 세워졌기에 영산(靈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3번 콘센지(金泉寺)는 절에 대사가 팠다는 우물이 있기에 샘(泉)이라는 이름이다.

이런 연기설화들을 살펴보자면 한 두 개씩 마음을 울리는 것들이 있다. 발심의 도량인 아와, 도쿠시마현에서 필자가 좋아하는 연기설화는 10번, 18번 사찰의 설화다. 두 사찰 모두 효(孝)와 관련된 설화가 전한다.

10번 사찰 키리하타지(切幡寺)는 333개의 돌계단으로 순례자들을 지치게 하는 곳 중 하나이다. 산등성이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본당 옆으로 등신대의 관세음보살이 서있다. 오른손에 가위, 왼손에는 베틀 북에서 풀지 않은 천을 들고 있는 이색적인 모습이다. 키리하타, ‘번(幡)’을 잘라낸다는 절의 이름은 바로 이 관세음보살상이 담고 있는 이야기에 있다.

코보 대사가 이 산의 계곡에서 7일간 수행을 하고 다시 만행을 나섰다. 오랜 수행 정진에 다 해어진 승복을 기워보고자 민가를 돌며 천 조각을 구하던 중 산 중턱의 낡은 집에 도착했다. 홀로 베를 짜던 소녀는 코보 대사의 이야기를 듣곤 베틀에서 짜던 천을 아낌없이 잘라내어 공양 올렸다.

이에 감동한 코보 대사는 소녀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다. 소녀는 돌아가신 양친을 위해 불상을 조성하고, 자신은 출가하기를 원했다. 대사는 손수 하룻밤 만에 천수관음상을 새기고 소녀의 머리를 깎아 주었다. 코보 대사가 출가한 소녀에게 관정(灌頂)을 내리자 소녀는 한 순간에 부처의 경지를 이루어 천수관음이 되어 사라졌다. 이에 코보대사는 소녀가 지극한 신심과 효심으로 즉신성불 했음을 알고 이곳에 사찰을 세웠다. 그래서 사찰의 이름이 베틀의 천(機)을 잘라낸(切) 절이란 뜻에서 유래되었다. 현재의 하타(幡)라는 이름은 베틀로 짠 직물을 뜻하는 ‘하타(機)’가 후대에 좀 더 불교적인 뜻이 담긴 ‘하타(幡)’로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18번 사찰 온잔지(恩山寺)는 코보 대사 스스로의 효성에 관한 이야기가 전한다. 온잔지는 8세기경의 고승인 쿄키(行基) 스님이 세운 절로, 원래 여인의 출입이 금지된 도량이었다. 약 100여 년 뒤에 코보 대사가 이곳에서 수행할 때 소식을 들은 대사의 모친 타마요리 고젠(玉依御前)이 찾아왔다.

어머니를 절에 모셔 효를 다하고 싶었으나, 100년 전 절을 세운 쿄키 스님의 법력으로 세워진 결계는 여성의 출입을 금하였다. 이에 코보 대사는 산문인 인왕문 근처에서 호마단(護摩壇)을 세우고 7일 밤낮을 기도한 끝에 결계를 풀 수 있었다. 코보 대사는 사찰로 어머니를 모셔와 극진히 봉양하였다고 전해진다.

88개소 외에 번외영장(番外靈場)들의 전설들도 흥미롭다. 대부분 코보 대사가 만행 중에 지역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보이신 행적들과 연관이 깊다. 물이 없는 곳에 샘을 만들었다거나, 요괴를 퇴치했다거나, 불당과 탑을 세웠다는 등의 이야기다.

특히 12번 절에서 하산하는 길가에 있는 암자, 죠산안(杖杉庵)에 전해지는 설화는 시코쿠 순례의 기원과 관련되어 있다. 시코쿠 순례를 하다보면 이곳 죠산안의 설화는 반드시 듣게 된다. 또 이 설화 속에서 앞으로 보게 될 순례의 여러 가지 전통이나 풍습의 기원이 들어있기에 좀 긴 이야기지만 모두 살펴보려한다.

이야기의 시작은 도쿠시마현과는 멀리 떨어진 시코쿠의 또다른 현, 에히메현에서 시작된다. 지금의 47번 사찰 야사카지(八坂寺) 근처에 에몬 사부로(衛門三郎)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야기에서 그는 꼭 우리네 전래동화에 나오는 놀부와 이미지가 겹친다. 인색하고 탐욕스러웠으며, 출가자를 홀대했다.

마침 코보 대사가 시코쿠를 돌며 수행 중이셨는데, 어느 날 문수보살이 나타나 에히메에 사는 에몬 사부로를 제도하라고 하셨다. 이에 코보 대사는 에몬 사부로의 집 앞에서 탁발을 받으면서 제도할 기회를 가늠하기로 했다. 에몬 사부로는 당연히 코보 대사를 무시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7일째 되던 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염불소리가 들리자 화가 단단히 난 에몬은 빗자루로 코보 대사의 발우를 내리쳐 부셔버렸다.

코보 대사는 그날로 에몬의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엔 에몬의 여덟 자식이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명을 다하고 말았다. 슬픔 속에 지내던 에몬은 탁발을 온 스님의 발우를 박살낸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게 바로 그 죄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수소문 끝에 코보 대사가 머무르고 있던 사찰로 찾아갔다. 그러나 코보 대사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후였다. 사찰의 주지스님은 찾아온 에몬에게 “대사는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 손수 무덤을 만들어주고 49재를 지내는 동안 매일 아이들을 위해 독경을 하셨소”라고 전해주었다.

에몬은 그때서야 천벌을 받은 것을 알고, 코보 대사를 뵙고 참회하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노라 결심하고 순례에 나섰다.

시코쿠를 20바퀴 돌았을 때, 에몬은 문득 자신이 살던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한결같이 자신을 기다리던 아내는 전날 숨을 거둔 상태였다. 이에 에몬은 “시코쿠를 거꾸로 돌면 스님을 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고, 거꾸로 순례를 시작한다.

그렇게 역으로 순례하기를 3번, 몸을 아끼지 않은 순례에 병이 들었고 쇼잔지(焼山寺) 아래에서 힘이 다해 쓰러지게 되었다. 그때 에몬의 머리맡에 코보 대사가 나타났다. 용서를 구하는 그의 참회를 받아준 코보 대사는 그의 생명이 다해감을 알고 마지막 소원을 물었다. 그러자 에몬은 말했다.

“제가 온갖 악업을 쌓고 인색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다음 생에는 영주의 아들로 태어나 선업을 많이 쌓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집을 절로 만들어 후세의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쿠보 대사는 작은 돌에 글을 몇 자 쓰고 그의 오른손에 쥐어 주자 에몬은 편안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집은 문수보살을 본존으로 한 몬쥬인(文殊院)이라는 절이 되었다.

죠산안에는 이 전설들을 증명하듯 한켠에 에몬 사부로의 비가 서 있다. 이 비 옆에는 커다란 삼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는데 에몬 사부로의 무덤가에 꽂았던 지팡이가 자라난 것이라고 한다.

전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 에히메 지방의 영주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오른손을 꼭 쥔 채로 펴지를 않았다. 의사를 부르고, 스님을 모셔다 기도를 해도 오른손을 펼 줄 몰랐다.

영주의 아들이 3살이 되던 해 봄, 영주는 가신들을 이끌고 꽃구경을 나섰다. 연회가 열린 가운데 아장아장 걸어 나온 아이가 갑자기 두 손을 모으고 “나무대사변조금강(南無大師遍照金剛)”이라고 염불을 했다. 이는 코보 대사께 귀의한다는 문구였다. 이와 함께 펼쳐진 오른손에서 작은 돌이 굴러 나왔다. 돌에는 ‘에몬 사부로의 재래’라고 쓰여져 있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전설속의 에몬 사부로의 환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깊은 서원과 코보 대사의 법력에 감격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에몬 사부로의 전설을 증명하는 장소나 물건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그의 지팡이는 큰 고목이 되었고, 그의 저택이었다는 곳은 절이 되었다.

또 시코쿠 순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역순례(逆打ち)의 시작도 여기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역순례란 말 그대로 88번에서 1번을 향해 거꾸로 순례하는 것이다. 역순례는 일반순례에 비해 이정표나 안내가 자세하지 않아 배는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역순례를 떠나는 순례자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코보 대사를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에서이다.

앞선 글들에서 이야기 했지만 시코쿠에서는 아직도 코보 대사가 시코쿠를 돌고 있고, 순례자들은 적어도 한 번 그 화신을 뵐 수 있다는 신앙이 전해진다. 그렇기에 전설처럼 역으로 순례한다면 코보 대사를 뵐 확률이 높아진다고 믿는 것이다.

이 에몬 사부로 전설에서 기인하는 순례의 전통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흰옷과 삿갓, 지팡이를 순례의 복장으로 시작한 것도 그러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또 순례자들이 각 사찰에 공양 올리는 오사메후다(納め札)라는 종이도 에몬 사부로가 시조라고 전해진다.

오사메후다에는 보통 순례자의 이름과 주소, 소원을 써서 공양을 올린다. 이야기에는 에몬 사부로가 코보 대사를 쫓아 순례할 때 어느 법당에 있던 코보 대사의 불상을 보고, ‘대사를 다시 뵙길 바란다’는 내용을 쓴 종이를 올린 게 시작이라고 전해진다.

이렇게 시코쿠 순례는 전설이 살아 숨쉬는 순례다. 수많은 전설과 설화들은 순례자의 신심을 더욱 고양시키고, 순례는 더욱 풍부한 내용을 가지게 된다. 시코쿠 순례 길은 흔히 1,200km라고 한다. 리(里)로 따지면 삼천리 정도. 말 그대로 ‘전설따라 삼천리’ 길인 것이다.

〈자유기고가〉



12번 사찰 죠산안(杖杉庵)에 있는 에몬 사부로의 동상. 코보 대사를 홀대해 천벌을 받은 에몬 사부로는 대사를 만나 참회하기 위해 시코쿠 순례를 시작했다. 그는 지금의 시코쿠 순례를 있게 한 장본인이다.

1200km 순례길 곳곳에는 연기설화·전설들이 존재해

12번 사찰 죠산안 설화는 시코쿠 순례 기원과 연관돼 순례 풍습·전통 연계 ‘중요’

순례의 Tip

– 순례자의 지팡이는 코보 대사의 화신으로 여기기에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팡이 끝에 거스러미가 일었을 때, 칼이나 가위로 잘라내선 안 된다.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두거나, 바위나 나무에 비벼서 떼어내야 한다. 또 다리를 건널 때는 지팡이를 짚지 않고, 손에 든 채로 건너야한다는 규칙이 있다.

– 오사메후다는 순례자들 간에 명함처럼 쓰이기도 한다. 또 순례의 횟수에 따라 색깔과 재질이 바뀐다. 일반적으론 흰색 종이로 만든 것(1~4회)이 가장 많이 보인다. 비단으로 만든 오사메후다(100회 이상)를 순례 중 받거나 줍게 되면 몸을 지켜주는 부적이 된다고 한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불확실성의 시대 때를 찾는 지혜, 동양미래학자 소재학 교수의

과학화된 역학‘동양미래예측학’공개 大 특강

- 음양오행, 주역, 사주팔자,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등 동양역학의 오해와 진실 해부,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해석방법 공개
- 성공과 실패의 시기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예측 방법론 공개
-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지혜, 누구나 존재하는 성공과 실패의 10년 주기 인생사계절 ‘석하리듬’ 분석 및 활용방법 공개
-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동양 미래예측학, 동양미래(예측)학과 서양미래학의 차이와 장단점, 동양미래학의 예측효용성
- 성실한 노력이 성공을 위한 정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 존재하는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 + @ 찾기
- 운명! 정해진 것과 선택 가능한 부분, 검증 가능한 성명학 원리, 사주팔자, 삼재, 아홉수, 궁합 속설해부 및 허실분석

■ **일시** : 9. 2 (일) 15:30 ~ 19:30
■ **장소** : 동국대학교 덕암세미나실(문화관 1층)
■ **강사** : 동양미래학자, 미래예측학박사 1호 석하 소재학 교수
■ **대상** : 신청순 200좌석 무료 강좌, 인생사계절 ‘석하리듬’ 해설 자료 증정 (사전 예약 필)
■ **특전** : 신청순 100명, 자신의 성공시기 때를 알 수 있는 10년 주기 인생사계절 석하리듬 분석 및 분석표 무료 제공



석하(奭廈) 소재학 교수 프로필

- 한국동양미래예측학회(KOFS) 회장
-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GFCA) 회장
- 4차산업혁명 포럼 및 미래예측포럼 고문
- 대표적인 동양 미래예측학 ‘석하명리’ 창시
- 10년주기 인생사계절 ‘석하리듬’ 개발
- 재)하원정미래학회, 한국성명작명학회(KNS) 회장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 동국대 GFCA 풍수지리(+관상)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 국회미래정책연구회 및 국제미래학회 동양학위원장

◆ **유튜브 ‘논리로 푸는 사주명리학’ 동영상 및 ‘황금알 소재학’ 동영상 검색**

사전 예약: 02-585-0079

재)하원정미래학회 /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GFCA) / 한국동양미래예측학회(KOFS)

불교경영 전문화, 불교 미래 희망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⑯ 불교경영학의 필요성

조계종 총무원에는 많은 직원이 근무한다. 만약 총무원 직원에게 성과급을 실시한다고 하면 불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모두 불교는 성과급 같은 경영기법과는 거리가 먼 출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성과급을 실시하면 성과급을 받은 소수의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잘나서 받았다고 생각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성과급에서 제외된 다수는 기분 나빠하니 결국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성과급을 실시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계열사의 사장으로부터 성과급에 대해 직접 들은 말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 성과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공직사회도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성과급을 실시한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 구성원의 성과를 측정하기 힘든 정부조직에서 성과급의 효용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대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기 용이하다는 민간기업에서조차 성과급의 효용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는다. 성과급은 과연 불교적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제도일까, 불교적 관점과 어긋나는 잘못된 제도일까?

불교는 평등을 지향하므로 성과급과 부합하지 않는 종교처럼 보인다. 부처님은 당시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의 4계급으로 엄격하게 나뉘어 있던 인도 사회의 계급제도를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인도의 계급제도는 4계급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이 있었기에 5계급제도라고 볼 수 있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파티에 초대된 적이 있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초대하여 국제적인 교류도 하고 외국인 학생을 이국 생활의 피로에서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려는 좋은 배려였다. 파티에는 여러 명의 인도 사람이 초대되었는데 인도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들끼리는 잘 어울리지 않고 말도 잘 안하고 다른 국적 사람들하고만 교류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계급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였기에 서로 불편해했다고 한다. 그때 처음으로 계급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에 놀랐다.

불교 교단에 출가한 사람은 무조건 출가한 순서대로 존경을 받았다. 따라서 뒤에 출가한 사람은 앞에 출가한 사람을 수행의 선배로서 그리고 스승으로서 존경해야했다. 자신의 노예가 먼저 출가하고 자신이 뒤에 출가한 경우 자신의 노예에게 예를 갖추어야 한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먼저 출가한 자기의 노예에게 예를 갖출 수 없다고 저항하다가 결국 부처님의 뜻에 따라 예를 갖춘 사례도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 불교교단에서는 인도의 계급제도를 무시하고 새로운 위계질서가 성립된 것이다. 먼저 출가한 사람이 무조건 우선권을 갖는다면 성과급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방식을 연공서열이라고 한다. 성과급이란 연공서열이나 위계질서가 아니라 능력과 노력에 의해 분배하는 방법이다. 〈장아함경〉은 "깨끗한 재물을 얻어 여럿과 함께 나누어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것이다."고 설한다. 이 구절은 평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비록 위계질서가 있어서 예를 갖출지라도 재물을 분배할 때는 위계질서가 아니라 평등하게 나눈다. 이 구절도 성과급과는 거리가 멀다. 평등하게 나눈다고 되어 있지 누구에게 더 준다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림 · 박구원

성과측정의 어려움

오늘날 성과급제도를 시행하는 조직도 모든 사람에게 성과급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많은 조직이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 용이한 영업부서에만 성과급을 적용하기도 한다. 성과급이란 능력과 노력에 비례하여 주어야할 때 실시하는 제도인데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면 능력과 노력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영업부서는 상대적으로 능력과 노력이 객관적으로 성과에 반영된다.

경전은 평등한 분배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과급도 이야기한다. 〈사분율〉은 "그 곳에 믿음 있는 우바새나 동산 지키는 사람으로서 상을 줄만한 이가 있든지 집을 떠난 다섯 무리로서 맨 먼저 온 사람이 있거든 주라."고 설한다. 이처럼 평등하게 주기도 하지만 차별되게 나누어줘야 할 때의 기준이 경전에 제시되어 있다. 믿음 있는 사람이나 상을 줄만한 이가 있으면 주라 했으니 성과급과 같다. 즉 남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어도 된다는 명백한 규정이다.

경전에 의하면 출가자의 경우에도 성과급적인 요소가 적용되고 있지만 재가자의 경우에도 성과급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단서는 〈별역잡아함경〉에 있다. 〈별역잡아함경〉은 "비유컨대 어느 한 사람이, 날쌔고 용감하고 큰 힘 있으며, 겸하여 쏘는 기술 잘 알고, 온갖 기술을 모두 알았다면, 전투함에는 이런 사람 필요하나니, 응당 재물로 후히 상을 주며, 그 벼슬과 녹봉을 내려 주되, 그 성바지를 가릴 것 없이, 그 사람의 공훈만을 기록하리니, 대왕(프라세나짓왕)도 으레 그와 같이 하시리."라고 설한다. 성바지를 가릴 것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계급을 무시하고 오직 공훈에 따라 상을 주는 성과급을 말한다.

불교는 일단 평등하게 분배하되 능력과 노력을 측정할 수 있다면 성과급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현실은 어떨까?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명백하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성과에 따라 분배하지 않는가하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비합리적인 성과급을 강행하여 조직에 해를 끼치고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한다. 불교의 관점에서 성과급이 허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불교교리에 비추어 합리적인 성과급만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성과 · 분배의 경영 선택 기로
불교에서 지혜 찾을 수 있어
불교경영의 필요성 높아지는 추세

〈사분율〉은 화합할수록 많이 주라고 규정한다. 즉 '화합하거든 꼭 같이 나누어주고, 화합하지 않거든 반만 주고, 더 화합하지 않거든 3분의 1만 주라' 고 설한다. 승가는 화합을 위해 만장일치라는 의사결정방법을 채택했다. 만장일치가 되려면 소수의 의견을 다수가 수렴하거나 소수가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만장일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만장일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있었다. 조직의 화합이 이처럼 중요한데 성과급은 조직의 화합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다. 성과급을 실시하면서도 화합을 이룬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

불교에서의 경영기법

성과급은 경영기법인데 우리는 성과급 이외의 경영기법도 배워야할까? 나는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불교를 처음 공부할 때 부처님은 과연 경영에 대해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셨을까 궁금했다. 내가 배운 경영학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불교교단을 경영하셨을까 혹은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경영하셨을까 알고 싶었다. 성경에는 예수의 경영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전에는 부처님의 경영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설해져 있고 부처님이 곳곳에서 경영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셨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지만 내가 배운 경영학의 중요한 원칙들이 경전 곳곳에 설해져 있어 참으로 흥미로웠다.

부처님은 출가자들이 돈이나 재물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였다. 예를 들어 출가자들은 돈을 만져서도 안 되고 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서도 안 된다. 돈뿐만이 아니라 귀금속도 마찬가지다. 〈사분율〉에는 "비구들이 과일밭을 얻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받아도 좋다' 하시고 누가 관리할지 모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절을 지키는 사람이나 사미나 우바새를 시키라' 하셨다. 그들이 지킨 삯을 받으려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밥 값과 일한 삯을 계산해서 주라' 하셨다."고 설해져 있다.

만약 출가자들이 돈이나 재물에 개입하지 않으려면 누군가 사찰에서 대신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대신 관리해줄 사람은 재가자나 왕이 파견한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이었는데 이들을 정인(淨人)이라고 불렀다. 정인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아무리 신도라 할지라도 정인이 되면 자원봉사의 개념에서 일하는게 아니고 결국 관리자의 입장에서 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종교 조직에 경영이라는 개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교회에서도 경영개념을 도입하려고 하는 사람과 '신성한 신의 전당에 웬 경영?' 이라며 반발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한다. 사찰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조계종에서 실시하는 주지 교육과정에 경영학 관련 과목이 개설되는 것을 보면 불교에서는 이제 사찰경영에도 경영기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충분히 퍼져 있다고 생각된다. 부처님은 과연 경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혹시 언급이라도 하셨을까? 아예 침묵하고 계신걸까? 〈증일아함경〉은 소를 잘 관리하면 6마리의 소가 6년만에 60마리가 된다고 설한다. 어떻게 경영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 출가자들이 머물었던 사찰은 경전에서 '장자' 로 표현되는 부자나 왕이 지어준 건물이었다. 장자나 왕은 건물을 지어 보시하면서 관리도 책임졌다. 경전을 보면 왕이 수백명의 관리자를 파견하고 비구가 선발한 책임자가 이들을 지휘했다. 아무리 왕이 관리자에게 정성껏 출가자들을 모시라고 명령해도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지만 최고 책임자를 사찰에서 임명하면 관리자는 출가자에게 소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고 책임자를 왕이 임명하면 출가자보다는 왕의 눈치를 더 보겠지만 출가자가 임명하면 출가자를 위해 일하게 된다. 비록 대부분의 경영이 출가자에 의하지 않고 정인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출가자가 부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찰에서 여러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비구를 지사(知事)비구라고 했는데 방을 분배하는 비구, 보시물을 수령 보관 분배하는 비구, 창고를 지키는 비구, 옷감을 지키는 비구도 있었다. 경영에 참여하는 비구들이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특권을 누리자 그러면 안된다고 부처님은 엄격하게 금지하셨다. 따라서 기업이나 기타 조직에서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더 많은 봉급을 받는 것은 불교교단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불교 교리 근간한 경영 필요

불교교단의 경영은 돈에 관한 특별한 원칙과 기법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경영을 세속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배척한다면 부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세간에서 공부하는 경영학이 불교교단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불교교단의 경영은 종교조직으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세속의 경영학을 불교에 맞추어 수정하지 않으면 자칫 불교교리의 핵심을 어기게 된다. 불교교리에 근거한 가칭 '불교경영학' 을 정립한다면 반대로 세속의 경영학에 많은 지혜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불교교단의 경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불교경영학은 불교교리에 부합하는 세속 경영학 기법을 도입하지만 불교교리에 적합한 불교적 경영기법의 수립이 더 중요하다. 세속 경영학 중에서 불교교리에 부합하는 기법만을 추려 불교경영학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도 세속 경영학 중에서 기독교교리에 부합하는 기법만을 추려 기독교경영학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다. 불교만의 독특한 경영이론이 없으면 불교경영학은 성립할 수 없다.

최근에 영성경영(spiritual management)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류 경영학에 등장하였다. 주로 기독교적 성향의 이론이 주된 내용이므로 자칫 '영성' 이라는 종교적 단어 때문에 불교경영학이 가야할 길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어 걱정이다. 불교는 영성경영을 참고만 하면 된다. '경영학이 한계에 부딪히니 온갖 노력을 다 해보는데 이젠 영성경영까지 등장했어요' 라는 어떤 경영학자의 한탄이 떠오른다. 한계에 부딪힌 자본주의에 불교자본주의가 갈증을 해소해 주듯이 한계에 부딪힌 세속 경영학에 불교경영학이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현대인의 익명성을 극복시킨 '시테크' 최고 고등한 **육임모바일 APP '장중비결(掌中秘訣)' 출시**

"내 손 안에 있소이다"



綜合 韓國品

'장중비결' 종합 중국본 '장중비결' 종합 일본판 **동시 발매**

본 육임모바일 앱 '장중비결' 은 한국육임학회와 미국동양학대학교 동양대학 육임인사학과가 협력해 '한국품', '중국본', '일본판' 으로 동시 개발했다.

■ 만나는 시간, 전화 받은 시간, 문자 받은 시간으로만 상대의 모든 정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최고등 '시테크' 육임모바일.

APP '장중비결(掌中秘訣)' 완성품 출시!
'정확도' '간편성' '착목도' '효과성' 보장!

■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을 만나도, 전화통화를 해도, 문자를 받아도 그 순서대로 메뉴에 나타나 있는 '다음사람' 단추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모든 정황은 물론, 비밀사안까지 적시되어 있는 18년에 걸쳐 이룩해낸 IT한 쪽의 정수(精粹)!

■ 적용대상인 : 신규거래자, 계약상대자, 신규채용자, 동호회원 영입자, 이해관계자, 상하위계자, 혼담진행자, 매입의사자, 설득수요자, 경쟁자, 이외방문자, 절교여부자, 친교여부자 등과의 이해 우열 세력 원조 가해 승부 여부를 곧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써놓았다. 즉 되는가, 안 되는가? 좋은가 나쁜가? 진행할까, 물러날까? 에 대해서다.

■ 항목별 당면사 판단 : 임신출산사, 소송사, 여행사, 가격고하사, 묘지사, 승진사, 전근이동사, 퇴직사, 발탁공명사, 구재사, 시험합격사, 취직사, 선거당락사, 가정사, 매매사, 가출사, 혼인사, 질병사, 사망여부사, 투자사, 채용사, 경기승부사, 색정의심사, 이사길흉사, 농작물재배사, 귀신침범사, 부정침입사, 산소탈사, 근친상간사, 길방 택일, 기후사 등 등에 대한 큰 판단과 이외 100여 가지 일상생활의 세세한 사항들의 답을명확하게 밝혀놓았다.

■ 본인의 사회계층, 상대방 신분, 직급, 부귀빈천의 구분 및 진로, 적성 등 일생사 판단 : 내 귀착 신분은 무엇일까? 상대의 신분은 무엇인가? 본인과 상대방의 일생은 부귀빈천 중 어느쪽인가? 무슨 일, 어떤 직업이 적업인가? 일생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 일생 본인과 상대방의 질병은 무엇인가? 지나갈 병인가? 고질병인가? 본인 또는 상대방의 배우자는 미인인가? 박색인가? 남녀 부부 연인의 성격과 인성은 어떤 특징인가? 부부 중 누가 먼저 사망하는가? 등 등의 답을 확실히 적어 놓았다.

■ 신생아의 미래 신분의 방향, 초중고생들의 적성과 장차의 종사 분야, 청년들의 자기 진로와 신분의 정도를 스스로 예견할 수 있고, 또 본인과 관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대의 미래, 즉 귀착될 직위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어김없이 적시해 놓았다.

육임 시보(時報), 내정(來情)

만난 시간, 전화 받은 시간, 문자 받은 시간만으로 미리 알 수 있는 항목 : ○신분은 무엇인가? ○부빈 귀천 어느 쪽인가? 현재 유여한가, 곤궁한가? 무슨 일로 왔는가, 전화했는가? ○지금 어떤 처지인가? ○안고 있는 비밀, 고민은 무엇인가? ○어떤 鬼害, 不貞, 山所脫을 받고 있는가? 천도, 시식, 부적의 효과가 있겠는가? ○방문자의 심중은 신뢰, 고집, 설득, 불성 중 어느것인가?

■ 자기가 일으킨 일인가, 타인으로 부터 당한 일인가? ○이미 일어난 일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상대의 말이 진실한가, 진위 반반인가, 거짓인가? 등 등이 밝혀져 있다.

육임 성부(成否), 호 불호(好不好), 진퇴(進退) 여부

만난 시간, 전화 받은 시간, 문자 받은 시간만으로 미리 결정할 수 있는 판단 : ○본인이 당면한 중대사, 또는 상대와의 일이 될까? 안 될까? ○본인이 당면한 중대사, 또는 상대와의 일이 좋을까? 나쁠가? ○본인이 당면한 중대사, 또는 상대와의 일을 계속 진행해야 할까, 아니면 포기, 또는 중단해야 할까? 등등이 밝혀져 있다.

다운받는 주소 : www.aua.ac – 육임쇼핑 바로가기 –

● **종합 '장중비결(掌中秘訣)'** 현금 입금 하실 분 3만원 할인 ● **가격 : 300,000원**
● **농협 317-0013-9239-01 (입금자 : 천안종) / ● 문의 : 직통 010-6400-0939**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22층 AUA**

각종 카드 3개월 무이자 결제

뭇대중을 위한 지장보살의 탄생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㉚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2

부처님은 문수보살에게 "지장보살은 우주법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이 유명하다. 왜냐하면 지장보살은 자신의 능력으로 십지(十地)로 완성시키고, 한량없는 중생을 고통에서 구해낼 때에 고단하고 피곤하다는 생각 없이 무량한 세월동안 실천해왔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알려진 것이다"고 하시며 지장보살의 전생에 대해 말씀하신다.

지장은 바라문의 딸인 성녀로 태어나 각화정자재왕부처님을 따라 수행하였다. 하지만 어머니 열제리는 그런 성녀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삼보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아 딸과 항상 시비가 있었다. 성녀는 어머니에게 바른 안목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어머니의 신심이 깊어지기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생전에 인과를 믿지 않았던 어머니가 업에 끄달려 지옥에 떨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 성녀는 꽃과 향과 온갖 공양구를 준비해 부처님의 탑과 사찰에 크게 공양을 올렸다. 그 때 일체지(一切智)를 갖추신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즉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태어나는 곳을 묻고 해결방안을 얻지 못했던 것을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때 허공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울고 있느냐? 성녀야,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어머니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말해주마, 나는 각화정자재왕여래다. 네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하니 내 특별히 와서 알려주고자 하노라."

"부처님! 저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어 어서 말씀해주소서. 어머니가 지옥에 계실 것을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습니다. 그걸 알고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구해낼 방도를 알려주소서!"

"성녀야. 어서 정신차리고 공양을 마친 후에 집에 돌아가 단정히 앉아서 나의 명호를 생각하거라. 삼매에 들게 되면 너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니라."

성녀는 부처님 말씀대로 단정히 앉아 부처님을 생각하며 하룻 낮 하룻밤을 생각하였더니 홀연히 자신이 해변가에 이르렀다. 그런데 웬일인가. 시원한 파도가 이는 것이 아니라, 펄펄 끓는 바닷물에 중생들이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설상가상으로 쇠덩어리로 만들어진 악한 짐승들이 하늘과 끓는 바닷물 속에서 사람들을 위협하며 잡아먹고 있었다. 바로 지옥이었다.

성녀는 무서움에 떨면서도 염불을 계속하니 어느덧 공포가 사라졌다. 그 때 귀왕 무독이 나타나 무슨 일로 왔냐고 하자 성녀는 여기는 무슨 바다이기에 중생들이 저런 고통을 받느냐 물었다.

"성녀시여, 이 바다는 업(業)의 바다입니다. 여기는 새로 죽은 사람들이 49일이 지나는 동안 죽은 이를 위하여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자가 없거나, 살아서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이가 부득이 본업대로 지옥에 떨어질 때 첫 번째 도착하는 곳입니다. 둘째바다는 여기에 비해 고통이 배가 되며, 셋째바다는 둘째바다에 비해 고통이 또 배나 되니 바로 삼업을 잘못 다스린 자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허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그들이 만날 지옥은 천 만 개 이상입니다." 이 말을 듣던 성녀가 어머니를 부르며 흐느끼자 무독이 성녀에게 어머니 신상을 묻고 명부를 들여다 보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다. 놀란 성녀를 향해 그대의 어머니는 이미 3일 전에 천상에 태어났고 그 날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도 함께 떠났는데 그 까닭은 열제리 죄녀에게 효순한 자녀가 있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보시한 공덕 덕분이었다는 말을 한다. 이 말을 들은 성녀는 벌떡 일어나 각화정자재왕부처님 존상 앞으로 달려갔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 맹세하노니 지금이 순간부터 미래세가 다하도록 지옥고통에 빠진 중생이 있으면 모든 방법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여 반드시 해탈케 하겠나이다."

성녀가 이 날 맹세한 서원과 같이 수없는 세월을 부처님께 공경공양예배하며 중생을 구하는 삶을 살아 드디어 지장보살이 된 것이다.

요즘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1편에 이어 올 해 2편이 개봉했다. 우란분절을 맞아 선물처럼 찾아온 영화다. 지옥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사실적이니 그 지옥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지장보살처럼 나의 선망부모와 인연있는 이들을 위해 공덕을 지어야 할 것이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탐심 벗어나면 生活苦 해결 가능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㉙ 탐심의 해결

수도자가 수도 중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마음속의 장벽은 탐심이 될 것입니다. 수도를 통하여 탐심의 장벽을 뛰어넘게 될 때 먹고사는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되는 길이란 돈을 많이 벌 마음을 가질 것, 돈 많이 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돈을 잘 버는 방법을 연구할 것, 가능하면 돈 많이 번 사람들로부터 지도를 받을 것, 근검절약하며 부지런히 노력할 것 등등 마음 밖의 그 무엇에서 부자가 될 요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전해 주십니다.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하며 근검절약 하는 것 등 마음 밖의 각종 정보는 부자가 되는 근본적 해결 방법이 아니요, 보조적인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진정한 길은 자신 속에 있으니 자신 속에서 부자가 되는 모든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의 빈궁한 마음, 인색한 마음을 제거해서 부자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빈궁한 마음 인색한 마음이 착각이요 본래 없음을 깨달아, 부처님 마음과 같은 무한한 부자 마음이 드러나게 하면 즉시 부자로 발복(發福: 운이 틔어 복이 닥침)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빈궁한 마음과 인색한 마음 즉 탐욕심을 제거하고 자신이 큰 부자임을 자각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처님께서는 보시바라밀을 설하였습니다. 수도인에게 보시바라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수도자들 중에서 부처님을 초능력자요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처님 이런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심을 닦아 상당히 지혜롭게 변한 사람이라면 '부처님 나를 잘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에서 '부처님 잘 모시겠습니다. 부처님 기쁘게 해 드리기를 발원!' 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시바라밀이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갖가지 탐욕심을 부처님께 바쳐 해탈하므로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선지식께서는 재가자에게 보시바라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을 힘써 닦고, 늘 주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보수 없는 일을 연습하여라. 주는 마음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베풀기 싫은 마음, 인색한 마음이 나타날 것이다. 주기 싫은 생각, 인색한 마음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부지런히 부처님께 바쳐라.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봉급 타는 재미로 직장에 다니지 말라. 직장은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요, 부처님 전에 복을 지을 장소로 생각하라. 잘 살기 위해서 직장에 나간다 생각 말고, 부처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직장에 나간다고 생각하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덕 있는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며 드디어는 '부처님과의 만남' 을 실현하여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능히 빈궁한 마음, 인색한 마음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이 부처님 마음은 돈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고, 성공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며,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덧 자신의 주위에서 빈한(貧寒)한 것, 척박한 것은 사라지게 되고 대신 풍요로운 것, 잘 되어지는 것들로 꽉 차 보이게 변화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연기법(緣起法)과 '이 뭣고'

'차유고피유(此有故彼有) 차무고피무(此無故彼無) 차생고피생(此生故皮生) 차멸고피멸(此滅故彼滅)' 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존재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하듯,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관관계 속에서 생하고 멸하니 둘이지만 결국은 서로가 하나라는 의미이다. 이 원리를 연기법이라 하고, 이는 인연생기(因緣生起)의 약자로 직접적 원인인 인(因)과 간접적 원인(조건)인 연(緣)에 의지해서 만상은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기법을 인과법(因果法) 또는 인연법(因緣法)이라고도 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상호의존성(관계성)으로 고정불변의 자성(自性)이 없으므로, 연기공이며, 무상(無常)과 연기(緣起)를 보면 법을 보고 여래를 본다고 하며, 대승불교의 공사상(空思想)에서는 '중도(中道)' 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위없는 깨달음인 중도를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 했다"고 하셨다. 삼법인(三法印)의 제법무아를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표현했다.

부처님께서는 공을 바람에 비유하시며, "바람은 모양으로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공이란 이와 같아서 진공묘유(眞空妙有)"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가 윤회(輪廻)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무상한 것인 줄 모르고 이것이 욕탐을 일으켜 인식의 대상으로 존재화 시키기 때문이다. 정견(正見)이란 연기법이 진리임을 아는 것이며, 이는 선정인 '이 뭣고' 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윤회의 주체는 진아가 아니라 중생들이 무명과 욕탐으로 취착한 거짓된 자아이다. 부처님께서 세간의 구조적 실상을 체계적으로 설하신 것이 십이연기의

"모든 존재는 서로 상호의존성으로 고정불변의 자성이 없으므로, 연기공이며, 무상과 연기를 보면 법을 보고 여래를 본다고 하며, 대승불교의 공사상(空思想)에서는 '중도' 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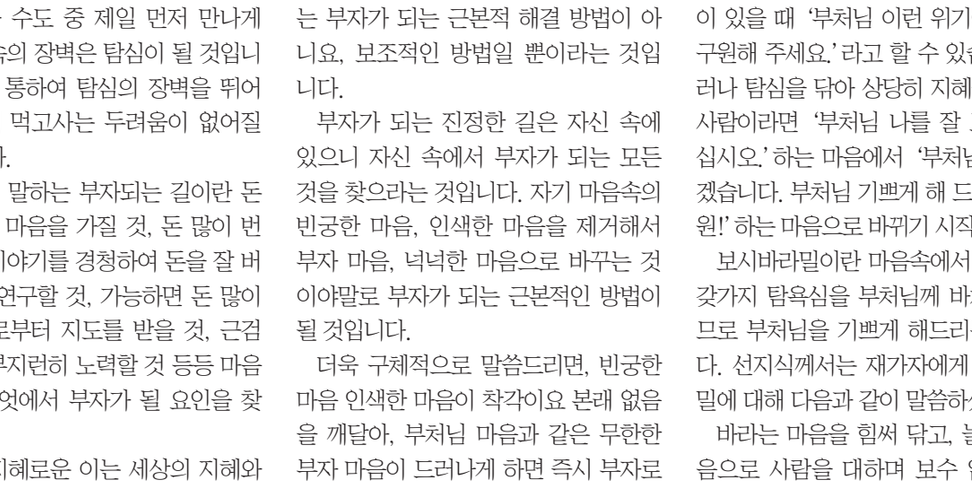
유전문이며, 이를 토대로 세간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 것이 죽음이 없는 땅에 이르는 환멸문이다. 중생들이 오온 가운데 희락과 갈애(渴愛)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욕탐으로 취착해 자아로 삼는 것이 인간으로서 존재이니, 곧 오취온이며, 자아는 법계서 보고, 느끼고, 사유하고, 행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연기한 법을 착각해 개념으로 대상화한 것이며, 우리가 자아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사실상 존재가 아니라 법계서 연기하는 행위(行爲)인 것이다.

또한 유위법도 실상을 여실히 이해하지 못한 중생들이 욕탐으로 존재화시킨 것이며, 무위법인 진리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것이다. 우리 불자들이 생활속에서 반야지혜 광명을 밝혀 실천할 유일한 방법이 시심마 '이 뭣고' 이다.

그리고 연기와 성기(性起)가 화엄의 중심사상인데, 즉 존재와 현상이 서로 끊임없이 연관돼 있다는 법계연기와 있는 그대로가 바로 불성이 드러남이라는 성기설(性起說)이다. 성기란 불의 본질이 현실에 현현한다는 의미이다. 부처님께서 나의 본질을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의 오온으로 설명하신다. 오온이 어떻게 조건지어 일어나는 가를 설명하는 것이 연기이다. 즉 외부 대상이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올 때, 그 기관이 인지하는 대상이 바로 색이다. 그 대상을 식이 인지하고, 그 대상을 수(受)가 느끼고, 상이 지각 또는 인식하고, 그 대상에 대해 행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이 실체를 갖기 시작하면 갈애와 집착이 일어나고 번뇌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그 한 생각을 바로 알아차리고 '이 뭣고' 로 뿌리를 잘라버림으로서 그 대상을 마음이 붙잡고 의미를 부여하고 즐기지 않게 되면, 조건(條件), 연기(緣起)에 의해서 스스로 들어 왔다가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니, 이것이 업장소멸로 이어지며 내안의 반야지혜를 생활속에서 굴려 쓰게 된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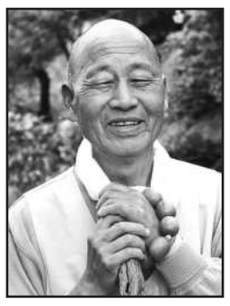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함양 서암정사 회주 원응 스님 원적

법랍 66세로, 석암문도장 엄수



경남 함양 서암정사 회주 원응 스님〈사진〉이 8월 15일 세수 84세, 법랍 66세로 원적에 들었다. 원응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8월 19일 서암정사에서 석암문도장으로 봉행됐다.

원응 스님은 부산 선암사에서 석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전국의 제방에서 참선공부에 매진했으며, 1961년 지리산 벽송사에서 도량을 중창하고 1985년 서암정사를 창건했다.

스님은 서암정사를 건립하면서 〈대방광불화엄경〉 80권본을 금니로 사경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으며 금니로 사경하기 전, 먹으로 〈금강경〉을 120번, 〈대방광불화엄경〉 80권본을 사경했다.

스님은 '사경할 때의 그 마음이 바로 화두 드는 그 경계와 다를 바가 없음'을 강조, 사경통선(寫經通禪)을 널리 알렸다. 특히 화엄경 금니사경 전시회를 한국과 대만에서 여러 차례 열었다.

원응 스님은 "밝고 밝은 신령한 근원의 본체는 고요하며 머무는 바가 없도다. 자체는 형색도 없으니 인연 따라 온갖 것을 알 뿐이니라"는 열반송을 남겼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승려노후복지 앞장서는 영천 포산 승가원 개원

원룸형식 방 11개와 법당 갖춰

제주도 약천사 주지 덕조 스님은 8월 21일 영천시 임고면 우학리에 '포산 승가원'을 건립하고 개원법회와 현판식을 봉행했다.

개원법회에는 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 박물관장 돈명스님과 약천사 주지 덕조 스님, 은해사 국장단 스님과 문도 스님, 은해사 및 약천사 신도회, 지역기관 단체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포산 승가원은 대지 500여 평에 지상 3층 건물로 욕실, 싱크대, 서장 등이 딸린 원룸 형식으로 구성된 방 11개와 법당, 공양소, 옥외 사용 건축물로 지어졌다.

약천사 주지 덕조 스님은 "조계종단 스님들의 노후문제 해결이 늘 화두였다. 그 결과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해 승가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조계종단의 노스님들을 무료로 모실 계획이다. 앞으로 승가복지에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전 연명의료계획 존엄한 죽음 대비를"

Interview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유일 서울 등록기관
17명 상담사 배출, 등록 시작
"웰다잉 인식 변화 주도할 것"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개인이 직접 준비할 수 있는 권리를 표현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는 홍보가 부족해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불교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울지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 서울지역 불교계 기관으로는 유일하다. 불교여성개발원은 개발원 내 생명존중운동본부를 두고 5월 2월 상담사 등록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17명의 상담사를 배출해 국립기관에 등록해 활동하며 총 133명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받았다.

노숙령 원장은 8월 20일 기자간담회서 "일선 병원에서의 연명치료 과정에서 삶의 질은 좋지 않으며 목숨만 연장하는 사례가 많다. 가족들은 효심이 부족하다 등 지탄으로 환자의 결정이 없으면 연명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택하기보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주변을 정리하고, 아름답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 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비해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권리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숙령 원장은 이어 "그동안 불교계가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활발히 펼쳤지만 말기환자를 상대로 한 호스피스, 임종 포교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며 "앞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과 보급을 통해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웰다잉 문화를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노숙령 원장은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일선 사찰을 비롯해 불교계가 앞장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현재 생명존중운동본부(초대 본부장 임정애)를 두고 활발한 웰다잉 교육 및 호스피스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노숙령 원장은 "불교는 스스로의 마음을 닦는 공부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공부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불교계 기관 간의 유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원장은 끝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원장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말고 함께 얘기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불자들이 상담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로서도 이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체계를 다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대학홍보협의회 제21대 출범

8월 17일 동국대서 "협의회 3.0시대 연다"



한국대학홍보협의회 제21대 집행부가 출범식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국대학홍보협의회(회장 변재덕 · 동국대 홍보실장)는 8월 17일 오후 3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21대 집행부 출범식 및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참석자 소개, 회장교인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의 환영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년간 협의회를 위해 활동한 김대영 전임회장과 변재덕 전임 총무이사는 협의회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친선교류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새 집행부 구성은 △회장 동국대 변재덕 △부회장 동덕여대 이은경, 성결대 송주광, 코리아텍 황의택, 송원대 박지호, 금오공대 정재훈, 울산대 박동순 △감사 가톨릭관동대 이진용, 유니스트 장준용 △총무이사 극동대 임동현 △이사 국민대 이용근, 숙명여대 최수연, 한양대 권경복, 한남대 전성우, 전북대 송양희, 동의대 최봉진 등이다.

변재덕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친선교류와 정보교류가 협의회의 1.0시대와 2.0시대였다면 이제는 3.0시대를 준비할 때"라며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소신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할 말은 하고, 사회적 공헌 활동도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한국대학홍보협의회는 지난 1997년 설립된 이후로 현재 전국의 200여개 4년제 대학 홍보 담당자들이 대학홍보업무와 관련해 정보교류와 공동방안을 함께 연구, 개발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청도 운문사, 칠성도 일반에 공개

8월 17일 봉안식… "원형 잘 보존돼"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8월 17일 경내 만세루에서 운문사 칠성여래도 봉안식을 봉행하고, 칠성도를 일반에 공개했다. 운문사 측은 "칠성도 본래 자리인 칠성각에 자리를 마련했다. 손상 없이 대체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고 밝혔다. 이 칠성도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서 열린 경매에서 조계종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운문사가 낙찰 받아 국내로 돌아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삼광사, 지역아동 위한 보시행

아동센터 행사에 밥차 지원 등 펼쳐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 삼광사(주지 세운)는 IBK기업은행 후원으로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을 8월 21일 '제6회 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에 지원했다. 이날 삼광사는 행사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빵 600개를 지역아동센터에 자비의 쌀 2,000kg을 전달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동국장학회, 후배사랑 장학금 수여

52명 학생에게 총 1억400만원



재단법인 동국장학회(이사장 전순표)는 8월 21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로터스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전순표 동국장학회 이사장, 전영화 동국대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학기는 서울캠퍼스 35명 · 경주캠퍼스 17명 등 총 52명의 학생에게 1인당 200만원씩 총 1억4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신성민 기자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선시로 수놓은 가을밤으로 초대

불교중흥실천협, 9월 1일 금강공원서 '선시법회'

네팔 학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선시법회가 열린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의장 안국)는 '원인선사와 함께하는 별이 빛나는 밤'을 9월 1일 오후 4시 부산 금강공원 및 차밭골 금어사 일대에서 개최한다.

별이 빛나는 밤 1부는 금강공원 숲속 둘레길 걷기 명상으로 시작을 알린다. 집결장소는 금강공원 어린이 놀이터 앞 잔디마당이며, 무더운 여름을 숲속 시원한 그늘에서 식히는 힐링시간과 함께 차와 저녁 공양이 제공된다.

2부는 불교 현황에 대한 설명과 발전 방향을 고찰하는 꽃피는 불교토크가 개최된다. 토크에는 원인 스님과 의장 안국 스님, 장상목 부산교수불자회장, 현익채 대불련 총동문회 고문, 김정혁 부산대학생불교연합회장이 참여한다.

3부는 원인 스님의 선시법회가 열린다. 원인 스님은 2010년 수도암 선원장을 역임하고 전국 선원에서 80안거를 성료했다. 현재 영주 대승사 회주로 선시집 10권을 낸 바 있다.

4부는 가을콘서트가 마련되며 여성불교중창단 백련싱어즈와 조수황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등이 꾸미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참선대법회 일환이자 자비실천의 장으로 네팔학교 건립 기금마련을 위해 개최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너, 나, 우리는 하나!"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고교생 마음캠프 열어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8월 1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정광고등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2018 청소년마음등불' 캠프를 열었다.〈사진〉 '너, 나 하나라네!'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나의 프로필 적기 △관하는 도리 △마음의 원리 △공생하는 우리 △촛불명상 등이 진행됐다. 19일에는 △마음을 돌려라 △참 나 찾기 △이야기 나누기, 회향문 쓰기 △회향식 등이 진행돼 고민 많은 청소년들이 마음을 여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참가한 학생들은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혜전 스님, 대구지원 혜화 스님, 목포지원 혜율 스님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스님들과 새벽예불을 하고 공양, 차담, 스님과 글 나누기 등 불교를 같이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도 가졌다.

지도법사로 나선 혜전 스님은 입재식 환영의 말을 통해 "현대의 경쟁사회에서 하나라는 생각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일연선사 민족 사랑 정신 되새겨"

군위 인각사, 일연선사 열반 제729주기 다례재

경북 군위 인각사(주지 정화)는 8월 19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연선사 열반 제729주기 다례재 및 삼국유사 문화의 밤 축제를 봉행했다.〈사진〉



축제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인각사 주지 정화 스님, 김영만 군위군수, 심칠 군위군의장, 박창석 경북도의원, 군위불교합창단원 및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이 참했다.

축제는 '화엄승무' 식전공연으로 문을 연 뒤 다례재서 육법공양과 종사영반, 일연선사 행장소개 등이 진행됐다. 이후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삼국유사 문화의 밤'이 펼쳐졌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법사로 나서 "일연선사의 민족 사랑과 문화예술 정신을 드높여 새롭고 밝은 문화정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민족의 문화창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지역사회 孝사상 20년 일궈온 佛心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8월 30일 20주년 기념식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관음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이 20돌을 맞았다.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은 행복한 정토마을로 이끌기 위해 어르신을 위한 나눔 행사와 전문 호스피스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은 20주년을 되돌아보며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더욱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20주년 기념식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대표이사 지현 · 이하 늘기쁜마을)이 20주년을 맞아 '늘기쁜마을 20주년 기념식 및 산사음악회'를 8월 30일 오후 5시 30분 관음사 수광보전 앞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1부 기념식에서 20년 동안 노력 봉사한 봉사자 및 우수 직원을 선정 시상하고 내빈들이 축사로 함께 축하한다. 아울러 관음사 수광보전 불사 회향을 알리고 대표이사 지현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질 예정이다. 수광보전은 3년에 걸쳐 단청 불사와 함께 아미타 천불과 삼존불을 새롭게 모셨다. 수광보전은 요양원 건립을 목표로 기도하며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새롭게 장엄됐다.

2부 산사음악회는 국악 무대로 꾸며진다. 늘기쁜마을은 수준 높은 국악 전통무대를 마련해 어르신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출연자들이 중광지곡 상영산을 합주해 수준 높은 불교음악의 세계로 초대한다. 상영산은 영산회상 총 9곡 가운데 첫 번째 곡이다. 영산회상에서 영산은 영취산을 의미하며 영취산은 부처님이 설법한 장소를 말한다. 영취산에 모여든 불자들을 영산회라 불렀으며, 이 영산회에서 불보살의 자비와 성덕을 찬양한 가사 '영산회상불보살(靈山會相佛菩薩)'에 곡을 얹어 부른 것이 영산회상이다.

부산 관음사 수광보전 앞
우수봉사자 시상 비롯해
국악무대 산사음악회 열어
"대자대비 실현 법인 성장"

이어 서산대사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회심곡과 생소병주, 가야금 산조 등도 연주된다. 회심곡(回心曲)은 불자들에게 경전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모은중경〉에 곡을 붙여 만든 것이다.

무대는 조순자 국가무형문화재 30호 가곡예능보유자, 이정규 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이수자, 이인수 前대구시립국악단장, 중요무형문화재 20호 이삼 스님 등 여러 전문 국악인이 꾸민다.

대표이사 지현 스님은 "마음을 고요하고 선하게 해주는 영산회상과 회심곡 등 불교음악을 전문 국악인의 연주에 담아 선사하고자 한다"며 "무대를 꾸미는 단원들은 모두 문화재급 실력을 갖췄으며 특히 이삼 스님은 대금연주로 국제적인 명성을 갖추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이어온 복지 활동으로 자비(이타정신)와 지혜(전문성) 그리고 원력(행복 추구)을 추구해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으로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실현한 마을로 이끌겠다"고 전했다.

늘기쁜마을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중생 구제와 대자대비 사상을 바탕으로 1998년 3월에 설립됐다. 늘기쁜마을은 특히 효 사상을 강조하며 어르신을 위한 복지 사업에 주력해왔다. 먼저 두 송복지관을 운영해 지역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해결해 법인 운영 기틀을 마련했으며, 경로잔치, 경로관광을 매년 실시했다. 또한 경로효친사상을 기리기 위해 자비로운 어머니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경로당 방문 사업을 10년간 펼쳤다.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노인 장기요양사업에 적극 참여해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2개소, 방문요양 사업 등을 운영해 전문 기관으로 인정받아 국민건강공단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부산 관음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이 20주년을 맞았다. 늘기쁜마을은 전문복지를 통한 정토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며 부처님의 자비나눔 봉사를 실현하는 모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은 경로당 방문 모습.

부산불교, 생명 살리는 불교 운동 전개

부산불교교육대학 살기 좋은 부산 캠페인

자살과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스님과 불자들이 나섰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8월 19일 서면 영광도서 앞 광장과 일대에서 '2018 자살과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합동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은 1부 식전 전통문화 무대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2부에서는 격려사 및 인사 말씀으로 캠페인의 의미와 생명의 존귀함을 널리 알렸다.

학장 범혜 스님은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자살은 자신은 물론이고 유족이나 사회에 더 큰 괴로움의 씨앗이 되어 되돌아오는 새로운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 재가불자들이 함께 부산 서면 일대를 돌며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캠페인에서는 불자들이 서면 중심가 일대를 돌며 '자살 예견신호와 대처법'과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할 교통문화질서' 내용을 담은 전단지 3000장을 시민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과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을 비롯해 화엄승가회 회원 스님들과 부산불교교육대학 졸업생 및 학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부산교수불자연합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도 함께 참여해 대대적인 행사로 확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전통문화서 느끼는 사찰 고유 아름다움

선운사, 문화재 프로그램 성황

선운사 전통산사 문화재활용프로그램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8월 18~19일 열린 이번 행사는 '천년고찰 선운사, 그 시간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만세루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한주 법현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참가자 80여 명이 동참했다.

첫날에는 선운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소개와 문화재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지역 가야금 전수자의 공연, 도심 스님의 불교와 효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도예체험, 선운사 석류원류 탁본체험, 서각, 소조상 만들기, 벽화그리기 등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운 음양오행 동양철학

내가본 운명학

신개념 지침서

운명은 사람을 지배한다.
운명을 알고나면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숙명(宿命)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은 바꿀수 있다.

동양 철학인 음양오행 사상은 우주 공간에 떠있는 해와 달과 무수한 별들과 지구의 자전 공전의 움직임과 삼라만상의 신비하고 오묘한 자연의 이치를 알아내는 학문으로서 자연속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년.월.일.시.을 지니고 태어난다. 이것을 추명학으로 풀이하면 사주팔자(四柱八字)라 하는데 사주팔자에는 숙명(宿命)과 운명(運命)으로 분리해서 정해진다.

– 본문中에서 –



양정진(덕광스님) 著 / 신국판 / 268쪽 / 정가 20,000원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금강삼매경요해,
드디어 나왔다!!

천년千年의 보물,
불지혜佛智慧 비밀을 세상에 내어놓았다.
그토록 찾던 불佛지혜 깨달음의 보물!
성불成佛의 심오한 비밀 지혜통로와
그 지혜 과정을 상세히 모두 밝혔다.
깨달음 보살세계 무위지혜의 차별차원
대승, 일승, 일불승, 불승, 불佛의
최상 깨달음과 지혜세계를 모두 밝혔다.



최고지혜경전, 금강삼매경 불지혜로 꿰뚫어 자상히 두루 밝혀
5종금강삼매경(고려장경·대정장경·원효론·원정주해·주진봉종기) 하나로 묶었다.

대구시 소재 불국정토 세웅스님 신국변형판 / 936쪽 / 정가 70,000원

원각경요해
圓覺經了解

깨달음, 구경성불 과정의 깨달음 지혜를 모두 밝혔다.
여래결정경계 원각삼종자성 수행의 실상,
심오한 각성세계를 밝히며, 대승, 일승, 불승보살
각성차별과 깨달음 각성과정을 모두 밝혔다.

♣ 깨달음 각성과정 지혜세계를 모두 밝힌 지혜점검 책이다.
♣ 구경성불 수행과정 깨달음 경계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본기청정 인지법행 삼종자성 각성지혜를 두루 밝혔다.
♣ 깨달음 상승과정 세밀한 각성체험 세계를 두루 밝혔다.
♣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의 수행실체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생주멸념 분제두수 심오한 원융각성의 비밀을 밝혔다.
♣ 대승(大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일승(一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불승(佛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반야 법화 화엄경과 보살 3승과 사법계의 각성관계를 밝혔다.



대구시 소재 불국정토 세웅스님 관음출판사 / 신국판 / 644쪽 / 정가 33,000원

新사주학핵심비결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817쪽 / 50,000원

사주풀이의법수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616쪽 / 75,000원

새로운 滴天髓풀이 1,2,3권
慧源 羅明棋 지음 / 신국양장본 / 1,2권 40,000원 3권 50,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각 분야별 권위 있는 교수진의 열정적인 강의

2018년 불교학과 53기 신입생 모집 [2년과정]

불교학과 9월 6일(목) 오후 1시 개강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저녁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통신반 [사이버 강좌 http://cyber.dongsanbud.net]

1년차	과목	① 근본불교 (아함경 2) ② 반야심경 ③ 유식불교 ④ 인도불교, ⑤ 중국·한국불교 ⑥ 법화경
	교수진	법산 경일스님(학장), 최봉수 교수, 최종석 교수, 김형준 교수, 묘주스님, 최종남 교수, 정병조 교수, 황순일 교수, 김경집 교수, 차차석 교수, 박종 교수
2년차	과목	⑦ 화엄경 ⑧ 정토불교 ⑨ 대승불교와 밀교 ⑩ 불교의 체계적 이해(아함경 1) ⑪ 불교문화와 미술, ⑫ 선불교
	교수진	정엄스님, 김형준 교수, 주명철 교수, 정성준 교수, 이미령 교수, 윤열수 교수, 법인스님, 활안스님, 김호귀 교수

■ 모집 인원(불교학과) : 100명 (주간반·저녁반·통신반)
■ 제 출 서 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8년 8월 1일부터
■ 문 의 : (02)732~1206~8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한불련)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개강
불교다도학과 [9월 4일(화)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 [9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전통범패의식반 [9월 5일(수) 오후 2시] 한글불교의식반 [9월 8일(토) 오후 2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사무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 (02) 732-1206~8 Fax : (02) 732-1207 http://www.dongsanbud.net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s.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법문을 들을 때는 어렵다는 생각으로 물러설 마음을 내지 말고 많이 들었다는 생각으로 쉽다는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생각을 비우고 들으면 반드시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초발심자경문〉



관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 모집

- 주1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실용교육
- 예불,불공,사십구재,천도재 등
- 북,징,경쇠,요령,목탁 다루는 법
- 바라작법, 오공양무

영남범음범패 염불선원

(경산시 경산역 부근)

010-5315-3589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기도와명상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천기누설 운



풍수지리 신통력

음택명당 이장하는데
해무리, 무지개 3시간
1년에 30회 뜹니다
무지개 스님

010-4413-3377

율곡 범음 대학 (광주전남 범음범패)

의식교육 학인 모집

- 대상 : 스님, 법사, 보살 가능, 사찰행사 함께 하실 분

초급 · 중급반	상 급 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6시

광주무형문화제 제23호 범음기능보유자
문의 010-6241-8499

최면 전수생 모집

①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② 최면치료는 부작용이 없다.
③ 빙의(신들림)에서 우울증, 자살충동까지.
④ 최면치료는 재발이 없다.
⑤ 사고장요법까지 전수해준다.

HOMEPAGE : www.hypnosis.or.kr
최면치료사 상담치유학박사 강성진교수

010-4844-7002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모집안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명상 (무료)

"누구나"

T.1588-5654

화태명상원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3길 31
전철 2호선 홍대역 2번출구

뇌강기도법 전수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수리 비술
- 수리의 비밀과 의미를 알려 드립니다.
- 손 하나만으로도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전 후의 운세를 예측할 수 있는 운세 작법
- 명리나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사)한국불교 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당)

011-229-606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2세 이하
(충남 지역 사찰)

041-673-8385

비구부전스님 모십니다

(여법하게 염불 하실 수 있는 스님)
안양 금강사

031-471-6675

사찰 처사님 (운전가능) 모십니다

숙식 필수
(50세 이상, 경기도)

010-5264-8312

부전스님 모십니다

(지역 : 경북)

010-2078-9595

찾습니다

성오스님을 찾습니다.

2004년도 단양 댐 천장사에 있다가 당시 재산에 계셨던 스님께 갔었던 **각연**입니다.
그때 소승의 법명을 스님께서 자안으로 지어 주셨습니다.
스님 뵙고 싶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자안(각연)**

010-3526-7066

근원으로 깨어남 아봐타 ® 코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선재아봐타마스타

010-6822-7359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6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진리를 믿어 미혹되지 않으면 있는 곳마다 항상 편안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지극히 정성스러워서 끝내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아난분별경〉



지리산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 요사채. 삼성각. 토지 19,000㎡
- 주변 산사찰. 기도도량. 전망 좋음.
- 양도 : 7억 2천만원 (융자가능함) (위치 알려드리지 않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 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시 치악산 자락
- 대지 : 900평
- 건물 : 대웅전 28평 (전통 목조)
- 요사채 2동, 산신각(4평) (각 3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010-4028-88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7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지리산사찰(급)안내
- 산중기도도량.토지5.000㎡
- 목조법당.요사채.삼성각.공양간
- 풍광일품 위치좋음.건물5동
- 운영잘됨. 스님 건강상 양도
- 양도가액 : 9억5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02-430-0284)
구입의사 있으신 스님만 모심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토 굴 안 내
- 위치: 신림 IC 15분
- 넓은주차장에서 바로 산으로 연결
-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환상적인 전망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대지 639평, 건평 60평
- 방3, 화장실3, 심야전기, 매우 따듯, 마을 상수도
- 가액 : 4억 2천

010-6399-3379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수도권
◎ 부지 : 150평
◎ 법당 : 40평
◎ 요사 : 70평
◎ 양도가 : 11억 3천
◎ 위치 : 서울 북한산
◎ 부지 : 100평 사용
◎ 인법당 : 약 60평
◎ 산속, 무허가 건물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찰 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010-4953-172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 대지 108평, 건평 104평 1층 요사채, 2층 법당 각 52평
- 서울 시내 공원 입구 가족테마공원 개발 서울시 인가득 상태
- 가액 : 시설 포함 14억 5천

010-3124-3952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등기필
- 대지 : 도지료1년 35만원
- 넓은마당 및 텃밭200평 사용 (건물은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3백만원

010-8525-1959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87-25
- 시장을 끼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 주지스님이 일본가시는 관계로 급히 인연을 찾고자 합니다
-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2천 월 1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3102-5102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소재
- 부지 : 60평(대지)
- 법당 : 30평(단청,청기와,2층)
- 요사채 : 30평(1층,방3,종무소)
- 공양간 : 지하15평
- 기타 : 석등,산신각 등
- 가액 : 7억원
- 특징 : 도심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지로 정말 좋습니다.
- 위치 : 경주시 소재
- 부지 : 10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3포7포,단청)
- 요사채 : 60평(단청, 황토)
- 산신각 : 15평(목조,닷집)
- 기타 : 석탑,석등
- 가액 : 구억구천만원
- 특징 : 도심 외각에 위치한 대가람의 사찰로 포교와 기도처로 좋습니다

전국소재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010-4942-045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 대지 : 254평, 하천부지 330평 총 58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산신각,관음전, 공양간, 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010-2041-8182

도심 별장 같은 사찰
- 위치: 시청 5분, 김해공항 10분 거리
- 토지 : 270여평,주차장 완비
- 법당,산신각,종각,용왕당,종무소 주지실, 요사채(방3) 30평
- 돗대산, 주변1500세대 아파트
- 가액 : 평당 280만원 (은행 2억1천 안고)

010-9906-3631

일본 포교원 안내
- 위치 : 오사카 쯔루하시 재래시장 입구 한국인들 집중 거주지역
- 2017년 건립, 3층 건물 전체사용, 각층20평,법당,신중당,공양간, 접견실,침실,휴식처
-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문제로 급 안내함
- 가액 : 문의 후 상담

010-3545-5060
일본 080-5358-5060
무료 070-8836-5060

사찰(급)안내
- 위치 : 고양시 원당 원당역 마을버스 정류장 부근
- 법당 60평. 10년째 하던 자리 입니다
- 확장이전 관계로 양도합니다
- 4층 중 2층 대웅전1,삼성각1,용왕전1, 화장실2,방3개,부엌,베란다,에어컨5대,
- 가액 : 2천에 월80만원, 시설비는 둘러보시고 판단하셔서 양심껏 주세요. 즉시법회 가능함

연락처 010-6795-15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소재
- 법당 : 아미타불
- 평수 : 141평
- 가액 : 1억 1천만원

연락처 010-3697-3521

주택안내(토굴하실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353-20 외
- 대지 약 380평, 전290평
- 전통한옥ㄱ자형, 본채, 별채 (2채 약70평,부속건물포함)
- 준공일 : 2012년 12월
- 가액 : 8억 5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10-7449-29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구의사거리
- 시설 : 법당(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산신각(산신탱화), 상담실, 주지실, 공양간
- 최상의 시설, 2층 60평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50만원 시설비 1,300만원(절충가능)

010-4047-013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서동
- 전체면적 : 181평
- 법당 지장전, 요사채, 별채,산신각,종무소 외 넓은마당
- 사찰외 넉넉한 주차장
- 조용하고 아담한 야산밑 평지에 위치한 도량
-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 아늑하고 조용한 사찰
- 가액 : 6억8천만원

문의전화 010-8718-5529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읍내5분거리
- 평수 : 약1,700평 • 가액 : 14억
- 대웅전1동, 삼성각1동
-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탑높이9m 30㎝ 둘레13m 돌탑108개 요사채2동
- 정자각1동,심야전기보일러 태양광열설치,대형주차장완비
- 집기일체,즉시법회가능

033-562-0448

사찰(급)안내
- 위치 : 고성(위치 좋음)
- 대지 : 200평
- 대웅전 : 30평
- 요사채 : 40평
- 상태 양호(수리완료)
- 가액 : 3억 5천

010-9485-9318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 신도시
- 신축 2년
- 대지 470평
- 건물1층 60평, 2층 60평 식당 23평, 산신각 7평
- 법당안 1년등 1,450개
- 양도가 13억

주인직 055-346-29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집현면
- 대지 : 약 1,000평, 산 약 1만평
- 건물 : 법당 30평, 요사 25평, 산신각 3평, 기도방1칸
- 가액 : 5억 4천 8백만원

010-6520-5859

사찰(터)안내
- 위치 :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 산 약 17,000여평
- 공시가 반가격 급 양도
- 공시가 60억
- 계약 후 묘지 이장 조건
- 지불가능한 분만 상담가능

010-3184-5362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방2,화장실2,법당,난방완비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1,900만원(가격 절충)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339-9
- 법당 30평
- 방1개, 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010-7257-4242

사찰안내(전세)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 대지 : 70평 (2층건물)
- 1층 : 30평 (방3개, 실내화장실 2개)
- 2층 : 25평(법당, 상담실)
- 도시가스, 주차장 완비
- 가액 : 전세 3000천, 월 80만원

010-7311-533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봉양읍
- 법당, 거실, 주방, 방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2,500만원

010-5258-1570

토굴하실 분
- 위치 : 경북 청도 금천면
- 대지 : 110평
- 건평 : 20평(거실, 방 2) 창고, 기름보일러 설치
- 판넬구조, 공기좋음, 토굴로 사용하실 스님수행공간 최적임
- 주변유실수 많음(살구,감)
- 가액 : 1억

010-8517-4130

사 찰 안 내
- 위치 : 거제시 대금산하 총부지 1100평
- 종교집회장 300평 허가득
- 토목공사,700평 완성되어있음
- 주택 34평,임법당, 삼존불 27평 소불700불,산신각,심야보일러 농사용전기,산업용전기,수도시설
- 포교원, 전원주택 모두 가능함
- 가액 : 6억(은행 2억있음)

010-9113-001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전망 좋은 암자(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바닷가
- 삼존불, 각단탱화, 스님방사, 산신각
- 양도가 : 1억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원 또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동
- 3층 건물 2층 50평
- 삼존불, 방 3개, 공양간, 화장실 2개
- 보증금 500만원, 월70만원 시설비 500만원
- 스님 급 보시

010-3884-01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길 15-2 지리산 750고지
- 빈집 방2개, 응접실1개 부엌 1개, 욕실 1개
- 지리산 인연 있으면 함께 합시다
- 가액 : 보증금 150만, 월세20만

011-759-018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단독 주택 약 50평
- 법당, 방3, 화장실 2
- 법당(아미타 삼존불), 청동불(3자)
- 교통편의,지하철 1호선 안지랑이역에서 5분거리
- 보증금 1천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청동불 인수 포함 1천만원

010-9735-80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부지 : 280평
- 삼존불, 각단탱화, 법당 스님방,공양주방,다용도방,창고! 실내화장실2, 실외화장실2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대출6천안고 2억4천

010-8643-5235
010-7475-0474

토 굴 임 대
- 위치 : 충남 청양군 소재
- 법당 : 컨테이너 하우스 1
- 요사 : 실내 해우소, 공양간, 방사2
- 마을 끝 산아래 위치
- 모든 집기 및 세간 구비 몸만 오셔서 될 듯합니다.
- 전. 월세 모두 가능

문의 010-3977-2123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 125평 중 건평 : 100평
- 법당 :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 아파트 대단지 4만 5천세대 부근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019-5385

명당 절 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광도면
- 산중턱에서 바라보면 청정바다가 보이는 멋진 곳, 계곡물 전기
- 평수 : 150평
- 평당 60만원(조절 불가)
- 직접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8643-52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 경북신도청 7.5㎞, 예천군청 9㎞
- 법당 : 실평수 30평, 요사채 30평, 40평
- 사찰도량 1,20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 요양원, 실버타운 적합

010-3526-7066

상가주택 포교원(급) 안내
- 투자가치도 좋음, 급 양도. 포교원 3층 건물
- 위치 : 전주시내 앞도로변, 좌로4차선, 앞으로 2차선 주변환경, 전북경찰청, 도청, 아파트, 상가, 주택 밀집지역, 공원, 천변산책로
- 대지 61평, 뒷마당 있음, 건평 90평, 각 30평 3층 건물
- 1층 방3개,해우소/2층.법당.수미단원목조성,소불300불, 연등700,인등,영가인등,해우소/3층.주택,방3개,화장실2개. 외부, 내부 뼈대 외 올리모델링, CC카메라10대
-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면 최고의 위치
- 가액 : 3억 9천만원 (불사관계로)

휴대폰 : 010-5904-8608

제국주의 특별법명 첫 반납… '反戰 실천'

日 2차 대전 전사자 자손, 불교종단 내린 칭호 반대

박영빈 객원기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73주년이 되는 올해, 일본 불교계에선 반전(反戰)을 향한 작은 실천이 시작됐다. 지난 8월 17일 '마이니치신문'은 "불교종단이 전사자에게 내린 특별칭호를 반납하는 운동이 조용히 번지고 있다"고 특별 보도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시카와현에 거주하는 정토진종의 문도 니시야마 세이이치(87) 씨. 니시야마 씨의 부친인 마사오 씨는 육군병사로 1940년 중국전선에서 입은 총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니시야마 씨는 "그때 내 나이는 9살이었다.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다는 이유로 마을 전체가 나서 성대한 장례를 치렀다. 돌아가신 부친을 군신(軍神)처럼 받들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문제는 부친에게 수여된 '원호법명(院號法名)'이었다. 정토신앙이 강한 일본에서는 고인에게 사후에 법명을 붙이는 전통이 있다. 죽어서 극락에 왕생한 이는 아미타불의 법문을 듣고 성불하기에 속명이 아닌 부처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 법명은 위패나 묘비 등에 사용되며 사자의 공식 이름으로 사찰에 등록된다.

대대로 정토진종을 믿어온 니시야마 가문에 대해 정토진종은 사망한 마사오 씨에게 국가나 종단에 막대한 공헌이 인정된 이에게만 특별히 수여하는 법명인 '원호법명'을 수여했다. 마사오 씨에게 수여된 원호법명은 '향덕원 석자성(香德院 釋慈聲)'. 앞의 원(院)이라는 칭호가 들어가기에 원호법명이라고 한다. 수여 이유는 '나라를 위해 순국했다'는 것. 정토진종 외에도 일본 내 다수의 불교종단이 제국주의 시대의 전사자들에

전사자에 칭호 내린 일본불교
제국주의 옹호에 반대 목소리
정토진종 문도 칭호 반납 요청
"아버지 죽음, 숭고 아닌 희생"

대해 특별칭호 등을 수여하고 있지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전쟁 협력한 일본 종교계

2차 대전 당시 일본 종교계는 앞 다퉈 전쟁에 협력했다. 특히 불교계는 불교문화권이던 점령지에서 일본불교를 포교하며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일본화를 꾀했다. 특히 조동종의 경우 '전쟁에 나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부처님



전쟁에서 사망한 부친의 사진을 들고 원호법명 반납 의의를 설명하는 니시야마 씨.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의 가르침'이라고 설법하며 전사한 신도들에 대해 충렬, 보국 등의 원호가 들어간 법명을 수여했다.

전쟁이 끝나고 한참이 지나고서야 일본 불교계는 "불법의 이름을 빌려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공식적인 사죄성명을 발표, 원호법명의 수여를 중단했다.

니시야마 씨는 정토진종의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원호법명의 존재를 알았다고 전했다. 니시야마 씨는 "나이가 들고 나서 부친의 법명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나라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해서, 타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찬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겼다"고 말했다.

곧이어 종단 측에 공식적으로 원호를 반납, 법명만을 재교부 해 달라는 신청을 넣었다. 당시 정토진종 총무원 측에서는 니시야마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호를 취소, 법명만을 인정했다.

종단의 결정에 대해 정토진종 교학연구소의 야마우치 사요코 연구원은 "원호법명을 수여하는 것으로 전사라는 죽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부조리한 죽음을 명예로운 것으로 만들었다. 더욱이 전쟁을 성전(聖戰)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전선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정토진종에서 수여한 원호법명을 취소한 일은 이번이 최초다. 종단 측에서는 해당 사안을 주지로 임명되는 스님들의 연수교재에 경위를 자세하게 기재, 종단이 전쟁에 협력했던 부끄러운 단면을 교육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원호를 반납한 니시야마 씨는 부친의 위패가 야스쿠니 신사에도 합사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뜻을 같이하는 유가족들과 함께 합사 취소 소송을 제소했다. 니시야마 씨는 "부친의 죽음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죽음'이 아니라, '나라가 일으킨 잘못된 전쟁에 희생된 죽음'이다. 앞으로도 전쟁에 반대하는 서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中불교회장 쉐청 스님, 성추행 의혹 사임

비구니스님들, 고발문서 공개… 불사금 착복 혐의도

중국불교계 최고지위인 중국불교협회 회장을 맡은 쉐청(52) 스님이 성추행 의혹으로 사임했다. 8월 16일, '중국중앙TV' 'AFP' '아사히 신문' 등 외신은 스님의 사임 소식을 전하며 사건의 배경을 상세 보도했다.

지난 8월 1일 셴자(賢佳)와 셴치(賢啓), 두 비구니 스님은 SNS를 통해 '중대한 사정을 밝히는 글'이라는 제목의 95페이지에 달하는 고발문서를 공개했다. 두 스님은 보고서의 진실성을 위해 속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며 '우리는 쉐청 스님이 감추고 있는 사항들이 사회에 끼칠 막대한 악영향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며 대대적으로 폭로했다.

두 스님은 중국의 명문대학인 칭화대에서 엔지니어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쉐청 스님이 주지로 있는 룽취안(龍泉)사에서 출가했다. 이후 각각 쉐청 스님의 시자와 룽취안사의 도감 소임을 맡으면서 해당 사건들을 접하게 됐다고 전했다.

문서에 따르면 쉐청 스님은 최소 6명의 비구니 제자들에게 성행위를 요구했고, 여기에 4명이 응했다. 쉐청 스님은 자신과의 성행위는 '수행의 일환'이며 육신과 정신이 청정해진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는



지난 3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쉐청 스님. 사진출처=산케이신문

이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들이 함께 첨부됐으며, 그 내용엔 직접적으로 성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세뇌와 정신적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도 함께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불사금으로 모연된 1200만 위안(한화 약 20억원)을 착복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해당 문건의 추가유포 및 SNS상 논의를 금지했으나, 사건의 반향이 커지면서 국가종교사무국을 통해 조사를 지시했다. 지난 15일 중국불교협회는 긴급이사회를 소집, 쉐청 스님의 협회장 사임안을 승인했다. 현재 쉐청 스님은 출국이 금지된 채 푸저우(福州)의 모 암자에 은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빈 객원기자

"요리하며 명상" 불자 셰프 '자부심'

베트남 전쟁 중 라오스 탈출
母 도움으로 생활 불교 실천

"8년 전 식당을 개업했을 때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를 불교 실천의 길로 안내하셨습니다. 혼잡한 주방에서 평정을 찾는 방법은 '명상'입니다."

라오스 출신의 미국인 셍 루앙라스(Seng Luangrath) 셰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불교'와 자신을 불교로 인도한 '엄마'라고 단언한다. 불교 잡지 '라이언스로어(Lion's roar)'는 8월 16일 '요리하며 명상하는' 불자 셰프 셍 루앙라스의 소식을 전했다.

루앙라스는 어린 시절 베트남 전쟁 중 라오스를 탈출했다. 그의 가족은 2년 동안 태국 난민촌에 거주한 후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현재 루앙라스는 워싱턴DC에서 유일한 라오스 식당인 팁 카오(Thip Khao)를 운영하고 있다. 또 버지니아에서도 태국·라오스 식당을 운영하며, 북미에 고국의 요리를 홍보하는 '라오스 푸드 운동'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루앙라스는 자신이 태생부터 불자였다고 했다. 불교 국가인 라오스를 아주 어릴 적 떠났지만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심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루앙라스는 "미국에서 성장하면서 나는 꽤 바빴고, 불교를 잃어버렸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엄마는 내가 다시 명상하고 불교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며 "할머니와 어머니는 신심이 매우 깊다. 어렸을 적 그들을 따라 절에 자주 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주방에서 요리하는 동안 명상이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방에서 그는 식기와 불을 다루기 때문에 예민하지만 명상을 통해 묵언하며 '마음챙김'을 한다는 것.



생 루앙라스 셰프는 워싱턴DC에서 유일한 라오스 식당인 팁 카오(Thip Khao)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생활 속 불교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식당 운영은 매우 힘들며 바쁜 일입니다. 식당 문을 연 첫 해 나는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스스로 통제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때 엄마에게 조언을 구하니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는 어머니의 조언대로 매일 마음챙김 연습을 한다. 혼자서 산책하고, 가능한 많이 명상한다. 그는 요리할 때 대화를 멈춘다. 절에 가지 않아도 늘 불교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루앙라스는 "요즘 나는 주방에서 요리하는 동안 명상한다. (함께 일하는)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차린다"며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는데 에너지를 쏟는다. 마치 새로운 정신 상태와 같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루앙라스는 불교가 자신의 요리 경력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한다.

"불교가 없다면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마음챙김 명상과 산책은 나를 많이 도왔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게 직원들을 연민과 존경심으로 대해야 한다면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 성공의 일부입니다. 난 불교 실천을 삶의 일부로 자리 잡게 한 엄마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박정현 객원기자

환자 돌보는 선센터, 운영 중단 '위기'

美 ZHP, 기부자 지속 감소에 자금난 심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젠 호스피스 프로젝트(Zen Hospice Project, 이하 ZHP)' 게스트하우스가 지난 6월 마지막 손님을 받았다.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자금난으로 인해 한 달 반 넘게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불교 잡지 '라이언스로어'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기부금으로 대부분 운영된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위협받는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해 기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자금난을 겪고 있다.

1987년 대부분의 전통 호스피스들은 에이즈 감염 환자들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선센터 커뮤니티는 죽어가는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1990년 ZHP를 열었다. 빅토리아풍 건축물에 5개 침대를 두고 환자를 받은 것이 그 출발이다.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라구나 혼다(Laguna Honda) 병원의 자원봉사자 완화 치료 및 간병인 교육과 함께 ZHP가 실시하는 세 가지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다. 운영이 중단되기 전 6개 침대가 있었고, 1년에 최대 100명의 환자까지 돌봤다. 특히 '연민'과 '자비'를 운영 방침으로, 환자와 봉사자들의 수를 일대일로 배치한 것으로 유명했다.

2015년 당시 전무이사였던 BJ 밀러는 "삶의 끝에선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면서 "치유 받는 이곳에서 우리는 마침내 깨닫는다. 동정이 바로 그 힘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ZHP는 현재 단기적으로 재정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기부자를 찾고 있다. 한편으론 장기요양 환자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회사를 설득 중이다. 라이언스로어는 "ZHP는 환자 1인을 돌보기 위해 하루 850달러에 비용이 들지만 현재 기부가 거의 없다. ZHP는 향후 2년간 연간 200만 달러를 모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린 후, 머리염색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 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걸음걸음마다 담긴 무분별의 지혜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4. 자비경선(慈悲鏡禪)

경선하기 전 다리풀기

다리풀기 운동은 다음 순서로 한다. 먼저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가면서 여러 차례 돌리면서 발목을 유연하게 한다. 다음은 두 다리의 뒤꿈치를 20~30초 세워준다. 이후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가면서 뒤꿈치를 세우기를 반복한다. 또 한 발을 앞으로 조금 내서 발가락으로 땅을 빠르게 힘껏 쳐서 발가락에 힘을 주고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순간적으로 발등과 발목을 쭉 펴준다. 그 다음은 외다리 서기를 하면서 허리를 쭉 펴준다. 평형감각을 높이고, 다리 힘을 기르기 위해서다. 또한 경선하기 전 외다리 서기를 통한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를 하는 것이다.

외다리 서기가 익숙해지면 외다리로 선채로 뒤꿈치 세우기를 왼발 오른발 번갈아 반복한다. 이어 뒤꿈치를 세우고 외다리로 서있는 상태로 다른 편 다리를 앞뒤로 흔든다. 그리고 뒤꿈치를 세우고 외다리로 서있는 상태로 10초 정도 뛰뛰기를 한다.

양손은 허리를 잡고 허리를 좌우로 크게 원을 그리듯이 한두 바퀴 돌려준다. 지팡이(등산용 스틱)를 몸 앞에 짚고 허리를 좌우로 크게 돌려주는 방법도 있다. 그 다음은 발을 땅에 디딜 때 뒤꿈치를 먼저 디디면서 엄지발가락까지 땅에 닿게 한다. 항상 이렇게 딛고 걸으면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가 쉽다.

걸으면서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에는 여러 가지 명상방법이 있다. △걷기에 담겨 있는 관계성, 평등의 이치 알고 걷기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가 그것이다. 이것은 일정한 거리를 왔다갔다 하면서 수행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산행이나 먼 거리를 걸을 때는 다양한 걷기 명상법이 필요하며, 다양한 기법의 순서를 주변 환경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걷기명상에서 스토리는 무상, 연기, 인과, 공 등의 법을 효과적으로 알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걸으면서 알아차림의 영역을 온몸으로 확대 △오감의 문으로 들어오는 감각 알아차리기 △의식의 무분별 영역 넓히기 △걷기명상 중 쉬는 시간에 차 마시기 △소리 무상 관찰하기 △몸과 마음 휴식하기 △소나무에 기대 의식 확장하고 관계성 통찰 사유하기 △안과 밖의 경계선이 없는 의식의 한 공간 이루기 등 여러 명상이 필요하다. 이 순서를 조합하고 스토리 짜는 것은 걷는 주변 환경에 따라 정한다.

걷기에 담긴 관계성 알기

경선하기 전 다리풀기 운동을 했다면 본격적으로 걷기명상에 들어간다. 걸으면서 발바닥 알아차리기는 가장 기본적인 명상이다. 발과 땅의 접촉은 첫째, 상호의존을 뜻하고 둘째, 접촉이 원인이 되어 갖가지 감각이 일어나므로 인과의 뜻이 있다. 상호의존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뜻하며 생명의 활동을 뜻한다. 독립되어 있는 생명체는 없기 때문이다.

발과 땅의 접촉으로 물리적 현상만이 아니라 심리적 현상도 나타난다. 의도가 그것이다.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는 의식이 발바닥에 있기 때문에 의식이 머리에 있을 때보다 번뇌 망상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그렇지만 알아차리기 힘든 미세한 의도는 여전히 일어난다. 왜냐하면 의도가 일어난 후에 행위(움직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도가 원인이 되어 행위라는 결과가 생기는데 이 인과 사이에는 사람, 동물, 남자, 여자, 자아, 자성 등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원인과 결과만 있다. 그러므로 걷는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의 활동이고 차별성이 사라졌으므로 평화 평등의 실현이다.

이러한 이치를 알고 걷는다면 그 걷기는 명상이 아닐 수 없다. 그 의미는 성차별과 계층 간의 차별을 없앨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구촌에는 각종 개발 및 동물의 포획 그리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직격탄을 맞아 지구상의 생물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현재 '6번째 대멸종'으로 부를 만큼 빠른 속도로 생물종이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과학자들은 소행성 충돌과 같은 외부요인이 아닌 특정 생물(인물)이 원인이 돼 생물종이 사라지는 건 지구 역사상 처음이라고 지적한다.

발-땅 접촉은 상호의존 의미
갖가지 감각이 인과 알려줘
발바닥서 온몸으로 느낄 때
평등 이치 몸소 알 수 있어

환경파괴와 일시적인 생태계 이상 현상은 복원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생물의 멸종은 돌이킬 수 없다. 모두 분노에 의한 전쟁, 테러, 탐욕이 불러온 결과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에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인류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우리는 탐욕과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

탐욕과 분노는 상호의존, 인과, 평등이라는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탐욕과 분노를 줄이고 없애는 것은 모든 존재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평등의 이치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방법은 평화 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다. 걷기명상은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현대인은 사물을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인식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발바닥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직접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땅의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감각은 딱딱하거나 부드러움, 통증 등 다양하다. 처음에는 강하게 자극되는 감각부터 즉각 알아차린다. 그리고 감각은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알아차림도 민첩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감각되는 것이 물리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있다. 그리고 이를 알아차리는 정신적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물리적 현상의 과정과 정신적 현상의 과정을 알아차림으로 즉각 구분해낸다면 지혜가 생긴다.

이후 다양한 감각들의 공통되는 현상을 알아차린다. 공통되는 현상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땅의 조건에 따라 발바닥의 감각이 달라짐을 알아차리고, 발을 들고 나아가는 조건에 의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우리는 구분 또는 분별하는 것을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상을 즉각 알아차리는 훈련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짐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의 지혜가 생긴다. 나아가 무상의 발과 땅의 상호의존, 인과 속에서 자아 없는 무아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발바닥과 땅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각을 알아차리면 직관력이 생기면서 머리로 헤아리는 분별심의 오류를 줄이고 추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단순히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만으로도 일상생활에서 통찰력(지혜)을 기르는 것이다.

걸으면서 무상 관찰하기

앞의 과정을 통합해 무상 관찰한다. 이 순간 깨어있다는 것은 마음이 과거로, 미래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모두 번뇌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추상도 현재 이 순간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음은 모든 정신적 문제를 해결해준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기는 발바닥 감각의 4단계 알아차리기를 통해 이뤄진다.

① 부드러움, 딱딱함, 통증 등 발바닥의 다양한 감각을 알아차린다.

② 발바닥에 다양한 감각이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한다.

③ 지나간 감각이 돌아오지 않음을 관찰하고, 미래의 감각도 오지 않아 없음을 알아차린다.

④ 과거와 미래의 감각이 없음을 알아차리고, 현재의 감각도 머물지 않음에 마음을 머물게 한다. 이렇게 반복해 익히면 걸으면서 늘 깨어있게 된다.

온몸으로 확대해 알아차리기

발바닥의 감각만 알아차리는 걷기명상은 환경에 따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산행이나 먼 거리를 갈 때, 주위가 산만하고 복잡할 때가 그렇다. 산행을 할 때는 의식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 먼 길을 갈 때는 지루할 수 있어 알아차림 영역을 넓혀 대처해야 한다.

걸으면서 알아차림의 영역을 온몸으로 확대하면 무분별의 거울 같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명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우선 나무에 기대어 알아차림의 영역을 온몸으로 확대해보자.

발바닥에서 발등, 발목, 정강이와 장딴지, 무릎으로, 다시 무릎에서 발바닥까지 거울 같이 비춰보면서 감각을 알아차린다. 다음은 허리에서 발바닥까지, 어깨에서 발바닥까지,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로 알아차림 영역을 넓힌다. 이처럼 알아차림의 영역을 온몸으로 확대하고, 걸으면서 온몸으로 알아차리는 명상을 한다. 즉 오감의 문으로 들어오는 발바닥의 촉감, 시각의 대상, 귀로 듣는 소리들, 후각을 자극하는 냄새, 차 마실 때 느껴지는 미각 등 감각을 알아차리는 걷기명상을 한다.

가만히 서서 눈으로 산의 능선, 나뭇가지, 바위 등을 보고 의식을 가장 먼 곳에 걸쳐두면서 무분별의 영역을 넓히자. 의식의 공간을 넓혀두면 걸을 때 온몸을 거울같이 보는 힘이 좋아지고, 오감의 문으로 들어오는 감각을 알아차리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몸이 가벼워진다.

쉬는 시간에 차 마실 때는 혀에서 일어나는 미각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찻물이 뱃속으로 들어갈 때 차 맛을 느낄 수 없음을 알아차리자. 뱃속에는 차 맛을 아는 주체적인 자아가 없다는 무아의 이치를 알아차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알아차림의 영역을 넓히고, 거울 같이 비추는 것은 무분별을 확장시키는 방편이다. 의식의 공간이 넓어지면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상호의존과 불이(不二)인 평등의 이치를 분명하게 아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다.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5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 개강일시 :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달전사 (경남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 수 강 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① 사십구재의식 이론 및 실기
  ② 사물 다루는 법
  ③ 바라 및 착복무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 교재비 별도 >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055) 587-8419**

사) 대 한 불 교 불 음 원
원장 원명 합장

해동의 사주혁명

"자연명리로 사주의 정체를 밝히다"

무료 공개 특강 :
18년 8월 23일, 30일(목) 14:00

자연명리는 자연생태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명리를 연구하면서 깨닫고 발견한 이론



◇ 자연명리 : 초급편



◇ 사주의 함정

| 신지평 | 2018-06-22

저자 **윤상흠** ('자연명리' 이론 창시자)

現)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명리학 교수
現)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명리학 강의
現) 원광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명리학 교수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02) 929-4646, 010-8902-4640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5번 출구 (사잇길 80미터)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의생나 **효모밥죽순 콩단백 조직 콩고기**

몸 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밥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158 (오류동) 블루텍공존 3층 312호 ㈜샘나
농 협 301-0222-8806-71 [예금주 : ㈜ 샘나]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 샘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수복암
- 법 명 : 서현
- 주 소 : 충북 음성군 소이면 한벌길 81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네 마음을 네가 발견해서 깨달아서 자유스럽게 살라!

칠석과 백중의 둘 아닌 도리

질문 칠석 관련 큰스님의 법문 중에서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조상님들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법문을 보면서 단지 정성금을 올리고 등을 밝히기만 하면 조상님이 좋아지실 거라는 막연한 저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내 마음 밝히는 일이 바로 조상님들이 더불어 벗어나는 길임을 진실하게 믿고 이 마음공부의 길에서 완성을 이루어야겠다는 발원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칠석과 백중의 둘 아닌 도리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표현을 하자면, 서천궁은 바로 내 마음 깊은 속을 말합니다. 잠재의식으로서의 깊이 들어간 그 속을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불성 자리, 움죽거리지 않는 거기까지 말입니다. 그게 서천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내서 움죽거리는 이 세상은 예를 들어서 동천의 아촉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내는 겁니다. 요렇게 간편하게 우리가 그 뜻을 알려면, 마음 깊은 속이 서천궁이다 한다면 바로 마음을 내는 것은 우리가 불을 켜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그걸 인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불을 켜기까지 재료를 다 해서 자리가 딱 잡혀야, 한생각을 내는 게 바로 불을 그어 대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라이터가 준비가 돼야 여러분이 탁 불을 켤 수 있고 한 찰나에 불을 댕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대비가 되지 않는다면 한 찰나에 불을 댕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촛대라고 본다면 바로 불을 댕기는 그 생각은, 우리가 촛대를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주인공 자체를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불을 탁 켤 때에 불이 확 가서 붙는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칠석과 백중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중이 서천궁이라 한다면 칠석은 동천에 불을 댕기는, 즉 해가 뜨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인생이 태어남을 말하고 인생이 죽어 감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알면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대로 우리가 여여함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천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천에 불을 켤 수가 있는, 인등을 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불을 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나올 때는 바로 불을 켜 들고 나올 수 있게끔 돼 있고, 또 죽어갈 때는 바로 그 초가 완전히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 초를 장만하고 마련을 하기 위해서 서천궁으로 가는 거고 또는 불을 켜기 위해서 동천으로 온다 이겁니다. 이렇다면 불을 켜기 위해서 오는 것은 칠석이고, 불을 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바로 서천궁, 백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서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제자리를 굳건히 다지지 못한 채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상도 그렇고 여러분을 다 한마음으로 공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백중이 생긴 것이고 칠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칠석에는 그렇게 공덕을 한마음으로 모아서 백중에 정성을 들일 수 있게끔 우리가 불을 켜고 자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칠석이 부모 조상들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죽은 조상의 마음이나 산 조상의 마음이나 둘이 아닙니다. 몸만 없어졌을 뿐이지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차원도 그대로죠. 산 사람들도 그 마음의 차원은 그대로요, 마음을 내기 이전도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불을 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초를 만들어 놓고 성냥불을 그어 댈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불을 댕기는 것도 한순간에 불을 댕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칠석입니다. 그 불을 댕길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은 지금 불을, 우리가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불을 아무 때라도, 생각을 한데 합쳐서 불을, 아무 때라도 생각을 하면 그냥 불이 댕겨지도록 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공부를 하신다면 백중에도 조상들의 마음이나 산 사람의 마음이나 둘이 아니어서 그렇게 공 도리를 완전히 한마음으로서 이끌어 나가면서 중심을 딱 세우고 촛대를 세우고 불을 켜게끔 딱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마음의 자가발전소에 불을 댕기는, 한생각에 그대로 불이 댕겨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칠석에는 산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댕기고 백중에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그 바탕을 세우고 중심을 세워서 주장자를 세워 놓으면, 동천에 와서 금방 불을 켤 수가 있으니까, 살아나올 때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상을 위해서 하는 것도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도 되고 부모나 자식, 아내나 남편, 친지 형제들을 다 위해서 한마음으로서 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저 한생각에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신 그 자체, 또는 가지고 돌아가고 가지고 괴로움을 받고 이러는 그 재료를 가지고 모든 걸 여러분의 한생각에, 인등의 불에 한생각이면 모든 것이 다 태워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실험하기 위해서도 칠석과 백중을 지내면서, 재료를 가져오신 것을 실험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성냥을 탁 그어 대서 불이 일어나서 그 모두를 무너뜨리고 태워 버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살아나가는 가정과 앞길에 환하게 길이 인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칠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산 사람들의 마음의 인등을 켜는 날입니다. 우리가 백중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인등을 켜기 때문에, 자식들이 인등을 켜기 때문에 그 인등의 불이 백중에 촛대를 해 놓은 데 가서 불이 붙으면 영가님들께서 좋은 데로 천도가 되기 때문에 백중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백중 날 여러분이 촛불에 댕길 수 있는 불을 켜서 영가님들의 마음에까지 불이 들어올 수 있어야만 영가 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 촛대에 불을 켜지 못한다면 어떻게 조상님들의 촛대의 불이 켜지겠습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이어진, 연결된 둘 아닌 도리입니다. 이 도리는 칠석과 백중과 연결이 돼 있는 둘이 아닌 그런 뜻입니다. 그걸 가깝게 본다면 자기 깊숙한 마음 내기 이전과 또는 깊숙한 마음속에서 촛대에 불이 댕겨지는 것과 현실의 불이 댕겨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고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다 밝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죠. 지나가다 지나오다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불을 밝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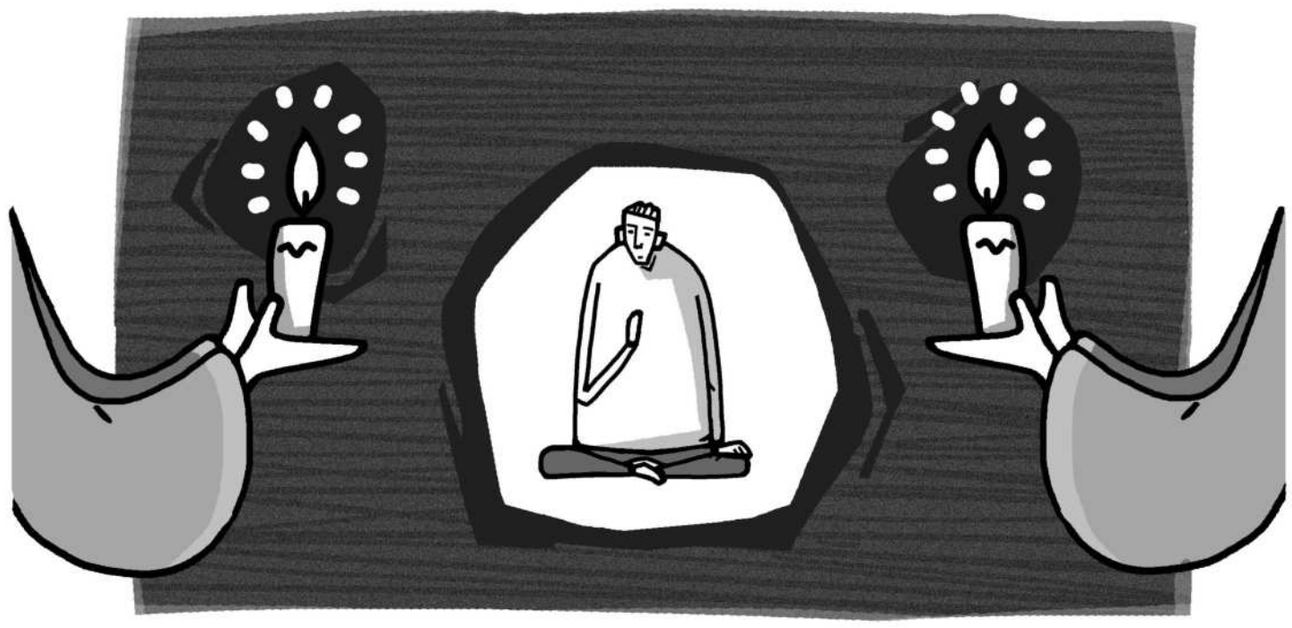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관(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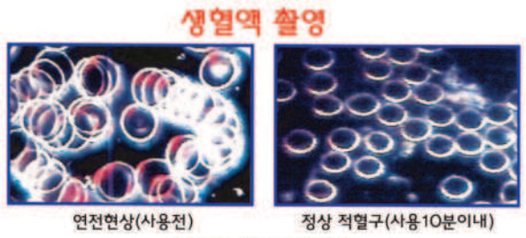
질문 저는 소원을 비는 것과 한마음 관(觀)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사찰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원을 할 때 원하는 게 한마음을 관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견으로 볼 때에. 그래서 안 될 때는 그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고, 요즈음 절에 가면 입시철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또 소원을 빕니다. 스님들께서 시켜서 하는데, 그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안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본래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은 그게 아닙니다. 상대를 보고 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형상과 내 형상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그 뜻도 또한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처님이 내 몸과 둘이 아니고 마음이 둘이 아니라면 해 달라고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네 마음을 먼저 알아야 내 마음을 알 수 있느니라. 그럼으로써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둘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는 "만약에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전깃줄이라면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데 합치면 불이 들어올 뿐이지 거기서 '해 달라, 안 해 달라' 이

☞ A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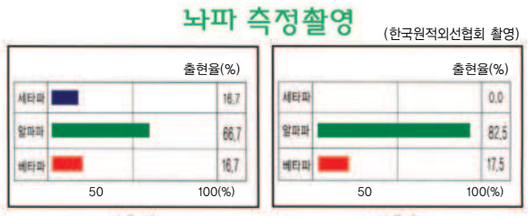
BLOOD MATE® 비누 한 번으로 혈액 건강! 세포 건강!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한국원적외선협회 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CS137(세슘)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98.7%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효과 :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복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된 일본정부의 예산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항균 93%가 아토피,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80%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지구상의 전 인류는 양치 후 뱉어내고, 구강 건강에 별도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ORAL MATE로 양치 후 뱉지않고 먹었는데 30년 묶은 치질, 혈변이 사라졌다!!

ORAL MATE를 개발한 41년생 남자인 본인은 ORAL MATE로 양치후 뱉지 않고 삼키면 구강건강(모든 잇몸질환) 은 기본이고 93%의 항균력과 80%의 탈취력이 위와 장을 청소하므로 배탈, 설사, 변비 한번없었고 속이 거북할 때나 과음시에는 소화제나 술 깨는 약을 먹은 것보다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구취가 나지 않고 변이나 방귀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변이 뜨는, 4년간의 체험담을 공개 합니다.

구강은 건강하게 치아는 튼튼하게

ORAL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89.7%

GERMANIUM & SELENIUM

ORAL MATE® 기능 효과 93%의 항균력, 80%의 탈취력

- 음이온과 온열을 피부 속 깊이 전달하여 매끄럽고 탄력 있는 잇몸 유지
- 음이온과 원적외선 상호 작용으로 피부 노폐물 방출로 구강 건강 유지
- 세포를 활성화 시키고 면역을 증강 시킨다. 잇몸 질환 예방
- 수중에서 다량의 용존 산소를 발산하며 물 분자를 활성화 하여 청결한 구강
- 각종 균의 정균 작용과 살균, 악취 제거 탁월. 충치 예방과 입냄새 제거
- 잇몸에 붙어 있는 각종 중금속, 유기물질, 독성물질 등을 흡착/분해한다. 깨끗한 치아
- 체감 온도를 5℃ 이상 향상시키며 제반 독소 효과적 제거

위의 내용 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사람이 살고 죽는 데서 벗어나는 길은 이 길밖에는 없다

☞ A17면에서 계속

런 게 붙지 않느니라.”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복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부처님이 가르치실 때는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네 마음을 네가 발견해서 깨달아서 자유스럽게 살라. 일체가 다 공해서 돌아가느니라. 그리고 일체가 너 아님이 없느니라. 일체가 높고 낮음이 없느니라. 그런데 누구한테다가 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마음 가운데도 도량이 있고 부처가 있고 법이 있고 그런데 어디에다가 해 달라고 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런다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물론 농사를 지어서 벼를 다 추려서 까서 키질을 해서 밥을 지어서 먹어야 먹어지는 거지마는, 그거는 한 씨앗에서 그 모든 경계를 거쳐 나오는 것뿐이지 결과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갖다가 붙이면 붙어지고 불이 들어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시 기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애고가 있고 그래서 기도드리는 것도 있는데, 기도드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자성이 다 있으니까 그 자성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이 정신계 50%를 알고 물질계 50%로 나오게 해서 내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다, 학교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다 이럴 때, ‘생각을 했다’ 할 때는 벌써 나는 시험을 봐야 하고 또는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하니까 설계도가 나와야 합니다. 설계도가 나오면 집이 올라갑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마음을 내지 않고 어디에다 해 달라고 자꾸 기도만 한다면, 그러는 것도 마음 내는 거지만, 그거는 쪽박에 물 한 모금 얻어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는 복을 비는 건데, 이건 내 생각입니다만 복을 좀 얻어 쓸 수야 있겠지마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타개하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명석해질 수도 없고, 물리가 터질 수도 없고, 항상 얻어먹는 노예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런 데를 다니면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도 관하는 법을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줘라.” 그러는 겁니다. 자기만이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켤 수 있는 거니까요. 자기만이 할 수 있지 누가 해 줄 수 있습니까? 시험을 봐 주는 겁니까, 신(神)이 있어서? 신이 와서 나를 시험을 보게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신(自己神)이,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나가는 거니까 어리석게 그렇게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입시 때 축원문에 대해서

질문 저는 입시 때 축원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시 전에 축원을 올리는데, 축원을 스님들께 올리는 거하고요, 또 정성금을 불전함에 넣고 스스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그거는 스님네들더러 해 달라기보다는, 내가 스님네들더러 해 달라면 의존하는 거죠. ‘저 스님네들이 오죽 잘해 주랴.’ 하고 말입니다. 안 그래요? 한 달을 무슨 축원문을 찾아 가지고 외워 준다거나 이런 거, 내 근본은 아예 팽기치고 스님만을 바라보고 모두 한다고 그런다면 다 헛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다 헛거는 아니겠지만, 한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적든 많든 정성금을 갖다가 놓고 정성을 들일 때 그 한마음으로 모든 스님네들, 큰스님이나 작은 스님이나 또는 자기나 자기 아들이나 모든 일체제불의 마음이나 모든 걸 한데 합친 게 주인공이라 그랬어요. ‘주인공, 너만이 꼭 이룰 수가 있고 침착하게 시험 보게 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하고 아주 지극하게, 자기 일이니깐 자기가 얼마나 침착하게 잘하겠습니까? 그게 제일이지, 벌써 한 다리 걸러 가면 손등이 돼. (손등을 짚어 보이시며)

그러니까 침착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정성스러울 수가 없고. 그러니깐 본인들이 하란 얘깁니다, 본인들이. 자기가 농사 지어서 자기가 먹을 수 있고 자기가 물을 퍼 먹으면 샘물을 그냥 풍풍 퍼 먹을 수 있는데, 목마르지 않도록. 아, 그런데 남한테 퍼 달라고 한다면 그거 목마른 걸 기다려야 하고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한마음은 본래 돼 있다니깐! 요 묘법을 가르치기가 참 어렵군요.

죽고 사는 것을 벗어나려면

질문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하던 저의 친구가 그리 많지도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떠나가는 그 친구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지만 동서고금을 통해서 생사를 넘어서는 길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을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이 시대는 뭐든지 공중에서 탐지하고 공중으로 정보를 보내게끔 되어 있는 그런 급박한 시대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이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참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무나 급박한 세월 속에서 수천 년, 수만 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또 이름도 없이 말려서 여기에서 태어나고 저기에서 태어나고, 차원이 낮게 나고 차원이 높게 나고, 항상 몸을 받아 나와서 그렇게 애를 써야만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부처님 되는 것이 십중팔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를 부처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이 부처를 만드는 것이지 허공에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형상에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세워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한도반으로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드릴 뿐입니다. 그 맛을 아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그 맛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도 사람이 살고 죽는 데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길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여러분 중심이 촛대라고 본다면 바로 불을 댕기는 그 생각은,**
> **우리가 촛대를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주인공 자체를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 **불을 탁 켤 때에 불이 확 가서 붙는다는 말입니다.**

살고 죽는 데서 벗어나야만 하는 일은 우리들한테 너무나 큰일이며 너무나도 타당한 일이라서 게을리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닦아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또 속임을 받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일 뿐이지 누가 속인다 또 안 속인다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귀를 꼭꼭 막고서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는 안 들릴 겁니다. 또 그 귀 막은 것을 떼고서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다 듣게 됩니다. 역시 눈도 그렇습니다. 일체 만물과 이 세상…, 아니, 보물이 수두룩히 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을 감고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눈을 뜨고 볼 때는 보이듯이,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그 도리도 모르거니와 우리가 그렇게 진기한 문제를 터득할 수도 없고 내가 나를 발견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반면에 허망한 물질적인 문제들만 가지고 싸우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삼독을 빼버리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쁜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항상 자기 내공에 모든 것을, 일체 들이고 내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이니 그 생활을 바로 자기 내공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믿지 않는다면 놓지를 못하고 또 놓지를 못하면 편안치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활에서 얼마나 쪼달리고 방황하고 그렇게 애를 써야만 합니까? 한 번 와서 머물렀다가 그냥 가는 길에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잠시 잠깐 머무르는 동안에 이렇게도 한세상 저렇게도 한세상 사는 것이지만 억겁 동안 말리느니, 억겁 동안 그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를 쓰느니 한세상 머물렀다 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터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벗어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모두들 물질에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물질을 쓰되 하나도 씀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서 느끼셔야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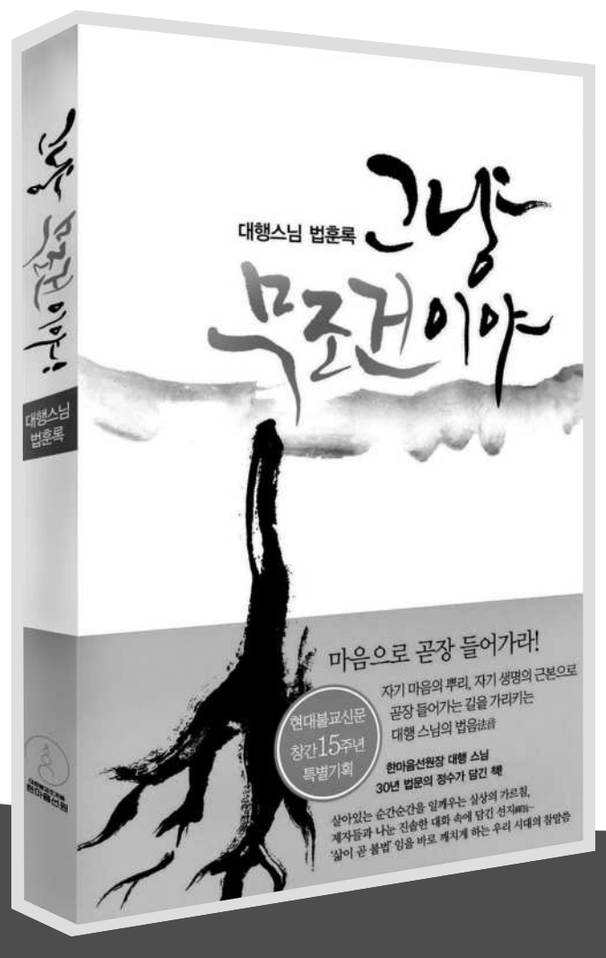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날 때에 누구나가 다,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자기가 형성시켜서 자기가 난 겁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형성시켜서 났으니까 바깥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바깥에서 구하려고 애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바깥의 형상을 보고 남의 일에 참견도 하지 마시고 오로지 나한테 인연이 있어서 닿는 일은 모든 것을 나한테, 그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한테 말할 게 아니라 바로 내공에다가 믿고 놓고, 거기에서 굴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크나큰 일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 ‘이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나?’ 하지마는 그렇게 섣불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생활에서도 하나하나 말을 하지 않고 한생각을 먼저,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한생각이 벌써 건너고 나면은 그 마음이 내 마음과 둘이 아니어서, 내 몸뚱이 움죽거려서 거길 갔을 때에는 이미 마음이 한마음으로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다 같아지니 이 육신도 같이 참 좋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이 법이 일상생활에 쓰여진다는 것을 역력히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바로 그것이 화두가 되고 그것이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를 만들 수 있는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몸은 법당이 되고 네 마음은 바로 법신이 되는 것이고 마음내기 이전은 바로 부처니라. 그러니 그 삼합(三合)이 공존해서 아들이 아버지로 가면은, 즉 말하자면 생각을 내지 않으면 아버지로 하나가 돼 버리고, 생각을 내면은 아들로 하나가 돼 버리고 그러니 그것은 무슨 연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생각을 내는 것도 생명의 불성이 있으니까 생각을 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바깥에서 자꾸 찾는 그러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비유해서 한번 말씀드리죠. 줄창 내가 얘기하지만 작년 콩씨를 올해 심어서 콩 싹이 났습니다. 콩 싹이 자라서 콩이 열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콩나무는 자기 콩나무에서 콩씨가 열린 거는 생각 안 하고 작년에 심은 그 콩씨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나기 이전을 찾으라니까 그만 바깥에서, 작년에 밭에 심었던 그 콩씨를 찾느라고 헤매고 돕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를 꽁꽁 막고선 냄새를 맡으려고 해 보십시오. 냄새 맡아지나? 혀를 끊고서 말을 하려고 해 보십시오. 말이 되나?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야 마음의 진가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진가를 맛보았어도 맛본 그것을 또 안으로 굴려서 체험을 하면서 자꾸자꾸 지혜를 넓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으면은 깨달았다는 말 할 필요가 없이 안으로 굴리고 굴려서 또 지혜를 넓히고…. 지혜를 넓혀서 또 온 바다를 만드는 거와 같이 내 마음이 온 누리 어느 곳곳에 닿지 않는 데가 없이 됐을 때에, 여러분과 내가 둘이 아니게 끔 됐을 때에 일체 만물, 무정물이나 모든 생물, 물에 있는 고기와 대화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저런 풀잎하고도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 풀잎들이 다 말을 해 주고 ‘이것은 당신의 약이 되는 거’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기도 합디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있든 없든 내 성의껏 시주를 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과거의 빚을 갚으면서 미래의 덕을 쌓으면서 우리는 현실의 공부를 하자 이겁니다. 현실의 공부를 할 때 영원한 오늘, 영원한 오늘을 안다면은 영원한 오늘도 벗어날 것입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나 하나도 바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지까지가 어려운가 하면은 어렵지도 않고, 어렵지 않은가 하면 어렵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이 가다 보면 다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마음을 여미고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폭염과 한국불교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올해 역대 폭염 기록에 모두 허둥지둥
남북관계 · 경제상황, 꽉 막힌 소식뿐

조계종 상황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탐진치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
수행자의 자세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작금 상황, 한국불교가 만들어낸 공업
현 사태가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길
폭염도 가고 시원한 가을이 오고 있다

더위가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다. 우리 선조들은 더위보다 추위를 무서워했다. "춥고 배고프다"라는 말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어귀였다.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여간 지속되고 있는 폭염의 쓰나미 앞에 모두 허둥지둥이다.

8월 15일까지 폭염 피해의 발표를 보면 그 규모가 매우 크다. 온열질환 사망자는 모두 48명으로 역대 최다이다. 농산물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돼지, 닭 등 가축 457만 마리가 폐사되었고, 양식장의 피해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한다. 사람의 먹이로 키워졌다가 더위에 죽어가는 축생과 물고기들의 시신을 보면 이 업을 어이할꼬 하는 한탄이 저절로 나온다.

그런데 이 폭염을 피할 시원한 그늘이 없으니 이를 어쩌랴.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시원하게 뚫릴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순진한 기대였던가를 알게 되었다. 또한 자영업자는 장사 못하겠다고 한탄이고, 청년 실업의 문제는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다. 노후를 보장할 국민연금도 불안하다고 한다. 다 이렇게 꽉 막힌 소식뿐이니 이 더위에 더욱 숨이 막힌다. 그러나 이 무엇보다도 불교인들을 숨 막히게 하는 것이 있으니 조계종단의 내분과 혼란이다.

조계종단의 내분과 혼란은 붓다의 제자들을 실망케 하고, 분노케 하고 그리고 슬프게 만든다. 붓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 같이 보인다. 붓다 가르침의 핵심은 탐진치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탐진치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리라.

붓다 재세 시의 승가 집단에서도 탐진치로 인한 승가내의 여러 문제로 붓다의 고뇌하는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는 내용이 많다. 그래서 치열한 수행을 하는 것이다. 탐진치의 고해 바다에서 침몰되지 않으려고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단의 다툼에 수행자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종단의 현장을 보고 있는 많은 수행자와 재가불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다. 심산 사찰에서 하안거하는 많은 수행 스님들,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고군분투하시는 전법 스님들, 붓다의 가르침을 만난 기쁨에 환희하는 많은 재가불자들. 이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울까?

불교의 업사상에 공업(共業)이 있다. 공업은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 집단내의 구성원에게 공통하는 업이다. 오늘의 조계종 문제는 개인의 차원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제도, 그리고 관습에서 유래된 문제에서 출발되었다고 본다. 즉, 오늘의 한국불교가 만든 공업에서 나온 것이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에서 나오는 구절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를 상기해 본다. 오늘 조계종단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은 한국 불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소쩍새의 피나는 울음이 되기를 바란다.

21세기 지구별은 지구인들이 지은 공업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이번 여름에 겪고 있는 고통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지구인의 공업의 결과다.

이러한 지구별의 위기 속에서 붓다의 진리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세계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의 사명도 커지고 있다.

이번 종단 사태가 한국불교가 새롭게 재탄생되는 촛불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그렇게 되면 그까짓 폭염이야 얼마든 견딜 것이다. 이제 폭염이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오고 있다.

社說

청정 선거로 위기를 넘자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8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임을 내려놓고 산중으로 돌아갔다. 취임일인 지난해 11월 1일부터 294일만이다.

설정 스님은 사퇴 의사를 밝히며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 인준이라는 불명예만은 피하려 했으나, 8월 22일 법적 다툼 예방을 목적으로 원로회의는 불신임을 인준했다.

결국 설정 스님은 불신임이 인준된 첫 총무원장으로 종단사에 기록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총무원장 대행체제로 접어들었다. 총무원과 중앙종회는 혼란스러운 현 정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무원장 대행을 맡은 진우 스님이 담화문을 발표했으며, 중앙종회는 9월 6일 임시회를 개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총무원장 선거일자를 9월 28일로 확정지었다.

이제 조계종은 선거를 통해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현 간선제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정 진제 스님이 교시를 통해 현재 종헌종법 내에서 차기 원장을 선출할 것을 당부한 만큼 종도들은 이에 응해야 한다.

한국불교는 현재 위기다. 불자 수 감소뿐만 아니라 지난 3개월여 동안 불교와 대표종단 조계종의 위상은 바닥을 쳤다. 이제는 구태인 '프레임' 정쟁은 의미가 없다. 감정싸움과 비방은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거 때마다 불거진 금품살포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국불교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조금만 실수하면 대중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올바르고 청정한 선거로 새롭게 종단을 이끌 인재가 선출되길 바란다.

참선 대중화에 거는 포교 '기대'

불교계가 10년간 잃어버린 300만 불자를 되찾기 위해 한국불교 대표 수행법인 '참선' 대중화에 나선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사)한국참선지도자협회는 내달부터 일반인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제1기 참선아카데미 대강좌'를 운영키로 했으며, 제주 원명선원은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참선 수행체험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참선이 갖는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명상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져만 가는 요즘, 참선이 불교사상과 수행의 요체를 대중에게 얼마큼 잘 전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현재 전 세계에는 소위 명상 열풍이 불고 있다.

미국 오프라인 명상 시장의 경제적 규모는 1조30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제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대표적 명상앱 '헤드스페이스(Headspace)' 매출액은 약 500억 원, 기업가치는 25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마음챙김 앱인 '마보' 또한 상용화 단계에 성공적으로 접어들었다.

이처럼 명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지만 불교계로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명상시장의 확대가 '종교색 배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만으로도 불교의 정수를 전파하고, 개개인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불교계가 참선 대중화에 나선 일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참선이 대부분 치유와 마음챙김 목적으로 활용되는 명상을 넘어 사성제와 팔정도를 체험하게 해 '완전한 내려놓음'으로 대중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기자칼럼

불교계 호스피스 상담 확대 필요

노덕현 취재부 기자

사전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6개월 차를 맞았다. 6개월간 전국에서 4만3000여 명, 서울지역에서 2만5000여 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사전에 신청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제각각이다. 이중 불치병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한 연명치료로 생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법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0월부터 생전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 연명의료계획서를 받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한데 이어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사전 연명의료 중단은 호스피스 의향을 밝힌 것과 같다. 호스피스 관계자들은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런 병마로 연명치료를 받게 되면 이를 중단하는 결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 의사가 없을 시 가족 등 세상에 남은 사람들에게 결정의 책임이 넘어가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전국에서 4만3000여 명이 신청하고 지금도 폭발적으로 신청자가 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증한다.

이런 가운데 정작 불교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전문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작성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현재 86개가 운영 중으로 등록기관 유병별로는 의료기관 46곳, 복지재단 등 민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0곳, 고창군보건소를 포함한 지역 보건의료기관 19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이들 중 불교계 기관은 단 3곳에 불과하다. 등록기관이 소수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불교계 등록기관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접근성은 떨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 사전연명의료계획서 등록기관인 불교여성개발원은 8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5월 2월 상담사 등록 사전교육을 진행했고, 17명의 상담사가 등록해 활동, 총 133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상담사 교육 후 등록을 통해 늦게 상담과 접수를 받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서울지역 2만5000여 명의 등록 수준에 보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진다.

상담과정에서 불교계 기관에서 상담 후 등록을 결정하면 자연스럽게 불교 호스피스에 대한 사전 신청이 늘 수 밖에 없다. 임종을 앞둔 불자들에게 불교사상에 근간한 웰다잉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또 남은 불자가족들에게 불교적 삶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불교계 기관들의 활발한 동참이 필요하다.

불교계에는 장기기증기관인 생명나눔실천본부, 공익법인인 아름다운동행 등 많은 유관기관들이 있으며 동국대 병원 등 종립병원 또한 있다. 기존 불교계 사전연명의료계획서 등록기관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유관 기관과의 협력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이제는 죽음, 특히 웰다잉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어느 종교보다도 생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은 불교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충 청 지 사 : (042)631-7747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귀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도인은 범상한 말을 하지 않고 범상한 행을 할 뿐이다.



오늘도 불자들은 소문만 무성한 인기몰이에 휩쓸려 TV나 언론매체에서 알려진 그들, 앵무새들의 말 잔치에 무슨 법문을 어떻게 하나?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있다. 어느 절 ○○스님이, ○○법사가 하면서 말 잔치에 놀아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말 잘하는 이는 아이, 어른할 것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말문 터서 입으로 성불하라고 경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입은 굳게 다물고, 실천(행)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오래전에 한평생 주지 한번 안 하시고, 어떤 명예나 권력도 마다하며, 오직 옷 한 벌로 평생 우리들 곁에 있다가 가신 ○○큰스님의 법문이 지금의 전 불교 교단에 꼭 필요한 충고가 아닌가 싶어 이지면을 빌어 알리고자 한다.

큰 스님께서 일본 유학 중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일본의 서예가 중에서도 제일인자라 인정받는 서예가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 서예가의 시연을 보고자 대 광장에 몰려들었다.

붓을 들기 전 이미 행사장 가운데에는 화선지 두 장이 놓여있었고 행사를 진행하기 전 그를 소개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환호가 있자 그에 대한 답례로 간단한 인사말과 짧은 연설을 하자 그 큰 광장의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그가 화선지 앞으로 나아가 붓을 들고는 그의 필법으로 그려 나가는 것이었다. 그때 썼던 글이 콩 두(豆)자를 썼고, 그것을 행사 진행자가 다시 한번 들고 소개하자 그 분위기는 더욱 축제 분위기였다고 한다. 역시 최고의 서예가답다고 하면서 환호 속에 젖어 있을 때 무대 한쪽에서 어느 초라한 농부가 당나귀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 장면을 어느 누구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농부가 화선지 가까이 와서 콩 한 알을 화선지 가운데 놓자마자 그 당나귀는 그 유명한 서예가의 혼이 담긴 콩 두 자가 그려진 그 화선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 콩을 먹어버리고는 유유히 뒤도 안돌아보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 법문을 들으면서 농선쌍수(農禪雙修)를 주창하신 4조 도신 선사와 백장해회 선사가 얼마나 위대한 대 선지식이고, 대선사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불교는 말과 글이 아닌 실천을 통한 행이란 것을...**

오늘날 앉아서 입으로 도통했다고 떠들고 있는 그들을 보면 한심스럽다. 옛말에 어린아이들은 말을 배우고, 어른들은 행을 보고 배운다 했는데 오늘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말만 하지 행을 하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

본 절에 오시는 분이 "스님, TV나 유튜브에 조현병 환자에 관해 질문 답변하는 거 보셨느냐?"고 하길래 "왜 그러느냐?"고 묻자 "어쨌든 꼭 보세요." 하면서 인터넷을 틀어 주는 것이다. 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하나는 공영방송에서, 하나는 ○○명상 대전이라는 큰 프로그램이었다. 지금도 인터넷에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 질문자가 조현병 환자를 만났거나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질문하니 "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답변과 또 한쪽은 정념을 갖고 있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참회와 병원 약물치료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법화경과 약사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또 쇄수게에 등장하는 그것은 무엇인지? 분명한 것은 **부처님은 위대한 의사**라 했거늘 그분의 제자들이 하는 소리란... 할 말이 없다. 그것도 언론매체 앞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대부분 환우들이 자기의 본성을 잃고 내가 아닌 타의 절대자의 명령에 따라 자기인양 움직이고 말하다가 결국에는 대개 자살로 이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지극히 정상인한테 얘기할 수 있는 참회가 어떻고.... 팔정도 중에 정념이 어떻고.... 이게 위대하신 부처님의 자가 할 소리인가? **의사의 본분은 공부한 대로 실습하고 실행하며 현장 상황을 잘 살펴서 명석한 판단력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시술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한 다음 세상에 내보낼 때 시술한 의사로써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조목조목 일러줄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는 흰히 그를 들여다보고 있기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말은 유창하게 하는데 시술 능력이 없으면 그는 의사가 아니다.**

또 요즈음 절집에 고령화된 이들이 들락거리는 것은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눈멀고 귀먹었다 해서 뭐 ○○대전 같은 것을 열어놓고,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순식간에 찰나에 이동하고, 가운데 벽이 있건 없건 찰나에 갈 수 있다고 또, ○○ 단체에서는 공중부양을 한다는데... 도대체 왜들 이러는지...

십여 년 전에 외국 기자가 인도에서 공중부양을 한다는 기인이 있다는 소문에 실제로 인도에 가서 취재한 것과 일본 지하철 독가스 사건의 주인공인 옴진리교 교주인 그가 공중부양을 한다고 선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던가? (지금도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잘 보세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비논리적인 것을 앞세워 세상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것인지...

● 조현병 (신병) 사례

몇 년 전 어느 스님으로부터 시차를 두고 편지 두 통을 받았다. 너무 아파 좀 살려달라는 것이다. 살려만 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편지이다.

그 편지 속에는 구구절절 지난 세월의 고통이 그대로 적혀있었고, 지금도 그 편지는 가지고 있다.

스님은 일찍이 출가하여 유명한 강원과 4년제 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선방도 다녔고, 때가 되어 불법을 홍포하기 위해 문화재가 있는 제법 큰 절의 주지소임을 맡고 있었다.

편지의 내용과 상담한 내용은 이렇다. 학부 시절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고, 점점 더 고통이 가해지자 큰 병원을 찾았으나 병명은 나오지 않고 진통제만 주더라는 것이다.

본인 안면을 이용해 크고 작은 절에 고통을 호소했으나 해법을 찾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고통만 가중됐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종교인을 떠나 TV나 언론매체에 이미 알려져 최고라 자칭하는 기수련 명상 등등... 을 찾았으나 시간과 돈만 탕진하고 결국 "이래서는 아니 되겠구나! 빨리 죽는 것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결국 마음을 먹었으나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더 고통만 수반되더라는 것이다.

신도들이 알까 봐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던 사이 속가의 어머니도 신병이었는데 결국 고통 속에서 죽었다는 것이고, 그 당시 상담하는 시기에 하나뿐인 여동생도 신병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상담 시 어느 절에서, 어느 수련원에서, 어느 원장이, 어느 스님이, 어느 지도 법사가 무엇을 어떻게 했고, 상세하게 묻는다. 그리고는 한 가지 약속을 한다. 그 약속을 지킬만한 의지표명이 없을 시 정법 인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외면한다.

그 약속이란 아주 간단한데 여태껏 신문에 글 썼듯이 **비불교적인 행위 (사주, 철학, 부적, 삼재풀이, 삼재기도, 물고기 방생, 성지순례, 인등, 수능 합격기도, 운맞이 기도, 재수대통 기도, 승진 기도, 만년 위패, 평생 위패, 중 생일, 고급 승용차, 고급 실크가사, 장삼, 산신, 용왕, 바위, 돌, 나무, 술, 담배 등등...)를 안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강원 졸업하고 4년제 정규대학에서 불교를 전공했는데 그 어디에도 비불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곳이 있더냐고 묻고는 다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제자들 보고 당부하는 장면은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공부했으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가르치고 행해야 할 것 아니냐고 일러주었다. 비단 그 스님에게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문에 여러 번 어필했지만, 고통을 호소하며 여기를 찾아오는 스님들 모두에게 항상 똑같은 말을 통해서 지금부터 바르게 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절대 **바르게 하면 팔부신장이 불, 보살님의 명을 받아 마구니 병 (신병, 조현병)이 얼씬도 못 하게끔 지켜준다고 했다.** 그래서 확약을 받고 그것을 실천할 때 기도를 해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 약속이란 바로 돌아가는 즉시 법당에 인등부터 끄고, 부적, 삼재, 사주, 입시기도 등등... 비불교적인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 현수막을 절 입구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라. [사주, 부적,삼재 등등... 일체 사절합니다.] 라고. 그러면 이 소승이 조만간에 시간 나는 대로 스님 절에 방문해서 그것이 걸려있으면 스님 처소에 가서 부적, 사주 책자 등... 비불교적인 것들을 일체 압수하고, 기도후 그때 날짜를 잡아주고 온다. 이때는 항상 일 부 신도님과 동행한다.

만약 현수막이 절 입구에 보이지 않을 시는 모르게 신도님만 안에 들여보내서 법당 내 인등부터 확인하고 다음에 큰 등, 작은 등이 걸려 있는지 보라하고, 인등, 큰 등, 작은 등이 없이 일률적으로 똑같다면 스님을 만나서 자녀 문제 상담 차 온 것처럼 하여 물을 때 생년월일, 시 등을 물어보면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에 오겠다고 하고 바로 나오라고 한다. 많은 스님이 아픔을 호소하며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답사해 보면 90% 이상이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스님이 확약하고 간 뒤에 그 스님의 눈을 보니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2주를 넘기기 힘 들 것 같아 주중에 절을 찾으니 절 입구에 큼지막하게 나와 약속한 것 (비불교적인 행위를 일절 안 하겠다는 것...)을 보란 듯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법당 출입문 벽에도 붙여놓고... 그때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았다. 스님 처소에 가서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하며 대단한 결심을 한 것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때 스님이 인등 얘기를 꺼내는데... "인등비를 다달이 낸 이가 있고, 대부분 몇 달 내지는 년 회비를 낸 이도 있으니 인등만은 어찌해야 하느냐고?" 하길래 "그럼 낸 날 까지만 인등을 켜고 그 이후 것은 받지 마세요." 하니 "예"하며 환하게 웃는 것이다. 바로 즉석에서 기도하고는 "이 기도로 2~3일은 아프지 않을 테니 바로 와서 기도 받으시오." 하고 일러주고는 돌아왔다. 그리고 그 스님은 이틀 후에 와서 새벽에 신도님들 보는 데서 기도 받고 보냈다. 그런데 간줄 알았는데 저녁 나절에 찾아와 하는 말이 "낼 아침 한 번만 더 기도 받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그냥 가도 괜찮다고 해 도 계속 한 번 더 기도 받고 싶다고 간청을 했다. "왜 가지 않고 왔냐?"고 하니 지리산에 있는 강원 도반 스님도 만날 겸... 여기 본 소승이 상담 중 나도 때가 되면 토굴로 돌아갈 거라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도반도 만나고 도반이 소개하는 토굴을 가본 후 주소를 가지고 온 것이었다. 그것을 답례로 스님에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돈은 수행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돈이니 세상을 향해 쓰라고 일러주며 보내면서 다시 재현될지 모르니 당분간은 1달에 1번씩은 꼭 와서 내게 눈을 보여라 하고 돌려보냈는데 6개월 후에 안부의 전화가 왔고, 1년 후에 다시 안부의 전화를 하면서 하는 말이 스님 나들이 길에 한 번만 들려 달라고, 맛있는 공양 대접하겠다고... 지금 각 사찰에서는 본 사찰이 영험한 도량이라고 선전하며 서로 경쟁 적으로 목탁을 두드리며 합격기도, 수능 고득점 기도라 해서 승, 속이 부처님 전에 우리 아들, 딸 합격시켜 달라고 합격기도 발원문에 사진까지 붙여서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이 터져라고 관세음보살을 허공에다 부르고 있다.

이것이 **최상승법을 자랑하는 불교인가?** 절에 크고, 작은 스님네와 초청받은 법사가 하는 말은 한결같이 입으로는 마음을 비우고 이웃을 향해 베푸는 자비행을 실천할 것을 수없이 얘기하면서 실제는 타인을 위한 행은 자비와 거리가 먼 오직 내 아들, 딸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이 장사꾼들의 소견과 다를 게 있겠는가? 소납은 승진 기도, 합격기도 등등... 같은 잡상인 짓은 하지 않는다. 다만 그와 같은 바람과 원이 있다면 버얼건 대낮에 절에 가지 말고 필히 장애인이 있는 곳이나, 노인 요양원 등등...을 찾아 그들을 위해 봉사를 할 때 땀도 나고, 몸이 피곤해지며, 힘이 들 것이다. 그때 지금하고 있는 자비의 행에 힘을 얻기 위해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쉼 없이 하라고 일러준다. 이럴 때 바른 행을 근본으로 하는 불자면 그 명호 한 번에 힘이 불끈불끈 솟을 것이고, 내 목적을 성취키 위해 억지로 하는 이는 그러한 체험을 못 하고 피곤함만이 더 그를 괴롭게 할 것이다. **명호를 부르더라도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입각한 자비실천을 할 때 그 효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 딸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낼 것이고, 비록 명문대학을 못 가고 지방대를 갈지라도 이 사회의 어느 조직에서나 잘 적응하며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꼭 필요로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종교에 귀의하는 목적은 부처님처럼 성품을 닦아서 인격체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이는 어느 곳에서나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신문에 글 나가고 많은 이들이 전화가 온다. 전화기를 들면 XX 욕과 또 걱정하면서도 환희심이 난다는 이등등... 그중에서 스님 그렇게 해서 절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이도 있고, 찾아오는 이도 더러 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절, 사찰, 암자는 수행자가 살아가는 처소이자 집이다. 여기는 장사꾼들이 살아가는 영업소나 기업이 아니다. 이미 공양주 월급, 부전 월급 등등... 운운하는 곳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 석가세존께서는 팔십 노구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거지의 모습으로 직접 탁발을 다니셨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공양주라니... 임제록에서 임제선사가 말씀했듯이 가사, 장삼을 입었다고 출가자가 아니다. 본체가 유혹을 전제로 하는 여우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있으면 그의 본체는 여우인지, 양인지.... 운운하는 대목이 있다. 본 수행자가 있는 처소는 지금까지 공양주나 부전을 두지 않으며, 모든 먹거리는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필요한 만큼 농사를 짓고 있다. 그리고 일부 나누고 있고, 가재도구를 비롯해 필요한 생활용품은 길거리에서 주워다 쓰고 있고, 깁고 기워서 재활용 하고 있고, 금전적인 소모는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제일 큰 목돈은 안거 때 100일 동안 쓰는 전기료와 신문에 부처님 바른 가르침인 정법을 알리기 위해 쓰는 비용이 가장 큰 부담이 된다. 금강경 말씀처럼 불제자가 불법을 쉼 없이 알려야 하는데 유독 알릴 수 있는 이 비용이 본 소승한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얼마 전 TV에 방영된 출가자들이 고급 요정, 술집, 카지노, 로비금 3억 등등...을 보면 가사, 장삼을 입은 이가 왜 저 모양인지?... 그들이 쓰는 그러한 돈의 일부만 내게 주어진다면 각 신문마다 부처님 바른 법을 알리는 데 주저치 않고 쓸 수 있을텐데... **분명한 것은 절은 수행자가 생활하는 처소이기에 여기서는 말이 필요없는 그 수행자가 비록 거지 형국이나, 당당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곳이다. 말을 배우는 곳이 아니다.** 간혹 전화하는 이나 편지하시는 이나 내왕하시는 분들이 일부 무슨 비법이 있냐면서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왕왕 있는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때마다 한결같이 경전을 바르게 공부하고 공부한 대로 바르게 실천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고개만 갸우뚱한다.

어느 철학자의 말이 생각난다. **[종교는 도덕을 근본으로 한다.]**고... 꼭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다. 유혹을 뿌리치고 바르게 하면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을 불보살님과 팔부신장의 가피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본 납자는 확신한다. 신병(조현병), 암1,2기 말고 말기 암 환자 및 시한부 환자, 희귀병 환자 등...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행위는 비불교적인 행위만 하는 그 절 아들(승)들이 대 스승이시고, 대 어버이이신 아버지(부처님)한테 밤낮으로 간청한 들 그 어버이가 그 청을 들어주겠는가? 거짓 소문만 무성할 뿐이지...

◆ 바른 정법을 알리기 위해 [가피(구원)는 있는 것인가?] 여기에 직접 사례자를 통해 질의 응답하는 자리를 마련코자 하오니 장소를 제공해 주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 기도 동참하신 일부 신도님 연락처

1) 010-2526-4365 (김 00)
2) 010-4807-6932 (박 00)
3) 010-9707-4808 (박 00)
4) 010-6786-7495 (윤 00)
5) 010-3143-5302 (선현)
6) 010-9411-5302 (법혜)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내)
TEL. 055)633-6555



캣츠킬 국립공원 내 자리한 젠마운틴 사원은 자연속에서의 조화로운 삶을 미국인들에게 전하는 곳이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수행 프로그램이 특징으로 눈길을 끌었다. 사진은 예배당을 개조한 본관 건물과 이곳으로 걸어가는 답사단의 모습이다.

대자연 · 禪 조화된 미국형 수행공동체

특집기획

세계는 명상시대, 한국 禪이 연다

① 미국 불교명상의 현재는?

② 美 명상센터 현장 – 젠마운틴사원

③ 美 명상센터 현장 – 블루클리프사원

④ 美 명상센터 현장 – 개리슨인스티튜트

⑤ 美 명상센터 현장 – 레이크샤린

⑥ 세계 명상 현주소와 禪명상 방향

⑦ 걸음마 뗀 한국 禪명상 과제는?

⑧ 불교명상 'GURU'에게 듣다

뉴욕=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미국에서도 선불교 수행, 그리고 선 수행으로 공동체를 일군 곳이 있을까. 번잡한 뉴욕 인근에서 이른 공동체를 찾을 수 있을까. 둘째 날 첫 답사로 방문한 젠마운틴 사원은 이런 궁금증에 시원한 해답이 됐다.

뉴욕시 중심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캣츠킬 국립공원의 트렘퍼 산에 들어서자 데이터 통신조차 두절됐다. 몇 시간 만에 두절된 스마트폰에 당혹감을 감추기도 잠시, 곧? 젠마운틴 사원이 나타났다. 물론 내비게이션 조차 통신이 두절되자 오작동을 일으켜 헤매긴 했지만…….

트렘퍼 산 250에이커에 달하는 고즈넉한 곳에 자리한 젠마운틴 사원은 존 다이도 루리 선사가 설립한 곳으로 임제종과 조동종의 전통을 잇고 있는 곳이었다.

자연과 어우러진 고요한 수행처

젠마운틴 사원의 특징은 대자연 속에 있었다는 점이다. 설립자인 루리 선사는 불교에 입문하기 전 사진작가였다. 루리 선사는 자연풍경을 주로 찍던 사진작가로 1970년대 초 선불교를 접했다. 1976년 마에즈미 선사 밑에서 정진, 1987년 일본에서 정식으로 수계를 받았다. 이후 1989년 젠마운틴 사원을 세운다.

특히 자연풍경을 촬영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국립공원지역 한 가운데 사원을 설립했다. 트렘퍼 산과 그 주변의 넓은 야생 보호지역으로 인해 사원은 자연 속 수행을 하는데 매우 적합해 보였다.

초기 젠마운틴 사원은 1930년대 건립된 가톨릭 베네딕트회 수도원과 와파나키 소년캠프를 개조하며 이뤄졌다. 이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캠프 중 하나였던 와파나키 캠프는 목재 프레임으로 구성된 별장을 비롯한 넓은 공간이었다.

젠마운틴 사원을 알리는 안내판을 따라가면 오래된 별장 형식의 관리동이 나오고 여기서 숲 사이로 난 길을 통과하면 넓은 정원과 예배당을 개조한 본관 역할을 하는 건물, 그리고 작은 신축건물인 행정동이 나온다.

예배당을 개조한 본관의 경우 1929년부터 1936년까지 가톨릭 사제와 노르웨이의 공예가에 의해 지어진 건물로 1995년 국가 지정 문화재로 등록됐다. 여기에는 대형 명상홀, 소규모 그룹의 명상홀 및 식당, 그리고 방문자 안내실과 8인용 숙소동 등 단체숙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직선형 디자인으로 구성된 신축건물은 사원의 행정사무소, 젠마운틴 사원의 물품을 살 수 있는 가게와 대규모 인원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홀, 개별 수행처, 독서실과 세탁실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어느 건물마다 큰 나무들이 있고, 조금만 벗어나면 숲과 계곡을 만날 수 있었다.

북쪽 진입로에는 일본 전통양식의 건물이 있는데 다도회 등이 열리는 곳이었다. 이중 예배당을 개조한 본 건물은 건물 벽에 그대로 예수상이 남아있어 이색적이었다. 비록 예배당 건물이지만 선불교 수행에는 부족함이 없어보였다. 예배를 보던 곳은 명상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종교를 초월한 듯 자연스럽게 활동했다.

젠마운틴 사원은 선원장 허가 하에 수행자들에게 암자를 제공하고 있었다. 'Mountain Hermitage', 'Dogen Hermitage' 'Tea House Hermitage' 등으로 이름 붙여진 암자서는 개별 수행도 가능했다.

또 마당 왼편으로는 채소와 마늘, 당근 등을 직접 파종해 수확할 수 있는 농장도 운영하고 있었다.



행정동을 뒤로 포행을 하는 젠마운틴 사원 수행자들.

방문 당시 안내를 맡은 고칸 선사는 "이곳에서 먹는 대부분의 음식재료를 직접 키우고 있다. 자연과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도 수행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젠마운틴 사원의 모든 음식은 채식으로 이뤄지며 전문요리사가 준비한다. 채식 또한 세 가지로 나눠 일반적인 채식주의자용, 밀가루를 섭취하지 않는 글루텐프리주의자용, 유제품까지 먹지 않는 비유제품주의자용 등으로 나뉘어 제공된다. 방문 당일에는 채식 파스타로 구성된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 밖에 젠마운틴 선원에서는 세탁기를 쓰지 않고 직접 빨래를 하고, 에어컨 및 자동온도조절 장치 등을 쓰지 않는다. 가장 자연과 동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젠마운틴 사원의 방침이었다. 자연스럽게 인터넷 통신 또한 되지 않았다. 행정사무소가 있는 신축건물에서 만이 와이파이 기능이 제공됐다.

문화체험과 어우러진 선수행

젠마운틴 사원에서는 미국인들에 맞는 몇 가지 변화도 추구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특히 루리 선사 생전에는 한국불교에서는 다소 파격적인 수행법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리 선사가 전한 선수행법은 총 8단계로 좌선과 1:1면담, 예불, 윤리 정신교육, 운력, 신체적인 연습, 예술적인 연습 그리고 학문적인 연구로 구성된다. 루리 선사는 미국인들이 불교에 대한 배경지식이 적음을 고려해 특히 6번째 단계에 꽃꽂이와 그림그리기 등을 포함한 예술 수행을 넣었다. 한국불교계에서도 스님들이 선서화를 그리곤 하지만 예술 활동 자체를 수행으로 여기진 않는 상황에서 파격적이었다. 숭산 스님이 해외에서 선불교를 가르칠 때 질문에 가능한 짧고 쉬운 단어로 핵심을 전한 것처럼 이곳에서도 미술, 문학, 꽃꽂이, 다도 등 먼저 미국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을 통해 선불교를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는 수행이 7단계에, 그리고 일을 하며 수행하는 것이 8단계에 들어 있어 재가자를 위한 수행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게 했다.

또 루리 선사의 경우 사진촬영을 함께하는 선수행을 만들었고, 명상을 하고 야생으로 직접 나가 촬영 실습을 하는 수련회를 만들기도 했다.

또 수행자들이 야생의 급류와 산악지역에서 오지 생존기술을 익히고 새벽과 저녁으로 수련회 중간 조용히 참선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었다.

현재 젠마운틴 사원은 매주 일요일 아침 일반인들, 처음 선수행을 접하는 이들도 참여 가능한 수행 프로그램과 수요일 초보자를 위한 저녁 명상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주요 수행은 좌선(zazen)으로 일요일 수행 프로그램의 경우 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우리의 찬불가 수업과 비슷한 노래 합창에 이어 11시까지 좌선이 이어진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운문종의 명교계승 선사

B5
문화
2018 월정사 전통산사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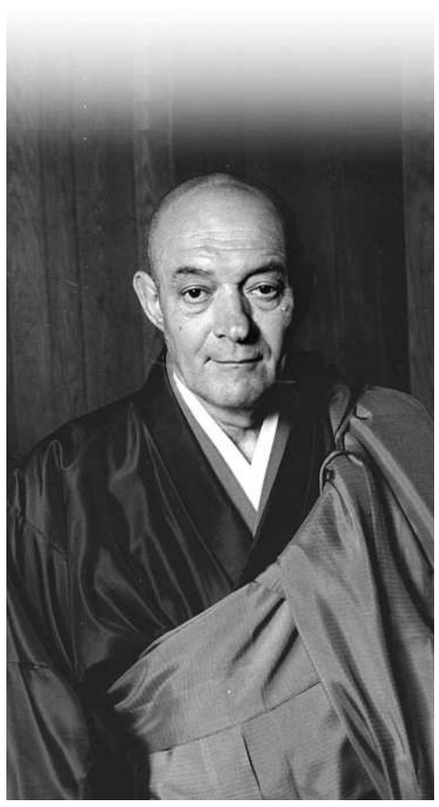
B6
학술 · 문화재
2018 가을학기 박사학위논문 〈上〉

'존 다이도 루리(John Daido Loori) 선사는?'

1931년 미국에서 태어난 존 다이도 루리 선사는 1947년부터 1952년까지 미해군에서 복무했다.

그는 다양한 종교를 탐구했고, 1971년 사진가 마이너 화이트가 주최한 워크샵에서 처음 선불교를 접했다. 이후 1976년 마에즈미 선사 밑에서 정진했다. 1080년 그는 뉴욕 인근 트렘퍼산 인근에 대규모 부지를 구입했으며 이는 젠 마운틴 사원의 근간이 됐다. 1987년 일본에서 정식으로 수계를 받고 1989년 젠마운틴 사원을 세운다.

해군에서의 경험을 활용해 자연 속에서 체험활동과 선수행을 접목했고, 사진작가로의 경험을 활용, 사진촬영 등 예술분야와 선수행을 접목했다. 또 다르마 커뮤니케이션과 마운틴 레코드의 미디어를 개발하고 다양한 서적을 발간했다. 2009년 10월 폐암으로 입적했으며 젠 마운틴 사원에 그의 부도가 있다.



존 다이도 루리(John Daido Loori) 선사



젠마운틴 사원 명상홀에서 잠시 좌선을 하는 답사단의 모습. 젠마운틴 사원은 미국 내에서 전통적인 선수행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인터넷 미디어로 소통… 한국불교 참고해야

'세계는 명상시대 한국 禪이 연다' – 젠마운틴사원

B1면에서 계속

수행자 인터넷 네트워크 구현

사이버 승가로 확대해 구성

자연체험과 선수행의 결합

선농일치 · 채식식단 '눈길'

11시부터 12시까지는 스님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행결과를 점검받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식사와 정리 등이 이뤄진다.

특별 · 전문 프로그램으로는 MRO스승으로 칭해지는 스님들에게 지도 받는 집중명상과 선휴양, 여성을 위한 특별수행, 산과 강 수행 등이 이뤄진다.

고칸 선사는 "기본적으로 좌선을 중심으로 수행을 가르치며, 수행자들이 자연 속에서 배운 수행법에 따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다른 명상센터와 차이점은 스님들이 이를 직접 지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한 전법

젠마운틴사원은 다른 미국 내 명상센터보다 훨씬 치밀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젠마운틴 사원의 공식홈페이지(https://zmm.org)에 가면 영문으로 젠마운틴 사원의 안내와 주요 수행법, 그리고 수행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프로그램 참여, 분원인 뉴욕시선센터 사이트 등이 연결된다.

지도하는 스님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비롯해 사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다른 수행자들과의 네트워크 또한 검색할 수 있다. 이른바 사이버 승가다.

이는 설립자인 루리 선사가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열린 생각을 가진데서 비롯됐다. 루리 선사는 선사의 이미지에 컴퓨터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며 애용을 마땅치 않게 여겼던 제자들의 마음을 바꿨다. 그는 사원과 분원을 사이트로 연결하고 수행에 관한 자료를 DB화했다.

그는 인터넷에 젠마운틴사원과 분원의 정보, 그리고 네트워크로 회원정보를 연결해 놓았다. 현재 젠마운틴사원은 팟캐스트 'DHARMA TALKS & MORE'을 통해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사진촬영 등을 통한 수행은 마운틴 레코드(www.mountainrecord.org)의 전문사이트를 통해 함께 공유한다.

수행이 단순히 개인의 체험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수행 내역을 공유하며 소통을 통해 출재가 수행공동체를 이뤄낸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자율과 규율 사이의 조화

젠마운틴 사원은 옷차림부터 생활양식까지 다양한 규정이 있이 있지만 그 속에서 자율을 보장하고 있었다.

먼저 옷차림의 경우 색상이 밝거나 몸에 붙지 않는 옷을 입고, 향수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통일된 복장을 강조하진 않았다. 방문 당시에도 다양한 옷차림의 수행자들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스님들과 전문수행자의 경우 검은색 승복을 입고 있었다.

또 좌선의 경우 미국인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가부좌 외에도 좌복 위에 쿠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마저도 불편한 초심자를 위해서는 좌식의자, 또는 입식의자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점심공양시간에는 오관게 등 기본적인 의식 후에는 모두가 자유롭게 식사를 했다. 넓은 풀밭에서 대화를 나누며 삼삼오오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은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원에서 거주하며 수행하는 것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상담을 통해 일요일 사원투어를 겸한 수행체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가족이 함께 하는 수행도 독려해 매년 1차례 씩 가족이 함께 동참하는 수행체험 자리를 열고 있으며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는 젠 키즈(Zen Kids)로 명명된 3~9세 아동, 젠 트윈스(Zen Tweens)로 명명된 9~13세의 아이들을 위한 수행 커뮤니티도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는 아이들이 서로 자신의 감각을 돌아보고 불교 기본 가르침을 접하도록 하고 있다.

답사 중 고칸 선사와의 대화 속에서 젠마운틴 사원의 독특한 운영 방식을 엿볼 수 있었다. 젠마운틴 사원은 수행자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돈과 권력, 그리고 성문제라는데 착안해 이사회와 관리회, 수호회의 3부 체제로 사원 구성했다.

젠마운틴 사원의 이사회는 법적인 것과 재정을 관리하며 관리회는 총체적인 기획을 맡는다. 수호회는 선원의 수행을 전반적으로 담당한다. 수호회의 경우 선원에서 타인의 수행을 방해하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이들을 관리한다. 설립자인 루리 선사 조차도 수호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또 이성문제에 대해서도 사원에 입문하는 자들은 부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님들과 같은 금욕 상태를 강조한다. 부부의 경우에도 일단 입문 후에는 금욕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청한다.

미국 내 전통적인 승가로 첫손가락으로 꼽히는 젠마운틴 사원, 이 곳에서는 미국인들의 삶과 접목한 선불교 전통을 맛볼 수 있었다. 한국불교 세계화에도 젠마운틴 사원의 자율과 규율이 조화된 방식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행정동 예술활동 공간.



카약을 타며 수행프로그램을 즐기는 수행자들.



사원 농장서 직접 채소를 재배하는 모습.



다도회를 즐기는 사원 수행자들.

安般守意經

선 수행자라면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할 선경禪經!

안반수의경

불교 수행의 근본이 되는 수식관을 상세히 설하고 있는 『안반수의경』과 지관쌍수의 수행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도지경』을 상세한 주석과 함께 만난다!

안세고 漢譯, 석법성 역주 / 신국판 양장
240쪽 / 값 14,800원 / 운주사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는 수행!

위빠사나 수행의 방법론과 더불어, 저자가 그동안 위빠사나 수행을 해오면서 겪은 경험들과, 그 과정에서 느끼고 깨달은 점들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냈다.

영선 지음 / 국판 / 304쪽 / 값 15,000원 / 운주사

마음과 영혼을 일깨우는 가르침!

풍경소리 5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영원히 다시 마주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 이 생을 소중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는 지혜!

글 풍경소리, 그림 조병완 / 컬러 / 136쪽 / 값 13,800원 / 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배불’ 극복, 유·불 회통한 계승 선사

〈排佛〉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⑮ 운문종의 명교계숭 선사



그림 · 강병호

송대는 중국 전통문화가 전환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며, 동시에 인도불교가 중국화로 완성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명교계숭(明教契嵩 · 1007~1072 혹은 佛日契嵩)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 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북송 불교계에 많지 않은 문학의 대가이기도 하다. 그는 많은 저서를 지었는데 핵심 의제는 바로 불교와 유교의 조화 및 회통 융합이다. 특히 불교 관점의 효도관은 불교사에서 전무후무한 작품으로 유가의 효도관과 불교의 효도관을 비교 분석하고 회통한 새로운 시각의 작품이다. 특히 중국 전통 논리인 이효위본(以孝爲本 · 효를 근본으로 삼는다)은 종법(宗法 · 씨족사회 부계가장제도)사회의 기본 규칙이다. 비록 불교의 효도관과 유가의 효도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그는 양가의 효도관을 회통해서 통합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그의 사상적 관점은 북송 중엽에 유학의 부흥과 이학(理學)의 건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명교계숭 선사의 속성은 이(李) 씨에 자(字)는 중영(仲靈)이며, 자호(自號)는 잠자(潛子)로서 출생은 지금의 광시성 등현(廣西藤縣)이다. 송진종(宋眞宗) 경덕(景德) 4년에 출생했으며, 신종희영(神宗熙寧) 5년, 66세에 입적하였다. 내외전에 정통했던 그는 7세에 출가, 13세 때 삭발하고 14세 때 구족계를 받았다. 법호는 계숭(契嵩)이다. 19세 때 천하를 유역하기 시작하였고 명사를 참방하기도 했다. 그 후 강서 균주(筠州 · 지금의 강서성 高安) 동안사(洞安寺)에서 법을 얻은 그는 청원행사(靑原行思) 계통의 운문종 선사이다. 그는 다작을 저술했는데, 그의 문집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담진문집(鐔津文集)〉은 백여 권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은 〈보교편(輔教篇)〉이며, 그 외도 〈중용해(中庸解)〉, 〈원론(論原)〉, 〈비한상(非韓上)〉, 〈전법정종기(傳法正宗記)〉, 〈상황제서(上皇帝書)〉 등이 있다. 그는 불교 내부는 물론이거니와 기타 선종의 종파에 대해서도 비평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그는 〈정법정종기(傳法正宗記)〉, 〈전법정종정조도(傳法正宗定祖圖)〉, 〈전법정종론(傳法正宗論)〉 등 삼부저작의 찬술을 통해서 선종의 정통 지위를 확립하기도 했다. 특히 북송 때 남종선이 성행한 후에 지어진 〈전법정종론(傳法正宗論)〉은 선종전법의 차제에 관한 것으로, 육조가 정통이 된다는 그의 관점이 실린 선종 사적이다. 이 책은 〈대정장(大正藏)〉 제51측에 수록되었다. 전법 및 법통의 정통성과 제자에 대한 가르침의 문제 등을 기술했다. 그가 지은 모든 저술은 송인종(宋仁宗)에게 진상되었고, 인종은 그의 많은 저술을 보고 매우 감복해하면서, 모두 〈대장경〉에 편입시켰으며, 자색가사를 하사하고 명교대사(明教大師)라는 시호를 내리기도 했다.

계숭선사는 삼교융합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불교의 정밀한 교학적 이론인 사변적 색채가 농후한 철학적 특징을 의지해서 유가의 핵심적 철학 문제를 관통하였고, 불교와 유교에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용해 자기만의 독특한 사상체계를 전개하였다.

그는 중용(中庸)의 ‘성명(誠明 · 지성스러운 마음과 완벽한 덕성)’, ‘중화(中和)’ 등의 범주에 대해서 풍부한 설명을 하였으며, 동시에 심 · 성 · 리(心性理)의 내재된 연관성에 대해서 논술을 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이기지변(理氣之辯)의 사고와 심즉리(心卽理)에 대한 명제 제시는 송나라 유학에 많은 호응을 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에 전래된 이래로 불교의 효(孝)에 대한 관념은 중국인들에게 늘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유가 사대부들의 조롱거리 내지 비판의 중심이 되기도 했고, 출가 승려들은 나름대로 경전의 근거를 가지고 비판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였지만,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출가한 승려에 대한 시선은 언제나 불편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불교의 체계적인 이론 내지 사상적 관념을 근거로 유가와 맞대응한 인물은 불교 역사 이래로 없었다. 계숭선사는 불교의 효도관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유학자들의 잘못된 불교의 효도인식을 바로 잡아주었던 인물이며, 당시의 배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저술을 통해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한 그의 탁월한 논리체계는 당시의 유가 사대부들을 참선에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 송인종 명도년간(明道年間 · 1032~1033) 송대의 문학계는 고문운동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문인들은 모두 당나라 중엽 때의 인물인 한유(韓愈)와 유교를 흠모하고 숭상하면서, 불교를 배척하였다. 그는 이러한 배불의 형태를 겨냥해서 유교와 불교사상의 본질을 비교해서 조정에 상소하였다. 특히 배불에 앞장섰던 구양수를 논리정연하게 반박하자, 당시 조정의 황제(仁宗)를 비롯해 사대부 문인에 이르기까지 감탄하지 않은 이가 없었고, 당시의 문단에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오계 · 십선계로 유교5상 비교
“理 · 行 불가분 관계”

계숭선사는 유교의 경전을 두루 깊이 탐독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배불에 대한 풍토를 목격하고, 체계적인 논리와 이론으로서 배불의 부당성을 알렸다. 그는 당시 이러한 배불에 대한 풍조를 변론하고 논쟁도 벌렸지만, 유생들의 불교에 대한 몰이해를 완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그는 삼교일치(三教一致)를 주장하면서, 유교와 불교의 일치하거나 유사한 관점을 조목조목 들어서 마침내 〈보교편(輔教編)〉을 완성하였다.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효도관(孝道觀), 중용관(中庸觀), 심성관(心性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효도관 방면에서 불교의 오계와 십선계를 가지고 유교의 오상(五常 · 仁義禮智信)을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효위계선(孝爲戒先), 효유계지온(孝有戒之蘊), 계효합일(戒孝合一) 등을 주장하면서, ‘성인지도이선위용(聖人之道以善為用 · 성인의 도는 선으로 용을 삼는다), 성인지선이효위단(聖人之善以孝為端 · 성인의 선은 효로써 발단을 삼는다)’이라고 하기도 했으며, 중용관(中庸觀)에서 그는 중용위지도(中庸爲至道)의 관점으로 유가의 중용(中庸)과 불교의 중도(中道)를 중점적으로 비교 찬술하기도 했다. 심성론(心性論)에서는 유가의 성(性), 정(情)에 불교의 심성론을 끌어들였다. 불교는 본래 심성본각을 기초한다고 설해서, 체계적으로 진심일원론(眞心一元論)의 심성사상을 찬술하기도 했다. 즉 심성론은 진여심(眞如心)을 본체로 삼았다고 보았다. 그는 성(性)에는 선악이 없고, 정(情)에는 선악이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그의 불교와 유교의 회통은 송대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송대 이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연고로 불교사에서 그를 일대효승(一代孝僧)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불교사에서 계숭 스님의 공헌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보교편(輔教編)〉에서 불교와 유교가 비록 사람들을 위한 처세와 방법에 다른 점이 있지만, 유가는 치세(治世)에 있고, 불교는 치심(治心)에 있다. 하지만 모두 목적은 하나라고 천명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불교의 오계(五戒)와 유교의 오상(五常)을 동일시하면서, ‘효위계선(孝爲戒先)’, ‘성인지효’, ‘이성위귀야(聖人之孝, 以誠為貴也)’라는 중요한 명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의 관점은 불교가 지향하는 효(孝)의 중점은 이치(理)에 있고, 유가가 중시하는 효(孝)의 중점은 행(실천)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나눌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중용해(中庸解)〉에서 “유불은 모두 성인의 가르침이다. 나온 바가 비록 같지 않으나, 다스리는 것은 같은 목적이다. 유자의 대성인은 유위자(有爲者)이며, 불교의 대성인은 무위자(無爲者)이다. 유위자는 치세(治世)를 사용하고, 무위자는 치심(治心)을 사용한다.… 고로 치세(治世)는 유가가 아니면 불가하고, 출세를 다스리는 데는 불교가 아니면 또한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불교와 유교는 모두 성인의 길이다. 하나는 치세(治世)이며, 다른 하나는 출세(出世)이다. 분담한 역할이 비록 다르지만, 다만 이 둘은 서로 돕고 서로를 상생시킨다. 즉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효과를 내며,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두 번째, 당시 선문의 전법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각기 자기 파벌에 대한 법맥체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론이 끊이지 않았다. 선종은 〈보림전(寶林傳)〉을 지어서 인도로부터 28조설을 확정지었다. 반면에 천태종은 〈법장전(法藏传)〉에서 서천 24조설을 주장했다. 계숭 선사는 서천 26조설을 주장했으며, 따라서 그의 서천 26조설이 이후 역사에 편입되는 영예를 안았다.

계숭 선사는 유학자들의 배불언론에 대해서 반격을 하였는데, 특히 한유(韓愈)의 배불에 대해서 많이 비평했다. 그는 불교의 선사 입장에서 한유의 ‘도통설(道統說)’은 믿을 수 없으며, 동시에 한유가 논한 성(性)에 대한 논설은 성정(性情)과 뒤섞였다고 여겼다. 즉 한유는 오직 ‘정(情)’을 중심에 둔 관점이고, ‘성(性)’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여겼다. 뿐만 아니라 한유가 말한 ‘사불구복 내경득화(事佛求福 乃更得禍)’의 관점 내지 화이지변(夏夷之辨) 등의 관점을 반격하기도 했다. 또 그는 불교와 유교가 모두 왕도(王道)정치를 지지하며, 불교, 유교 모두 통치자들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계숭 선사의 배불론에 대한 반격 및 유불(儒佛)의 회통은 유가의 사대부들이 적극적으로 ‘담선(談禪)’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풍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송대 선종의 토막역사의 흔적을 보면 유가 사대부들은 송인종 경역(慶曆 · 1041~1048) 때 송 사대부들은 격렬한 배불을 하였지만, 최종에는 송신종(熙宁 · 1068~1077) 때 도리어 선열(禪悅)에 탐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유가 사대부들의 배불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유가사상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는데, 유가 경전 가운데는 치국(治國)의 도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오경(五經 · 詩經, 尚書, 禮記, 周易, 春秋)은 균일하게 치도(治道)가 된다고 여기면서 이 중 하나도 버릴 것이 없으며 빠져서도 안 된다고 보았다. 그는 또 상제(喪制)에 관해서도 불교의 인과응보 육도윤회와 유가의 길흉화복 사상을 비교 융합하였는데, 즉 유 · 불(儒佛) 양가의 성심제계(誠心齋戒)가 복을 불러온다는 것도 상통한다고 여겼으며, 유가에서 말하는 개인의 ‘오복육극(五福六極 · 壽, 富, 康, 德, 命 · 六極之凶, 短折, 疾, 憂, 貧, 惡, 弱)’은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과보에 해당한다고 여겼다. 또 〈중용〉의 ‘기위물불이, 칙기생물불측(其爲物不二, 則其生物不測)’이라고 하는 우주생성사상을 제시해서 불교의 ‘만법유심(萬法唯心)’과 상통한다고 보았다.

불교가 중국에 진입한 이후 중국에서 합법적 지위를 얻기까지는 본토 문화인 유가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 통합한 결과이기도 하다. 불교가 한나라를 기점으로 위진 남북조 수당을 거치면서, 불교 유교의 융합은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송대에 이르러서 유교와 불교의 융합은 절정에 다다랐다. 불교와 유교의 회통방식은 불교를 중국화하는 과정이었다고도 한다. 이러한 점은 바로 통치 계급자들이 자신들의 통치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었다. 송대의 운문종 승려인 명교계숭은 불교와 유교의 사상적 관념 및 개념을 깊이 연구 고찰해서 하나의 문서화로 발전시키는데 성공한 최초의 선사이다.

〈동국대 강사〉





이번주 신간은… 〈그대는 꽃입니다〉 찬콩 스님 지음/효석 스님 옮김/사유수 펴냄/1만 6천원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이자 인류의 스승인 틱낫한 스님과 함께 30년 이상 수행하며 스님을 도와 프랑스와 태국, 미국, 독일 등에 플럼빌리지를 건립하고 가꾸어온 비구니 찬콩(CHAN KHONG) 스님이 한국에서 처음 책을 출간하였다. 〈그대는 꽃입니다〉는 찬콩스님의 저서 〈Beginning anew〉를 번역한 책으로, 플럼빌리지서 매주 행해지는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에 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0 ~ 8/16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내면의 평화에 이르는 여행	윌리엄 하트	김영사
2	조용헌의 인생독법	조용헌	불광출판사	7	부처님 광명 기원문	성운대사/원성스님	운주사
3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8	바른 믿음의 불교	성엄선사	탐구사
4	그대는 꽃입니다	찬콩스님/효석스님	사유수	9	열반경 역해 (전3권)	이상규	해조음
5	카르마 100일	보현스님	부처님마을	10	스님의 남자친구	일광스님	불교신문사

기원전 6세기 인도사상계 우위를 불교가 차지한 이유는?



불교의 탄생

미야모토 케이이치 지음/한상희 옮김

불광 펴냄/1만 6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경제적 후원 바탕으로 발전한 불교

기원전 6세기경, 인도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특히 갠지스 강 중류 지역의 변화는 기존 질서를 흔들 만큼 획기적이었다. 수확량이 불안정한 밀을 재배하던 다른 지역과 달리 수확량이 안정적인 쌀을 재배한 이 지역에서는 잉여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상업이 발전하고 이로 인해 수공업이 번성하면서 상업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 국가가 차례로 출현한다. 출신 계급보다는 능력을 중요시 여겼을 이 지역서 계급을 중시하는 전통 종교 베다에 반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와 더불어 바라문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베다 전통에 반대하는 자유사상가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상인 세력의 지원을 받아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교단을 형성한다. 불교 역시 이 시기 베다에 반발해 생겨난 수많은 사상 중의 하나였다. 불교도 왕과 귀족, 대부호의 경제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교단을 유지하며 오랜 기간 인도 사상계의 우위를 점했다. 그렇다면 당시의 수많은 사상 가운데 유독 불교가 오랜 기간 인도 사상계의 우위를 차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그 이유를 불교가 홀로 고고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사상과의 융합과 대립을 통해 장점은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서 끊임없이 성장,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붓다가 실용주의자이면서 원칙을 고집한 인물이어서다.

실용주의자 붓다가 수용한 것과 아닌 것

불교 발생 당시에는 없었으나 붓다가 받아들인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자이나교의 관습서 유래한 안거이다. 출가자는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불교를 비롯한 대부분 교단의 기본 원칙이나 우기에 일정한 곳에 머무는 안거가 정착되었다.

살생을 꺼리는 자이나교서 유래된 관습이지만 우기에는 아무리 조심해도 땅 위로 올라온 개미를 비롯한 작은 생명을 죽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유였다. 불교 역시 살생을 금하고 있었던데다 우기에 외출할 경우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채택된 이 관습은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붓다가 자이나교의 불살생 원칙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자이나교의 재가신자들은 땅속에 사는 미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정도로 불살생을 '엄격히' 지켰다. 자이나교의 원칙서 육류의 섭취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붓다는 탁발을 통해 재가신자에게 받은 고기 요리라면 먹어도 된다고 허용했다. 재가신자는 출가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 공덕을 쌓는데, 이를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처럼 붓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리고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실용적이라면 기존의 관습을 다소 어기더라도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보였다. 당시 발생했던 사상 및 교단의 장점은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은 보완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었고, 이런 이유로 기원후 1000년경 인도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사상계를 주도할 수 있었다.

초기불교 문헌 중심 서술한 최초기 불교

대부분 개론서가 대승불교 문헌을 포함해 서술한 것과 다르게 이 책에서는 오직 초기불교의 문헌을 중심으로 이후의 기록,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대승불교의 사상이나 기록을 통해 전해지는 내용은 구분해서 서술을 이어나간다.

붓다 입멸 후 불교가 널리 전파되면서 붓다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해설이 덧붙이면서 붓다의 가르침은 내용이 장황해질 수밖에 없었다. 대승불교 역시 현학적 성격이 강한 부파불교 시대를 거쳐 성립됐으므로 대승불교의 기록이 조금의 변형도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불교 성립 이전부터 붓다 입멸까지의 시기에 초점을 맞춰 서술한 이 책의 성격상 대승불교 문헌을 비롯한 후대의 기록은 자료로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붓다 입멸 이후 첨가된 가르침이나 변형이 적은 초기불교의 문헌을 바탕으로 붓다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서술한다.

그러다 보니 대승불교에 익숙한 독자라면 낯선 내용을 책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붓다를 칭하는 명칭 가운데 '따타가따'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중생 구제를 위해) 이와 같이 온 분'이라는 뜻의 '여래(如來)'라는 번역어로 알려졌지만, 실은 '그와 같이 (피안으로) 건너간 분'이라는 뜻의 '여거(如去)'로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제행무상(諸行無常)'이 세상의 무상함이나 찰나멸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담은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은 그리 오래 사는 존재가 아니므로 수행에 몰두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붓다가 말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다.

비교와 대조 통해 선명한 최초기 불교

저자는 이러한 비교와 대조 및 서술을 통해 붓다 당시에 가장 가까운 최초기 불교의 모습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낸다. 불교 이외의 사상계서 붓다가 받아들인 것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통해 불교 초기의 발전상을 그리면서 독자는 붓다 당시 인도의 사상과 불교가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더불어 다른 관점의 맥락으로 불교를 바라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승불교의 그것과 비교하는 대목에서는 붓다가 무엇을 말하였는지, 이후 세대를 통해 첨가된 내용을 구분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자신이 알던 내용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적 부분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잘 알려지지 않아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법장보살 따라 새 수행의 길 들어선 수행자 고백서



내 생을 찾아서

보영 스님 편저/조계종출판사 펴냄/1만 5천원

수행 전환점이 된 법장보살과의 만남

젊은 날 인생의 전환점에서 출가의 길을 택했다. 승단의 교육을 받고 매일 예불과 수행을 반복했다. 오로지 지극정성으로 엎드려 예불하는 것이 참된 승려의 자세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자각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날 법장(法藏)보살을 만났다. 그 분의 수행과 고뇌의 과정을 하나하나 살폈다. 진정한 수행사문의 모습을 몸소 시현해 중생들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은 바로 염불의 세계였다. 법장보살과의 만남은 수행에 크나큰 전환점이 됐다.

저자 보영 스님을 법장보살의 세계로 이끈 이는 스승 다카하라(高原)였다. 그는 진정한 정토신앙인으로서 곧은 가르침을 전해 지금의 저자로 설 수 있게 했다. 이 책은 35년 전 일본 승려학교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던 당시 읽던 〈혼의 궤적〉(요네자와 히데오)을 참고삼아 국내 불자들이 이해기 쉽게 집필해 엮었다.

법장보살, 마침내 아미타불이 되다

제 1장(정토불교의 탄생)은 법장보살의 이해를 위한 안내의 장이다. 법장보살은 〈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불의 전신으로 등장한다. 이 세상에 나타나서 53분의 부처님에게 차례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자재왕 부처님을 만난다. 법장보살은 세자재왕 부처님 앞에서 48가지 본원을 이야기 하면서 이 본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리고 법장보살은 스스로 5겁 동안 본원 성취를 위한 수행에 매진하여 마침내 불국토가 완성되고 아미타불이 되었다.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세계의 교주로, 지금도 그곳에 상주하며 설법을 하는 부처님이다.

제 2장(극락정토의 장엄)은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詩)로 시작된다. "누군가가 갑자기 저녁식사 자리에서 일어서 박차고 나간다.

그러고는 쉬지 않고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한없이 걸어간다.

동방(東方)의 어떤 작은 시골마을에 그가 가고자 하는 안식처가 있는 것이다. (하략)"

일상성에 안주하지 못하고 항상 현실과는 다른 세계에 매몰된 인간의 숙명을 노래한 시다. 저자는 일가의 단란하고 즐거운 저녁 자리를 돌연히 박차고 나간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지를 묻는다. 그러면서 가출과 출가의 의미를 되새긴다. 석가모니부처님 이전에도 수많은 수행자가 세속적인 행복을 뒤로하고 집을 떠났다. 그 수행자들은 법장보살처럼 세상을 뒤로한 채 고행림으로 들어가 생사가 보장되지 않은 고행의 길을 걸었다. 그들은 그 도정에서 자신의 구제는 물론 일체 중생의 제도에까지 마음을 두었다. 그것은 바로 보리심(菩提心)이었다.

〈탄이초(歎異抄)〉 인용하며 '숙업(宿業)의 염불' 설명

제 3장(염불의 전등)에서는 신란(親鸞, 1173~1263)대사의 가르침을 기록한 오래된 일본 불교 책 〈탄이초〉를 인용해 숙업(宿業)의 염불을 설명해나간다. 저자는 스승의 가르침으로 타력 염불을 만나게 되었다. 그 감회를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그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불가사의하게도 나는 번뇌에서 해방이 성취되고 자유독립이 달성되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앞길에 찬란한 광명이 빛나고 있습니다. 법장보살이 성취하신 비원의 가피가 십겁이 지난 지금 새삼스럽게 나에게 사실이 되어 부처님의 숨결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염불과 주문(呪文)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염불을 무자각적으로 무작정 외우는 주문(呪文)과 같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조사들의 사유에 의해 진정한 염불로서의 생명이 불어넣어졌다. 그 염불은 교주인 석가모니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이며, 그렇기에 불교의 생명으로 자각된 것이기도 하다. 주문과 염불은 분명 다르다. 주문의 염불에는 힘이 없다. 자각의 염불을 하고 나서 비로소 처음으로 어리석은 나, 둔감했던 나가 움직인다. 자각의 염불만이 진실된 길을 걷는 힘을 갖게 해준다. 염불자로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고민과 고통에서 탈각하려고 할 때 선지식과 만남을 통해 가르침에 대한 진의를 접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에게 염불이 진정한 신심으로서의 자각으로 바뀌게 된다.

석가모니부처님으로부터 유전해 온 염불 전통은 인도의 용수(龍樹)보살과 천친(天親)보살 그리고 중국의 담란(曇鸞)대사, 도작(道綽)대사, 선도(善導)대사로 이어졌다. 또한 한반도에서도 통일신라의 원효(元曉)대사, 의상(義湘)대사(625~702), 경흥(憬興)대사 등을 거쳐 지금의 저자에게까지 염불의 전통이 전승(傳承)됐다. 저자는 이는 오로지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5겁 사유의 비원(悲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비천의 법음 들려오는 오대산으로

2018 오대산 월정사 전통산사문화재
특별전 '천상의 소리 원류를 찾아서' 展 등
12월까지 공연 · 전시 · 문화재탐방과 체험 다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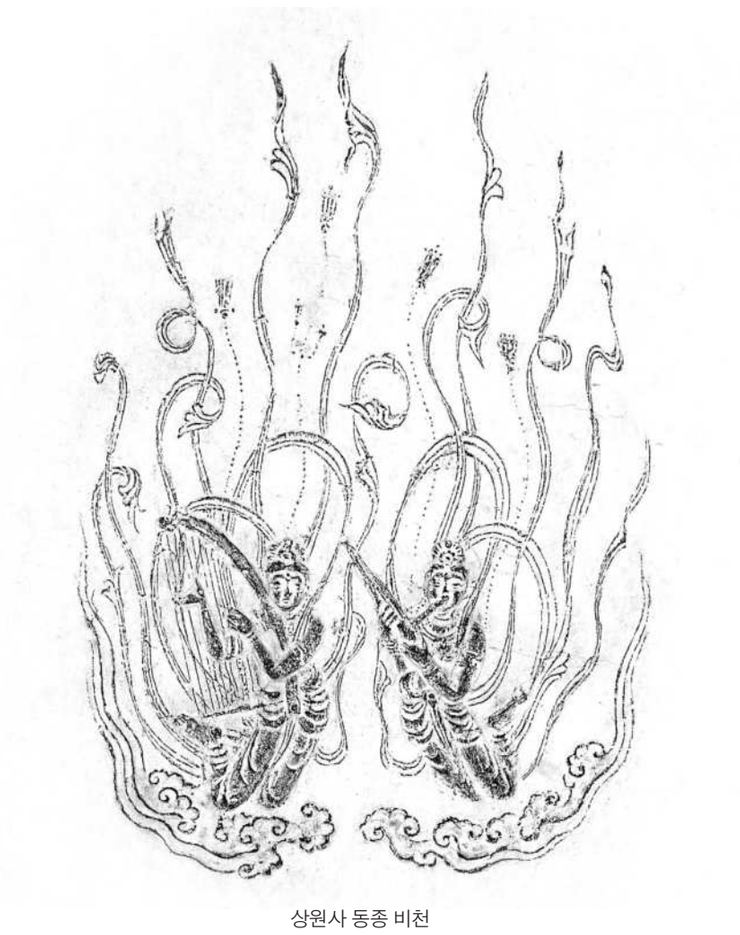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오대산의 자연과 문화재를 통해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특별한 자리가 열린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8월 25일부터 12월까지 공연과 전시, 문화재 탐방과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는 '2018 오대산 월정사 전통산사문화재'를 개최한다.

'하늘로부터 돌아온 천년의 소리' 개막공연으로 시작된 문화재는 12월까지 월정사 전나무숲 박물관에서 박물관 탐방객을 대상으로 상원사 동종의 비천상 문양 그리기와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법고, 목어, 운판, 범종소리 듣기체험을 상시 진행한다.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월정사 전나무숲 박물관에서는 문화유산 해설사와 함께 하는 오대산 산사문화재 탐방 '문화유산을 찾아가며 마음을 밝히는 걷기명상'을 진행하고, 8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는 범종과 부도에 등장하는 주악비천상과 악기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 '천상의 소리 원류를 찾아서'를 개최한다. 이 전시는 일본 우사진구 동종의 요고, 문역 봉암사 지증국사 부도의 당비파와 대금, 상원사 동종의 공후와 생황 등에 나타나 있는 악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상원사, 선림원지 동종과 일본 죠렌지, 덴린지, 슛세키지 동종의 비천상 탁본을 전시한다.

특별전 '천상의 소리, 원류를 찾아서'는 범종과 부도에 등장하는 주악비천상들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비천은 부처님의 법음이 펼쳐지는 자리마다 나타나 허공을 날며 부처님을 공양하고 숭배하는 천인(天人)이다. 비천상은 공양을 올리는 모습의 공양비천상과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의 주악비천상이 있다. 주악비천상은 천의를 날리며 악기를 연주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천인들로 오랜 시간을 지나 무한한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감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주악비천상이 연주하는 비파 · 생황 · 공후 · 대금 등의 악기들은 중앙아시아를 지나 우리나라로 이어지며 다양한 국악기들로 발전했다.


상원사 동종 비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이 전시는 단순히 비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주악비천들이 연주하는 천상의 소리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전통 악기의 아름다운 선율과 오대산의 자연, 문화재 탐방을 통해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했다.

월정사는 산사문화재와 함께 제15회 오대산 전국학생 미술공모전과 백일장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미술은 생활화, 수채화, 한국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부문이며, 백일장은 시와 산문 부문이다. 참가 대상은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등학력자이다. 마감은 9월 21일(금)까지이며 참가 신청은 월정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원고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033)646-1318

제4회 만해통일문학축전

8월 29일 11시 심우장서
통일염원 작품낭송 등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을 기리는 제4회 만해통일문학축전이 8월 29일(수)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심우장 경내에서 열린다.

11시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후 1시부터는 '통일염원 작품낭송 대축전'이 열리고, 오후 4시부터는 제19회 한국불교문학상 및 계간 〈한국불교문학〉 작품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통일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고 남북문학 교류와 함께 미래 통일 한국의 문학지평 구축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통일염원 작품낭송 대축전'에서는 2016년 제2회 통일문학축전을 기하여 공모한 작품 중 108편을 선정하여 발간한 작품집에서 30편을 골라 문인들이 낭송한다.

만해통일문학축전위원회는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과 민족문학을 조사 발굴하여 집대성하고 오늘의 남북분단 상태에서 그의 숭고한 민족정신을 통일한국의 미래사상으로 선양하며, 통일문학작품 낭송회를 통하여 만해사상의 민족통일 기여와 만해문학이 통일문학으로서 민족정신 고양, 특히 통일문학 발전 및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제4회 만해통일문학축전을 열고자 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제19회 한국불교문학상 시상식에서는 동시영 시인이 대상, 정수미 시인과 박춘근 수필가가 시와 수필 부문 계간 한국불교문학 작품상, 김종연과 이성운이 신인상을 받는다.

박재완 기자

제11회 보덕사 호수음악제

9월 2일 오후 2시 보덕사, 하이런 · 정수라 등 출연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그리고 당진 시민들이 문화와 마음을 나누는 축제가 열린다. 당진 보덕사(주지 정안)는 9월 2일 오후 2시 보덕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2018 당진 시민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 제11회 보덕사 호수음악제를 개최한다.

2008년부터 시작된 보덕사 호수음악제는 충남 당진 시민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음악제는 당진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나라의 전통문화를 알아가고 공유할 수 있는 전통춤과 다문화가족들로 구성된 ▲1부-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과 성금 감사패 전달 등 ▲2부-본행사를 거쳐 ▲3부-호수음악제로 이어진다.

스리랑카 마하위하라사원의 담마프렌즈의 전통공연을 시작으로 우리의 소리 진도북, 판소리 명창이 이어지고, 청년불자 소프라노 최유정, 보덕사 · 서원사 연합합창단, 초대가수 하이런, 주병선, 정수라가 출연해 다양한 전통문화와 대중문화가 어우러지는 소통과 공감의 흥겨운 무대를 펼친다. 국가와 종교, 인종, 승속의 장벽을 넘어 서로가 화합하는 음악제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41)353-9306

박재완 기자


지난해 열린 보덕사 호수음악제.

한국불교미술 우리 손에…

동국불교미술인회 창립 25주년 기념
제13회 동국불교미술인전
서울 인사아트프라자 9월 5~10일

불교미술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전시가 열린다.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박갑용)는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서울 인사아트프라자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제13회 동국불교미술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회원 40명 중 32명이 참가해 회화, 조각, 공예 등 불교미술의 모든 분야에 걸쳐 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10여 명의 신입회원들이 새롭게 참여하여 관음보살, 지장보살, 단청, 신중탱화, 백제금동대향로 등 불교미술의 전통 소재들을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임으로써, 세대간의 폭넓은 교류와 침체된 불교미술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박갑용 회장은 "제방의 고승대덕과 명현들께서 앞으로도 더욱 깊은 애정으로 본회를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며 "본회의 발전과 한국불교미술의 발전이 둘이 아니고, 본회의 역량이 한국불교미술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깊이 새기며 정진해 나가겠다"고 이번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1993년 회화, 단청, 조각,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해 창립된 동국불교미술인회는 불교미술 전승과 국내외 문화재보전활동을 위해 1994년 창립기념전을 시작으로 꾸준히 정기회원전을 개최하고 두 차례의 학술세미나와 다양한 자료집 발간 등 한국불교미술 발전에 기여해 왔다.

박재완 기자


박용갑 作, 관세음보살도





경전 內 재가보살·법사 조명 연구 '눈길'

2018 가을학기 불교학 박사 논문들 〈上〉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8년 가을학기에 동국대에서 11명의 불교학 박사가 배출됐으며, 중앙승가대에서는 1명의 박사가 나왔다. 이들 가을학기 박사 학위자들의 박사 논문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유마경〉에 나타난 재가보살사상

정화 스님(동국대 불교학과)은 '〈유마경〉의 재가보살사상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마경〉은 대승불교 초기에 성립된 경전으로서 대승불교가 성립될 당시의 사회상과 사상적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재가불자도 올바른 수행을 통해 성불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화 스님은 〈유마경〉의 성립과 경전의 구성, 〈유마경〉의 재가보살사상을 분석하고 유마거사의 포교방법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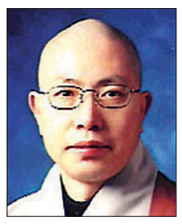
정화 스님은 유마거사의 포교 방법을 통한 현대 재가 포교 방안으로 △생애주기와 욕구를 바탕으로 포교 대상을 분류한 프로그램 개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포교 △승려들의 적극적 참여와 종단·교구본사 중심한 포교계획 수립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일반인들의 인생주기,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인식하고 그들의 욕구를 알아봐야 한다"면서 "대상자 집단의 현재 활동범위와 사고방식과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와 대상에 맞는 포교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비달마교학 인과관계 살피다

제홍 스님(동국대 불교학과)의 박사학위 논문은 '아비다르마교학의 인과관계와 찰나멸 연구-〈구사론〉을 중심으로'이다.

제홍 스님은 아비달마교학 사상 중 〈구사론〉의 저자 세친(Vasubandhu)의 찰나멸설(자발적 소멸논증)과 세친 이후의 논사들에 의해 발전된 찰나론과 이를 포함한 불교논리학의 논증식에 주목했다.


정화 스님


제홍 스님


선우 스님


일문 스님

스님은 논문에서 아비달마교학에서 논의되는 인과관계를 살피고, 이들 논사들의 논증식의 전개 과정을 통해 인과관계의 범위와 이에 관한 정의들을 논구했다. 또한 세친 이후 논사인 라뜨나까라산띠와 즈냐나슈리에 대한 논증 과정도 분석했다.

제홍 스님은 "세친 논사의 존재성으로부터의 추론은 '존재는 원인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비존재화한다'는 순간적 존재성, 자발적 소멸논증으로 확립됐다. 이것은 인과론의 입장에서 존재와 본성에 대한 분석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각 논사들의 논쟁방식과 당시의 논리학의 체계가 형성돼 왔음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화경〉에 나타난 법사는

선우 스님(동국대 인도철학과)은 '〈법화경〉의 법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논문에서 다른 경전보다 법사를 중시했던 〈법화경〉의 취지와 사상을 고찰하고 현대 포교 현장의 주역들에게 법사의 이상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선우 스님은 〈법화경〉의 '법사품'과 '법사공덕품'을 주요 텍스트로 법사의 개념과 위상, 이상형 등을 조명했다.

또한 출가법사, 재가법사, 템플스테이와 법사로 나누어 법사의 현대적 적용을 살핀 것도 눈길을 끈다.

특히 오랫동안 템플스테이를 운영했던 스님이 주목한 템플스테이와 법사의 관계는 주목할 만하다.

이에 선우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법화경〉의 법사에 비춰 본다면 설법자와 청법자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템플스테이 법사가 된다"면서 "또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법사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인 '일게일구'를 통한 '일념수희'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운영 사찰은 이 시대에 '여래사'를 탄생시키는 가장 큰 도량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자와 참가자는 모두가 여래사가 되고 본인이 끝내 성불할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내고 도반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까규파 '마하무드라' 수행 고찰

일문 스님(동국대 선학과)의 박사학위 논문 '제9대 까르마빠 왕축 도르제의 마하무드라 연구'는 티베트 불교의 종파 중 하나인 까규파의 전승 법맥의 수장들과 대표 수행법인 '마하무드라'를 연구·소개하고 있다.

스님이 주목한 까르마빠는 제9대인 왕축 도르제이다. 논문에 따르면 왕축 도르제는 전 생애를 통해 괄목할 만한 위업을 남겼고, 자신도 치열한 마하무드라 수행을 한 인물이다.

마하무드라(Mahāmudrā)는 한문으로 대수인(大手印)이라 하며, 티베트어로 착갸 첸뽀(Phyag rgya chen po), 또는 착첸(phyag chen) 등으로 표기한다.

특히 일문 스님은 왕축 도르제가 저술한 〈마릭뮌쎌(Ma rig mun sel)〉을 텍스트로 그가 심화시킨 마하무드라 수행법을 살폈다.

"예비 수행과 두 가지 본 수행 지와관, 그리고 마무리 수행으로 구성된 〈마릭뮌쎌〉은 마하무드라 수행 성취를 위한 정형화된 가르침"이라고 평가한 일문 스님은 "마하무드라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에 분별 망념과 법신이 본래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임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념은 한국 불교의 간화선 전통에 있어서도 낯설지 않은 표현이다. 선가(禪家)에서 말하는 생함이 없고 멸함이 없는(無生無滅) 청정한 자심(自心) 자리를 바로 보아 직지인심(直指人心) 하는 자리를 보여 줌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가오는 가을, 불교 공부 해볼까

9월부터 고려불교미술·초기불교 강좌 잇달아

다가오는 가을, 다양한 주제의 불교 강좌가 열린다.

가장 눈길을 끄는 강좌는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마련된 **(사)한국미술사연구소 박물관대학**의 '고려의 찬란한 불교미술' 강좌다.

오는 9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서울 종로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열리는 강좌는 고려불교미술의 개요부터 불상·불화·범종·공예 등 각 분야까지 상세히 다룬다.

주요 커리큘럼으로는 △고려의 국가불교와 불교미술의 만개(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고려의 불교건축과 금동불탑의 세계(손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 △고려 불탑의 성립과 고려 전반기의 석탑(소재구 前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고려 후반기의 불탑과 장관의 경천사 석탑(박경식 단국대 교수) △고려의 미륵사상과 미륵불상의 전개(손영문 문화재청 상임전문위원) △고려 불국토에 울려퍼진 고려 범종의 아름다움(최응천 동국대 교수) △구도자의 간절한 염원, 수월관음도와 고려 문양의 미(고승희 前 동국대 교수) 등이 진행된다.

이번 강좌에 대해 한국미술사연구소는 "찬란했던 고려 불교미술의 세계를

고려 건국 1100주년 맞아
한국미술硏 기념강좌 열어
근본불교硏 '연기법' 주제로
초기불전, 〈디가니까야〉 강좌

최고 전문가들이 쉽고도 알찬 강의로 안내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2) 3673-3426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을 주제로 한 강좌도 진행된다. **근본불교연구회**는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격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을 주제로 가을학기 강좌를 연다.

서울 종로구 사간동 법련사 2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이중표 전남대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근본불교연구회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353-5708(나루명상센터)

초기 경전을 심도 깊게 배울 수 있는 강좌도 마련됐다. **초기불전연구원**은 5부 니까야 가운데 제일 처음인 〈디가 니까야〉제1권(초기불전연구원 간행)을 교재로 제9기 초기불전학림을 진행한다.

강의는 8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열리며, 강사는 각묵 스님이 맡는다. 강의 장소는 경남 김해시 보리원 내 초기불전연구원이다.

초기불전연구원은 "초기불전학림을 개강해 불교 만대의 뿌리요, 모든 불교의 표준이 되는 부처님의 원음을 공부하고자 한다. 많은 법우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055)321-8579

신성민 기자

불암사 관음상·칠보사 석가상 보물된다

문화재청 23일 지정예고… 보경사 비로자나불도 보물 지정

조선시대에 조성된 불교 조각과 불화가 잇달아 보물로 지정 예고 및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8월 23일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등 4건을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보물 제1404호 '봉사조선창화시권' 등 2건은 국보로 승격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17세기 전반기에 활발하게 활동한 조각승 무염(無染)을 비롯해 총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1649년(인조 27년)에 완성한 불상이다.

높이 67cm의 단아한 규모에 머리에는 연꽃과 불꽃문양으로 장식된 화려한 보관(寶冠)을 썼으며, 가사는 두벌 겹쳐 입은(이중착의법) 모습에 상반신을 앞으로 구부렸다. 전체적으로 비례가 알맞고 신체의 자연스러운 양감이 돋보인다.

특히, 17세기 대표 조각승 무염이 참여한 작품이자 정확한 제작 시기와 봉안처를 알 수 있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여 17세기 중엽 불교 조각사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1622년(광해군 14년) 광해군의 부인인 문성군부인 유씨(장렬왕후)가 왕족들과 친정 부모의 천도를 목적으로 발원해 왕실 원찰인 자수사와 인수사에 봉안한 11존 불상 중 하나로 추정되는 불상이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사진 왼쪽)과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7세기 대표적 조각승 현진(玄眞)과 수연(守衍), 응원(應元), 인균(印均) 등이 합작해 만든 작품으로, 조각승들의 제작 특징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다는 평가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8월 21일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를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996호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1742년(영조 18년) 조선 후기 경상도에서 활동한 세 명의 불화승(佛畵僧)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그린 작품이다. 높이 3m에 가까운 대형 삼베 바탕에 붉은 물감을 칠한 뒤 인물과 의복 등을 흰색 물감으로 그린 불화다.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뚜렷하여 조선 후기 불화 연구의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⑯ 특별한 사형수 이원식

세 번의 사형선고, 출소 후 사고사로 生 마감

특별한 사형수의 죽음을 소개한다. 세 번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 밖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형수 이원식 이야기다. 통상 사형수의 죽음은 '응당하다' 고 여겨진다. 하지만 사형수 이원식처럼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감옥을 드나들다, 출소 후 곧바로 죽은 경우를 두고는 '허무하다' 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씨와 돈독한 사이였던 나는 그의 마지막을 무척 의미 있는, 인간적인 죽음으로 기억한다.

이 씨는 사상범이었다. 대구 출신인 그는 유지의 아들로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 의사인데다 본인 병원을 운영했고, 문인으로도 이름이 높았던 그는 소위 남들이 말하는 엘리트였다. 이승만 정권 시절 많은 지식인들이 그랬듯, 그 역시 사회주의 이념에 빠져들었던 것 같다. 당시 이 씨는 사회주의 사상을 품고 북한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쫓기는 신세였다.

1950년 8월경이었다. 이 씨가 아내와 저녁식사를 하고 있을 때 경찰이 불시에 이 씨를 찾아왔다. 수배 중이었던 그는 자신만이 표적이라 생각하고 혼자서 도망쳤다. 그 길로 아내가 행방불명이 되고, 총살당할 줄 알았다면 이 씨는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이 씨는 곧 검거됐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아내를 잃고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땐 지금과 달리 사상범의 사형선고는 흔한 일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석방됐지만 죽은 아내는 살아 돌아올 수 없었다. 이 씨가 첫 사형수 신분서 벗어나자마자 한 일은 아내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렵지 않게 아내가 '보도연맹 민간학살' 에 의해 희생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사상에 물든 이들을 사상전향시켜 보호 · 인도한다' 는 취지로 이승만 정권에 의해 결성된 대국민 사상통제조직이었다. 이 씨와 그의 아내도 보도연맹에 소속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는 한국전쟁 중이었다. 이승만 前 대통령은 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가 북한군 점령 지역서 북측에 협조할 것이란 의심을 했다. 이들의 배신을 우려한 정부는 보도연맹원들을 엄중단속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후방이었던 경상도 일대, 그리고 이 씨가 살았던 대구 지역의 '보도연맹 민간학살' 피해 정도는 무척 심각했다고 전해진다. '예비검속 및 예방학살' 이란 명분으로 관련자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총살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이 씨는 아내가 바로 이 사건에 휘말려 죽음을 당했다고 확신했다.

4 · 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이 씨는 본격적으로 아내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찾고자 했다. 그는 1960년 경북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했다. 이후 유족회는 희생자 위령제를 지내고, 피해자 유골을 발굴하는 등 사건 진상규명을 주장하며 관련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회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상황 조사까지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5 · 16 쿠데타로 인해 진상규명은 좌절되고 만다.



이원식은 자신의 아내가 보도연맹 학살사건에 의해 희생됐다고 확신했고, 이는 이 씨가 두번째 사형선고를 받는 계기가 된다. 사진은 보도연맹 학살사건 자료사진.

사상범으로 첫 사형선고
반국가 행위 · 반공법 위반 혐의

극우반공체제를 기조로 한 군사세력은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미국 측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들의 반공의지를 보여줄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했다. 좌익 전향 경향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골을 발굴한 각 지역 유족회는 표적이 되기에 충분했다.

쿠데타 세력은 급히 제정한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피학살자 유골 발굴 행위를 특수 반국가 행위로 간주, 유족회원들을 '혁명재판' 에 회부했다. 대구유족회장을 맡고 있던 이 씨 역시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반국가 행위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1961년 12월 7일, 혁명재판소서 그는 두 번째 사형선고를 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다. 당시 이 씨는 49세였다.

나와의 인연은 이 씨가 두 번째 사형수 신분으로 대구교도소서 있을 때부터 시작됐다. 1970년대 초반, 대구교도소 교화위원 5년차였던 나는 50대 중반의 이 씨를 만났다. 당시 이 씨에게는 재혼한 아내가 있었다. 이 씨의 두 번째 아내는 남편이 사형수가 되자,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됐다.

이 씨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다른 유족들도 일부 감형 됐다. 억울하게 뒤집어쓰고 사형수가 된 이 씨는 10년 가량 형을 살다 석방됐다. 하지만 그는 석방된 이후 반공법 위반이란 죄명으로 또 사형수가 된다. 이 씨의 세 번째 사형선고였다. 그에게는 세 번째 아내가 있었다. 세 번째 아내 역시 달아났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마지막으로 출소한 뒤에도 사회에 복귀한 이 씨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정부는 감옥 밖에서도 이 씨를 철저히 감시했고, 그와 접촉한 이들을 기록해뒀다가 몰아붙이던 때였다. 많았던 이 씨의 대구 친구들은 어쩌다 이 씨를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를 철저히 모른 척 했다. 나는 외톨이가 된 이 씨와 출소 후 더욱 더 친해졌다.

이 씨가 세상을 하직한 그 날도 나는 그와 만났다. 이 씨는 나와 저녁 회식을 하고 집에 가던 길에 변을 당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이 씨는 길을 건너다 택시에 치여 크게 다쳤다. 차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는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예외 없이 구속되던 시절이었다.

사고를 낸 택시운전사는 다친 이 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이 씨는 중태에 빠진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던 모양이다. 그는 응급실을 찾아온 아들에게 집에 가자고 했다고 한다. 아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내가 지금 여기 병원에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 죽게 되면 택시기사는 분명 구속된다. 저 사람은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옥살이를 해보니, 나 때문에 한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택시기사를 보내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 온 아들은 결국 집에서 이 씨의 임종을 지켰다.

이 씨는 이토록 기구한 삶을 살다 갔다. 10년 이상 사형수로서 감옥을 드나들며 혁명재판에 섰고, 그 과정에서 아내 셋을 잃었다. 그런 그는 한 명의 택시기사가 교도소에 가는 것을 막고, 죽음을 맞이했다. 감옥 바깥에서 맞이한 이 씨의 '의로운 죽음' 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여운을 준다.

정리=김지원 수습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⑮ 불모 석정 스님 · 화경 어린이

불모 석정스님의 편지

다녀갈 때면 늘 대문 밖에까지 나와 배웅해 주시던 석정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 원상, 달마대사, 관세음보살 등 작품 세 점을 편지 한 통과 함께 보내 주셨다. 그 편지를 그대로 옮겨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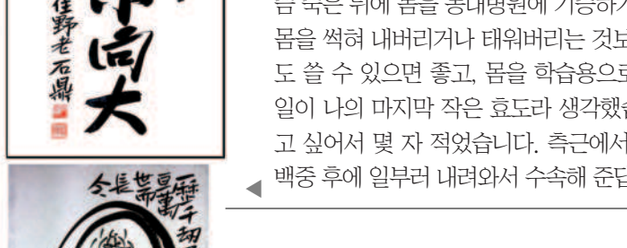
보살님, 무덥고 비 나리는 삼복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나는 요즘 죽은 뒤에 몸을 동대병원에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죽은 뒤에 몸을 썩혀 내버리거나 태워버리는 것보다는 피 한 방울, 털 한 개라도 쓸 수 있으면 좋고, 몸을 학습용으로 써도 보람 있는 일이고, 이 일이 나의 마지막 작은 효도라 생각했습니다. 보살님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몇 자 적었습니다. 측근에서 몇 사람이 동참하기로 하고 백중 후에 일부러 내려와서 수속해 준답니다. – 신묘 여름 석정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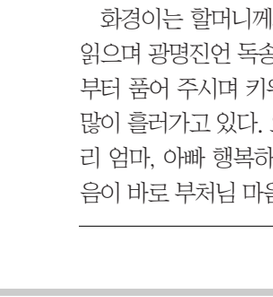


화경은 할머니께서 〈금강경〉 읽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금강경〉을 읽으며 광명진언 독송을 일과처럼 수행하는 초등학교 어린이다. 어려서부터 품어 주시며 키워 주신 할머니께서 노환으로 누워 계신 채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다. 요즈음 화경 어린이는 "할머니 오래오래 사시고 우리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하며 기도한다고 했다. 어린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GREEN EARTH

녹색 지구를 위한 우리의 실천!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은 생명들이 살아갈 소중한 삶의 터전을 훼손시킵니다.
지구와 모든 생명의 삶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와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에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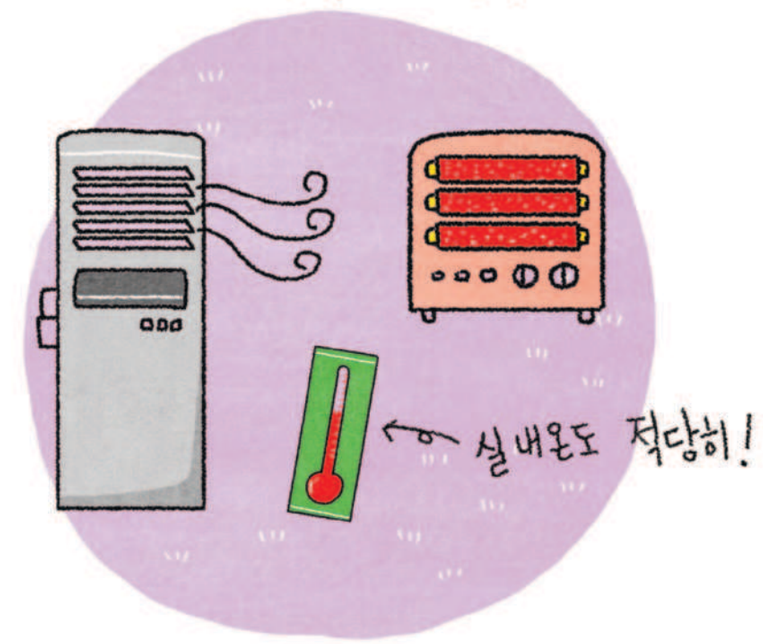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비닐 대신 장바구니를!



에너지 절약은 쉬워요!



'분리수거하기' 약속해요!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